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0 연차보고서

KOSME Annual Report 20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0 연차보고서
KOSME Annual Report 2020 

Contents

0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요

설립목적 및 역할	08
연혁	10
중진공 비전·전략 체계	12
중진공 주요 사업	13
2020 한눈으로 보는 중진공	14
2020 중진공이 걸어온 길	16

02

2020년 경제 동향과 중소벤처기업 동향

경제 동향	20
중소벤처기업 동향	23

03

2020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추진 성과

총괄	26
기업진단	29
정책자금 융자	32
글로벌화 및 수출마케팅 지원	59
인력양성	81
창업기술 지원	97

04

2020년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혁신 성과

고객서비스 향상 및 사회적가치 실현	114
조직 경영 효율성 강화	120

05

2021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추진 방향

2021년 사업추진 방향	130
---------------	-----

부록

결산 재무제표	136
조직도	142
운영위원 및 임원	144
출자회사 현황	146
부문별 담당부서 및 집필자	150

발간사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실현을 위해 산업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종합지원기관입니다.

2020년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 실업률 증가, 국제교역 감소 등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이 혁신동력과 기술력을 갖춘다면 경제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진공은 지원사업 및 조직 전반을 혁신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안전판인 정책자금 융자의 경우, 4차례의 추경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6.3조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그린뉴딜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1조 원을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AI기반 비대면 진단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책자금 집행절차를 디지털·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요자 중심 금융지원을 선도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봉쇄 조치로 중소기업의 수출길이 막힐 때, 중진공은 수출지원사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신속 전환하는 한편, 아마존, 이베이 등 글로벌 플랫폼과 연계한 윈스톱 온라인수출 지원 및 항공·해운 공동물류 긴급지원 등 온·오프라인 수출 활로를 제공하여 악조건 속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가중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공제누적가입자가 50만 명,



공제금이가 4조 원을 돌파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변화된 채용환경을 고려한 AI 면접 서비스,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등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신규채용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021년 중진공은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자세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자금 집행 비대면화, 스마트공장 일괄지원체계 구축, 비대면 원클릭 수출지원 등 비대면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혁신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규제자유특구 지원 및 청년기업 지역 이전 등 지역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한 지역산업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중심 선제적 구조조정과 경영위기 정상화를 위한 자금 확대 등 사회 포용성 확대를 위한 사회안전망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대응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지속 성장을 위한 그린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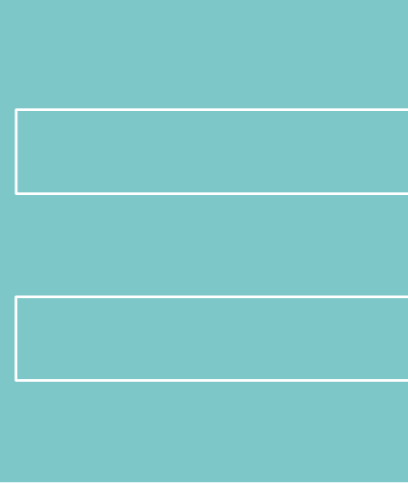
이와 같이 올해에도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산업 현장 최일선에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중진공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주역으로 도약하는 그날까지 중진공은 항상 중소기업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김광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 Annual Report 2020



0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요

- 설립목적 및 역할
- 연혁
- 중진공 비전·전략체계
- 중진공 주요사업
- 2020 한눈으로 보는 중진공
- 2020 중진공이 걸어온 길



설립목적 및 역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68조에 근거, 1979년 1월 30일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제66조에 근거하여 10.6조원 규모('21년 기준)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한다.

중진공은 중진기금을 기반으로 민간 금융권이 지원을 기피하는 창업기업·소기업 중심으로 정책용자를 공급하는 등 경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인력양성·수출지원·재기지원·기술사업화·청년CEO 육성 등 민간참여가 어려운 고위험영역을 집중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윈스톱 종합지원기관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설립 및 기금운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8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제66조**
 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기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한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은 1978년 설치 이후,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산업기반기금 등 정부 부처 및 기관별로 산재된 중기지원 기금이 통합되어 탄생한 중소기업 지원 대표 공공기금이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영현황

중소기업진흥기금
('78.12월 설치)

중소기업창업
지원기금
('96.1월 통합)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96.1월 통합)

산업기반기금
('02.3월 통합)

농공단지진흥자금
('09.1월 통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역할

시장 실패 보완 및 시장 선도 역할

시장실패 보완

민간 금융권이 지원을 기피하는
창업기업·소기업 중심으로 정책용자 공급
경제 안전판 역할 수행


경기 안정기



연 5.4조원 규모,
창업·소기업 등
시장 실패 영역
중점지원

정책
용자

경기 불황기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경기 안정을 위한
적극적 금융 재정
정책 수행

시장 선도 역할

민간참여가 어려운 고위험영역을
집중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지원

- 투자자복합금융
- 중소기업 인력양성
- 청년CEO 육성
- 재기지원
- 기술사업화 역량강화(R&D)



중진기금 선도
지원 후
민간 참여 유도

History

1979
~
1989

1990
~
1999

2000
~
2011

2012~

1979.01 중소기업진흥공단 설립
(7부 3실, 195명으로 발족)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및 기금 설치('78.12)

1982. 10 중소기업연수원(안산) 개원
* 5개 연수원('20.12 기준)

1985. 02 국내 지역본·지부 설치
* 전국 32개 지역본·지부('20.12 기준)

1989. 09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수행
*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

1993. 04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한
구조개선사업 실시

1993. 12 창업보육센터 설립

1995. 07 (주)SBC인증원 설립

1995. 12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

1998. 09 IMF 경제위기상황에 따른 직접대출
전면실시

1998. 09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비 설치
* 12개국 20개소('20.12 기준)

2000. 01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공공기금 전환

2005. 06 한국벤처투자(주) 설립

2007. 04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 개소

2008. 06 정책자금 융자 및
해외마케팅지원창구 단일화

2009. 0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지정

2011. 03 청년창업사관학교 개교
* '18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2014. 07 본사 지방이전 완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2014. 08 중소벤처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범
* 중소벤처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기금 설치('14.1)

2017. 03 기업인력애로센터 개소 및
전국 16개 센터 설치

2018. 06 중진공파트너스(주) 설립

2019. 04 기관 명칭 변경 발효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19. 06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전국 18개 지역 확대 운영

2019. 09 KSC 2개소 개소
* 미국 시애틀, 인도 뉴델리

2020. 11 규제자유특구 전담기관지정

중진공 비전·전략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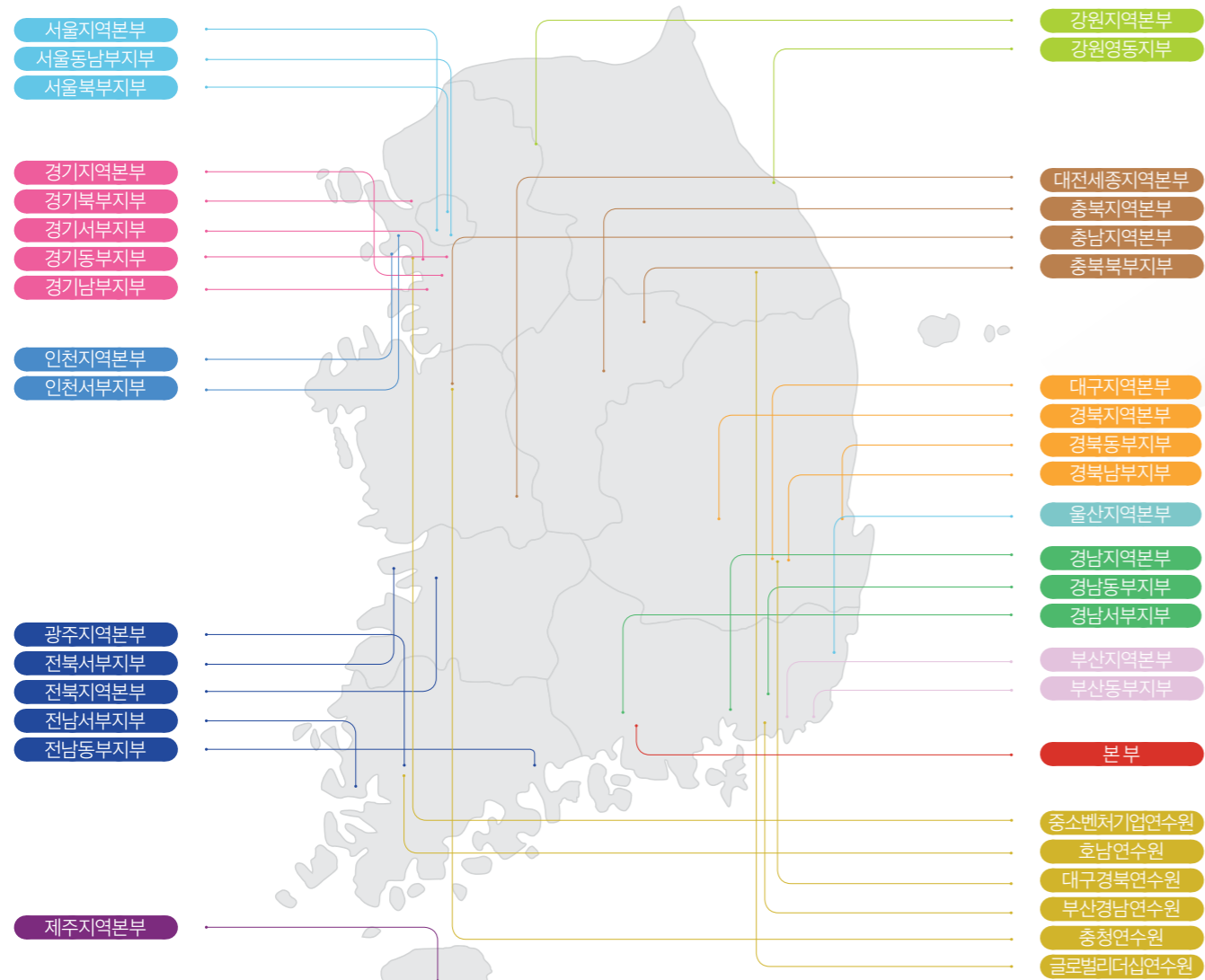


중진공 주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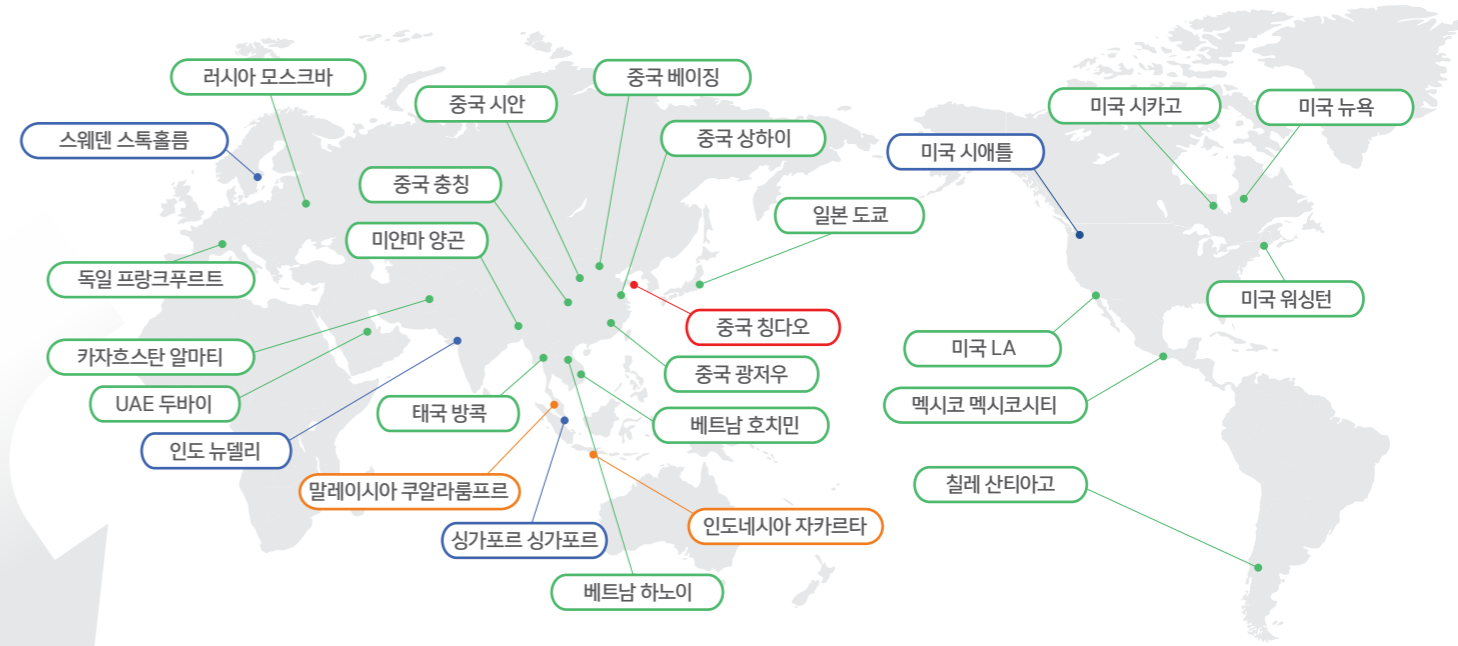


2020 한눈으로 보는 중진공

중진공 국내 본·지점
32개 지역본·지부 6개 연수원



중진공 해외 거점
17개국 27개소



코로나19 극복 및 한국판 뉴딜 추진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 실현

코로나19 대응	+	한국판 뉴딜
<p>자금 역대 최대 정책자금 6.3조 원 지원으로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극복 지원</p>		<p>디지털뉴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4,359억 원 지원 및 전문인력 12,100명 양성</p>
<p>수출 긴급 항공, 해상 물류 지원 등으로 지원기업 수출성과 39.5억 불 창출</p>		<p>그린뉴딜 그린 뉴딜 분야 1,518개 사, 4,845억 원 지원 및 탄소중립 전환 추진</p>
<p>인력 내일채움공제 장기재직 지원 179,680명 및 일자리 매칭 플랫폼으로 3,521명 매칭</p>		<p>안전망강화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 확대 등으로 64,041명 일자리 창출</p>
<p>상생 안산, 경북, 광주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개방하여 2,704명 입소, 2,494명 완치</p>		<p>지역균형뉴딜 규제자유특구 실증기업 51개 사, 304억 원 및 청년창업기업 지역이전 지원</p>

2020 중진공이 걸어온 길

January

1월

3일 2020년 시무식



13일 산림청과 '산림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30일 창립 4주년 기념식 개최

February

2월

17일 제7기 중진공感 장학금 수여식



March

3월

12일 경기남부지부 개소식 및 코로나19 위기 대응 간담회 개최



18일 대구지역 코로나19 구호물품 전달식

30일 청년창업사관학교 구리캠퍼스 개소식

April

4월

1일 호남연수원 코로나19 격리시설 개방

27일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해외마케팅 공동 추진 및 해외진출 경험 공유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May

5월

19일 김학도 이사장 취임식



27일 신북방 진출 화상상담회 개최

June

6월

2일 윤리경영의 날 개최

17일 신남방 최대 쇼핑물 소파·큐텐과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 상품 전용관 구축



23일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 협회와 '벤처 4대 강국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6일 상반기 정년퇴임식 개최

December

12월

7일 소망트리 점등식 및 지역사회 기부금 전달식 개최



17일 2020년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장상 표창

28일 2020년 경남혁신도시 발전 유공 관련 경남도지사 표창 수상

November

11월

10일 내일채움공제 기금 4조원 돌파 및 가입자 50만 돌파 기념식 개최



11일 뷰티·바이오 분야 유망기업 화상상담회 개최

11일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명예장) 수상

12일 스마트 K-물류 발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간담회 개최

16일 2020년 '올해의 중진공인' 선발 경진대회 개최

26일 무역보험공사와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안전망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October

10월

7일 정책 Think Tank 기관장 초청 간담회 개최



19일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유공기관 보건복지부장관 포상 수여

20일 2020 수출바우처 매칭페어 개최

23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우수 전자 기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7일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 최초 만기 기념행사 개최

2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스타트업 온라인 화상상담회 개최

29일 제28회 중소기업지원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September

9월

17일 방사선 분야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22일 추석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개최

22일 '디지털 리빙랩 프론티어' 발대식

23일 임원 급여 및 경영평가 성과급 반납분 성금 기탁식 개최

25일 중국 위해서 중합보세구와 업무협약 체결 및 우수중소벤처기업제품 비대면 판매전 개최

August

8월

12일 한국국토정보공사 8공간정보 인재양성을 위한 실무협약 체결



18일 경남 內 특별재난지역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기탁식 개최

26일 사업 및 조직 혁신방안 공유 워크숍

31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Ju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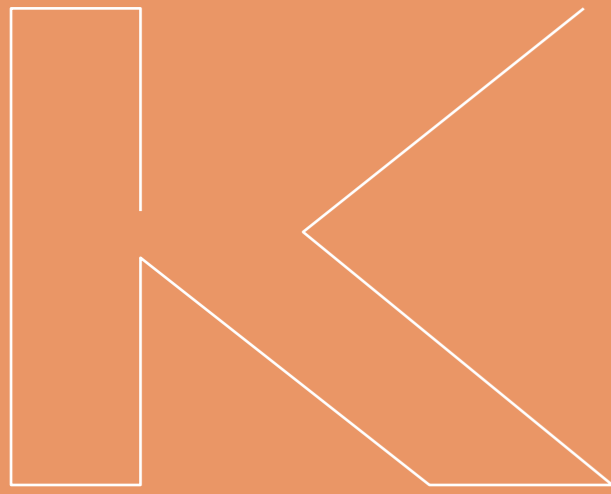
7월

10일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개최 대한민국 동행세일 글로벌특판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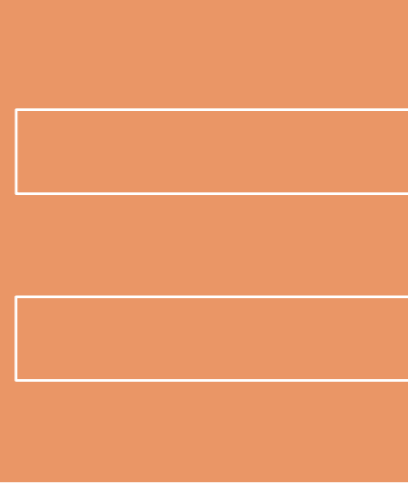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31일 성공적 비대면 프로젝트(K-컨택트) 추진을 위한 쇼케이스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 Annual Report 2020



02

경제 동향 및 중소벤처기업 동향

- 경제 동향
- 중소기업 동향



경제 동향

2020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역성장세를 보였으며, 세계경제성장률(실질GDP)은 △3.5%(OECD 추정)로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0.5%)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20년 1분기부터 하향세를 보이던 GDP는 2분기에 2019년 4분기 대비 10% 감소하는 등 급격한 하락폭을 보였다. 2020년 3분기부터는 봉쇄조치 완화와 더불어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회복세를 보였으나, 백신 보급 문제 및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불확실성 등으로 상반기의 심각한 부진을 만회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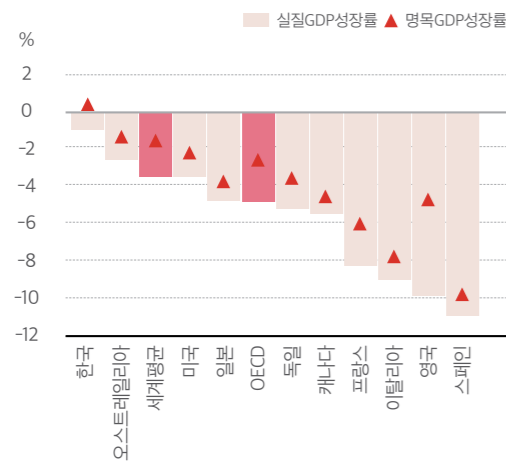
세계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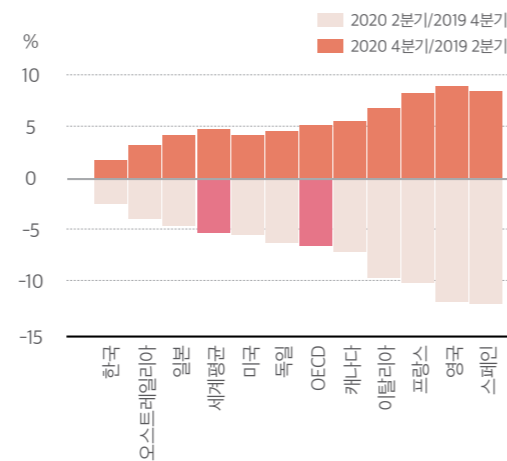
구분	2013~2019 평균	2019	2020	2021	2022	2020 4분기	2021 4분기	2022 4분기
세계경제성장률(GDP)	3.3	2.7	-3.5	5.8	4.4	-0.9	4.4	3.4
실업률	6.5	5.4	7.1	6.5	6.0	6.9	6.4	5.7
인플레이션	1.7	1.9	1.5	2.7	2.4	1.4	3.1	2.4
재정수지균형	-3.2	-3.1	-10.8	-10.1	-6.0			
세계교역신장률	3.4	1.3	-8.5	8.2	5.8	-4.7	6.4	4.8

2020년 국가별 경제성장률 비교

2020년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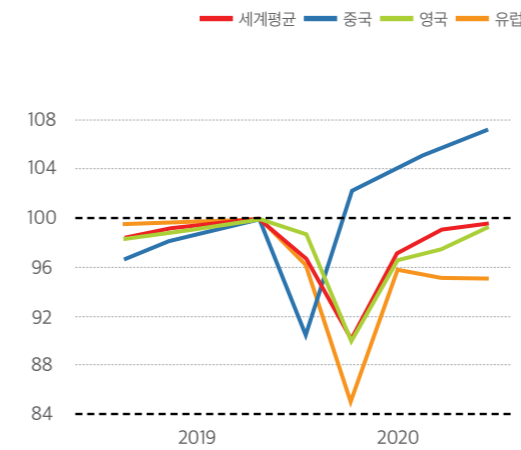


실질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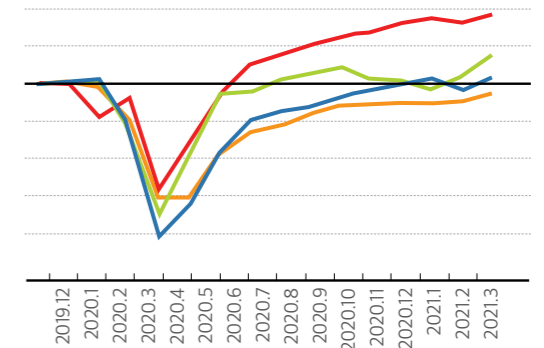
2020년 세계 GDP 추이

GDP



세계 월별 활동 지표

세계산업생산량, OECD 산업생산량, OECD 소매판매량, 12개국 월별 활동지표



출처 : OECD Economic outlook 109 database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 및 수출 부진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1.0%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998년 외환위기(△5.1%)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이다. 국내총소득(GDI) 및 국민총소득(GNI) 역시 각각 △0.2%, △0.3%로 감소하였다. 수출은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따라 수요가 급증한 컴퓨터, 반도체 등 IT제품의 수출 강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위축의 여파로 전년 대비 5.4%p 하락된 실적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국경봉쇄·이동제한조치에 따른 해외여행감소 및 국제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수입 역시 전년 대비 7.1% 감소함에 따라, 경상수지는 전년 대비 26.1% 증가한 753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고용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았다. 음식업,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크게 줄어 전년 대비 21.8만 명이 감소하였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127.6만 명) 이후 최대 수준의 감소폭이다. 고용률은 전년 대비 0.8%p 하락하였으며, 실업률은 0.2%p 상승하였다.

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하락,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 위축 및 통신비·무상급식 지원 등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생산자물가는 전년 대비 0.5%p 하락하였고, 소비자물가도 0.5%p의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 동향

경제 동향 ('16~'20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경제활동별(전년 대비 증가율, %)					
국내총생산(실질)	2.9	3.2	2.9	2.0	-1.0
국내총소득(실질)	4.4	3.3	1.6	-0.3	-0.2
국민총소득(실질)	4.4	3.3	1.6	0.1	-0.3
수출동향(억 달러)					
수출	4,954	5,737	6,049	5,422	5,128
수입	4,062	4,785	5,352	5,033	4,676
국제수지(경상수지)	979	752	775	597	753
고용동향(천 명, %)					
경제활동인구	27,418	27,748	27,895	28,186	28,012
경제활동참가율	62.9	63.2	63.1	63.3	62.5
취업자	26,409	26,725	26,822	27,123	26,904
고용률	60.6	60.8	60.7	60.9	60.1
실업자	1,009	1,023	1,073	1,063	1,108
실업률	3.7	3.7	3.8	3.8	4.0
물가동향(%)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101.0	102.9	104.5	104.9	105.4
생산자물가지수(2015=100)	98.2	101.6	103.5	103.5	103.0

* 참고자료: 한국은행(경제활동별 성장률, 수지, 물가), 관세청(수출입), 통계청(고용동향)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활동이 둔화되면서 2020년 중소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3.7p 하락한 96.1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1.5p 상승한 대기업(111.1)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중소제조업의 평균가동률 역시 4.7%p 감소한 68.7%로 전체 제조업 평균가동률(71.3%)에 비해 저조하였다. 창업법인수는 기술기반업종 및 서비스업종 중심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하였으나, 2019년까지 3년 연속 증가세였던 숙박·음식점업 창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6.3% 감소하였다. 2020년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와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를 보였으며, 중소기업 연체율 역시 소폭 감소(Δ0.09%p)하였다.

중소기업 수출기업수는 교역 감소로 인해 94,934개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295개사, Δ0.3%)하였고, 수출액 역시 1,008억 달러로 일부 감소(1.5억, Δ0.2%)하였다. 그러나 총수출액 감소폭(294억, Δ5.4%)과 비교하면 중소기업 수출은 대내외 충격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총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7%로 최근 4년래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 중소기업 수출은 K-방역, 비대면품목, 온라인수출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며 4분기에는 역대 최고 분기 수출액(288억 달러)을 기록, 우리나라 수출반등을 견인하며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냈다.

중소벤처기업 동향 ('17~'20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
제조업 생산동향 (2015=100 기준)					
제조업 생산지수	104.8	106.3	106.7	106.3	0.4p
대기업 생산지수	104.0	107.3	109.6	111.1	1.5p
중소제조업 생산지수	106.3	103.5	99.8	96.1	Δ3.7p
산업활동 동향					
제조업 평균가동률(%)	73.5	73.8	73.2	71.3	Δ1.9%p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73.1	73.0	73.3	68.7	Δ4.7%p
창업 및 부도동향					
신설법인 수(개)	97,549	102,372	109,520	123,305	13,785
제조업 신설법인 수(개)	15,054	15,286	14,807	15,416	609
부도법인수(개)	494	469	414	292	Δ122
금융동향					
기업대출 연체율(12월)(%)	0.47	0.53	0.45	0.34	Δ0.11%p
대기업 연체율(12월)(%)	0.43	0.73	0.50	0.27	Δ0.23%p
중소기업 연체율(12월)(%)	0.48	0.49	0.44	0.36	Δ0.09%p
어음부도율(%)	0.01	0.01	0.01	0.00	Δ0.01%p
수출동향					
총수출기업수(개)	95,243	97,394	98,584	98,187	Δ397
중소기업 수출기업수(개)	92,287	94,162	95,229	94,934	Δ295
수출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	96.9	96.7	96.6	96.7	0.1%p
총수출액(백만 달러)	573,694	604,860	542,233	512,789	Δ29,444
중소기업 수출액(백만 달러)	103,209	105,196	100,928	100,769	Δ159
총수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	18.0	17.4	18.6	19.7	1.1%p

* 출처: 통계청(생산동향, 산업활동동향, 창업 및 부도동향), 금융감독원 (금융동향), 중소기업본부 (수출동향)

K

S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 Annual Report 2020

S

M

E

03

2020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추진 성과

- 총괄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융자
- 글로벌화 및 수출마케팅 지원
- 인력양성
- 창업·기술 지원

총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코로나19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수요자 맞춤형 정책기획 및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중진공은 ①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②현장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 구현, ③공공성 강화로 사회적 가치 실현, ④경영혁신으로 국민신뢰 확보를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정책자금 융자, 수출마케팅, 인력양성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하였다.

중진공이 2020년도에 추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진공은 4,152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경영 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한 **기업진단**을 실시하여 총 17,059억 원의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결정하였고, 진단을 통해 파악된 기업의 문제점 및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R&D, 보증 등의 유관기관 사업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 마케팅, 연수 등의 중진공 사업 연계를 통해 총 9,344건의 정책지원 사업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하였다.

정책자금 융자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동력 확보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2020년 총 24,407개 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사적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인력·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역대 최대규모 정책자금 6.3조원을 적기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 생태계 유지와 위기극복을 지원하였다.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 피해기업에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하고 고용·산업위기 지역 및 업종 등의 일자리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선제적 자율구조개선과 산업재편 위기기업의 신산업 전환 촉진으로 위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였다. 또한 재창업 성공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하였다. 이와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부응하여 디지털 분야·비대면 분야를 육성하고,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지원하는 디지털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주력산업 중점지원을 통해 한국판 뉴딜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여 지역산업 생태계를 활성화 하였다. 성장유망기업의 도약을 위한 투융자, P-CBO 등 스케일업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시장 진입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 평가와 진단을 신설하는 등 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혁신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자금 운영을 추진하였다.

글로벌화 및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장조사, 해외규격인증, 홍보·마케팅 등 수출 소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수출규모에 따라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전용서비스 신설과 의료/바이오기업 지원강화 등 수출 애로해소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여 2020년 총 3,268개사 1,167억 원을 지원하였다.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중소벤처기업의 해외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지역수출마케팅 사업은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을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해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652개 기업이 35백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Gobizkorea)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인프라 구축 및 온라인마케팅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타깃시장과 타깃품목을 도출하는 등 플랫폼 기능을 고도화하여 26,217개의 수출유망상

품을 신규 발굴, 총 114백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전자상거래활용수출사업의 경우 티몰, 쇼피, 쿠팡 등 글로벌플랫폼과 협업하여 쇼핑몰 내 한국관 구축 및 입점 지원으로 중소기업 온라인해외판로 확대를 지원하였으며, 글로벌쇼핑몰 입점에서 더 나아가 자사 쇼핑몰 구축을 지원하여 온라인직접수출 자생력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온라인전시회,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이커머스 특성화대학 지원 등을 통해 온라인수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이외에도 수출인큐베이터(12개국 20개소) 및 코리아스타트업센터(4개국 4개소)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창업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5개 국제기구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 10개국 산업협력관 교류 등으로 해외진출 협력 기반 마련하였으며,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을 통해 APEC 내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였다.

인력양성 사업은 인력유입부터 장기재직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인력양성 플랫폼을 구축하여 추진하였다. 우선, 인력유입을 위해 중소기업 특성화고, 기술사관육성 및 대학연계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215개 특성화고, 12개 기술사관 사업단, 13개 전문대학을 지원하고, 32개 지역본지부를 통해 8,626개사의 구인기업(구인수요 42,814명) 및 48,248명의 구직자를 발굴하여 1,868개사에 3,626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중소기업연수원(안산) 등 5개 연수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연수 사업을 운영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연수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온라인 교육 '웨비나 연수' 시스템 도입 등의 노력을 통해 2020년 44,988명, 누적인원 154만 명의 연수인원을 달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정과제인 스마트제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2,100명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스마트공장 장기심화과정 신설 및 스마트공장배움터 2기(대구경북, 충청)를 개소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2014년 출범한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20년 내일채움공제 15,110개사 42,454명, 청년내일채움공제 54,376개사 137,226명 신규가입으로, 누적가입자수 총 231,085개사 551,344명을 달성하였다.

창업·기술지원 사업은 창업기반 마련 및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유망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성장까지 창업 쏠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구리캠퍼스를 개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청년CEO 지원규모를 1,000명에서 1,035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AI(인공지능) 분야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글로벌 수준의 창업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창업사관학교를 신설하여 디지털 뉴딜 정책실현에 기여하였다. 현재까지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글로벌창업사관학교를 통해 누적 4,858명(청년창업사관학교 4,798명, 글로벌창업사관학교 60명)의 청년CEO를 배출하였으며, 매출액 48,637억 원, 일자리 창출 13,903명, 지식재산권 16,989건의 지원성과를 거두었다.

중소벤처기업혁신바우처 사업은 2020년 2,060개사를 대상으로 2,952건의 컨설팅·기술·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지원 전후 매출액증가율이 3.7%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R&D 성공 판정 기술 및 특허 보유기업 중 사업화가 필요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진단을 실시, 시장검증 32개사, 시장친

화형 기능개선(추가R&D) 20개사를 지원하였으며, 시장검증 지원을 통해 1,190백만 원의 신규 매출을 창출하였다.

이와 같이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 국가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해 혁신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자금·기술 등 경영기반 확충, 해외판로 확대, 인력난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기업진단

1. 사업개요

기업진단은 기술·경영 전문가가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분석한 후 개선 로드맵 제시 및 정책자금, 마케팅, 인력 등 필요한 정책사업을 맞춤형으로 연계지원하는 사업이며, 정책자금 용자 신청업체에 대한 사전진단 및 용자 후의 사후진단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부실의 발생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기금의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2006년부터 운영중인 기업진단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의 외부환경 및 사업성과분석, 기업경쟁력분석 등 7개의 필수 모듈과 스마트팩토리 수준진단, 사회적가치 역량진단, 사후관리진단 등 21개의 옵션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단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에 최적화된 모듈을 선정·활용하여 진단을 실시한다.

2.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2020년에는 단순처방 중심의 지원에서 사전예방·치료 중심의 지원으로 기업진단의 목적성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진단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별 지원체제로 개편하였다. 기업애로 상황에 따라 비대면진단, 표준진단, 종합진단 등 단계별 진단기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금건정성 강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기업진단 지원체계 (K-Doctor)

구분	원격진료	전문병원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특수진료
진단 단계	Step 1 비대면진단	Step 2 표준진단	Step 3 종합진단	Step 4 긴급진단	Step 5 챌린지진단
집중 대상	•자가진단 •성과관리	•정책자금 신청	•심층분석 필요 •잔액보유	•재난재해 피해 •경영애로	•탈탄소 •디지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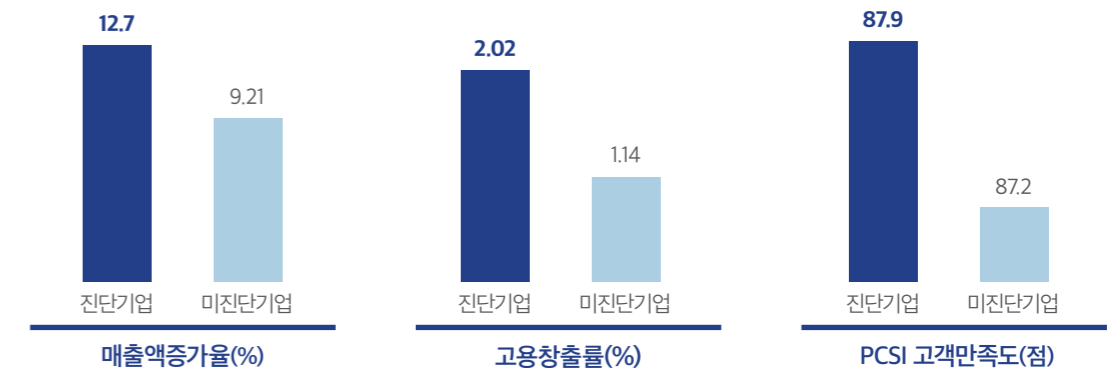
포스트코로나 대응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일상적 자가진단이 가능한 “비대면진단”을 개발하였다. 비대면진단은 자가진단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사·공간 제약에서 벗어나 적시에 기업분석 및 맞춤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진단시스템으로, '20년 12월에 서비스를 개시하여 시범적으로 341개사(451건)에 비대면진단을 통한 기업분석 결과와 표준솔루션 370건을 제공하였다.

또한 진단기업의 부실예방 및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부실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는 “사후관리진단”, 경영성과를 관리·측정하는 “경영성과진단” 모듈을 신규 개발하였다. 특히 사후관리진단은 부실 관점에서 재무, 경영, 사업 분야를 심층 분석하고, 사업유지형, 비용절감형 등 총 11개 경영개선유형 도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효율화하여 기금건정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기업진단 사업의 정책목적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가치 역량 진단, 안전진단 모듈을 고도화 하였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코로나, 폭우 등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각 모듈에 지표 및 솔루션을 추가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총 174개사에 347건의 정책사업을 연계하고, 58개사를 안전진단하여 중소기업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2020년에는 총 4,152건의 기업진단을 통해 정책자금 용자, 기술지원 등 9,344개의 지원사업을 맞춤 연계 지원하였으며, 진단기업은 미진단기업 대비 매출액증가율 3.5%p, 고용창출 0.88%p, 고객만족도 0.7점이 더 높아진 성과를 보였다.

2020년 기업진단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 고용창출률(%) : 고용창출 인원 수 / 지원 기업 수

* 기업진단평가사 40명 신규 취득하여 누적 총 355명

* 2020년 2급 이상(고급, 중급) 배출 비율 26.7%

이외에도 기업진단의 실질적인 품질 제고를 위해서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진단평가아카데미(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하였다. 특히, 스마트팩토리 진단실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산업 변화에 맞는 현장 중심의 진단 전문가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수료자에 대해서는 실무 역량평가(시험, PT평가)를 거쳐 기관내부용 자격증인 기업진단평가사를 등급별로 취득할 수 있게 하여, 5회의 교육을 통해 총 40명의 기업진단평가사를 신규 배출하였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맞춤형 종합 지원기관으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진단 품질 제고를 통해 양질의 기업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정책자금 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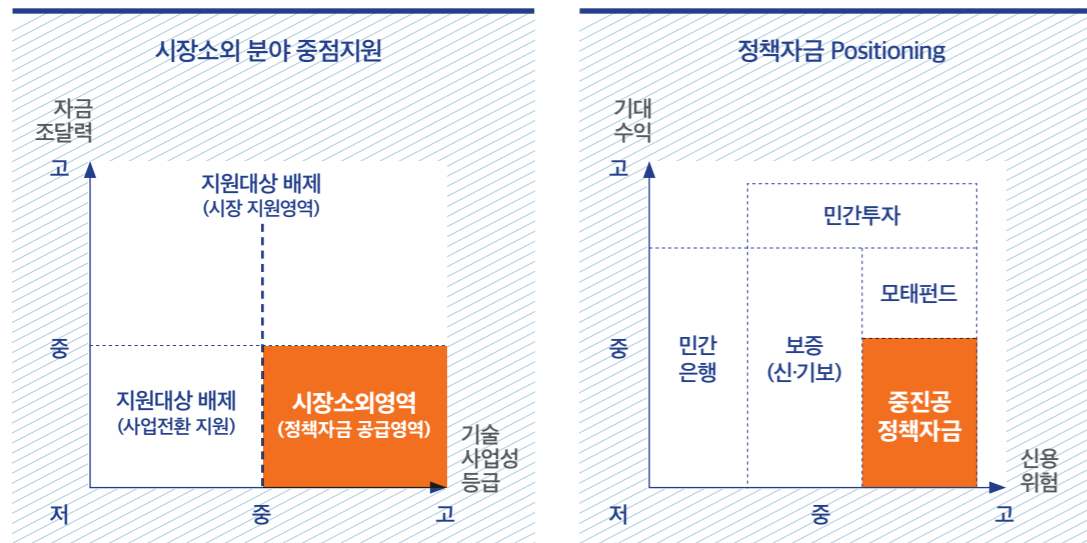
1. 사업개요

지원체계



역할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력이 취약한 시장소외영역 중소기업 중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집중 지원하여 우량기업으로 견인



2.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2020년도 정책자금 용자 규모는 62,900억 원(당초 45,900억 원, 증액 17,000억 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총 24,407개 기업에 지원하였다. 특히, 추경예산 편성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7,0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코로나19 피해기업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는 등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금리를 인하하여 내수경기 진작을 유도하였고, 제조현장의 스마트 전환과 한국판 뉴딜 분야 기술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여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2020년 중진공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중소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 정책자금 6.3조 원과 만기연장 등을 통한 7조 원의 유동성을 비대면 지원 방식 등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하였다. 위기징후 기업의 경영정상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제도를 신설하고, 실패를 경험으로 활용하는 성공 재도약 지원,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 채권정리를 통해 금융취약계층 경제활동을 활성화하여 정책자금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태풍 '마이삭', 역대 최장기간 장마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기업에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하였으며, 단순한 재난복구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피해 수준에 따른 진단 기반 문제해결식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피해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지만 민간금융에서 소외되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정책 자금 지원을 전년 대비 확대(632억 원→911억 원)하고, 여성기업의 신성장 동력화와 퇴직 기술자의 기술 사장방지를 위한 전용자금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영역에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였다(5,469억 원→9,032억 원). 또한 고용·산업위기 지역과 업종의 일자리 안정을 지원하고 신규 고용창출 기업의 지속정장을 위한 자금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 중심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 30,137명을 창출하여 중소기업 고용안정을 뒷받침하였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여 디지털 뉴딜 분야와 그린 뉴딜 분야 기업에 1조원의 예산을 집중 지원하였고, 제조현장의 스마트화 전환 및 기존 스마트공장의 개선을 지원하였다.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실증기업과 지역별 지역주력산업을 지원하였으며, 혁신성장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한 데스밸리 극복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2.8조 원을 공급하는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하였다. 적극적 투자자 지원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P-CBO 발행, 기업 가치향상(Value-up) 등 혁신성장 유망기업의 도약을 위한 스케일업(Scale-Up)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였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방식 금융 트렌드에 맞추어 빅데이터 기반 비대면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 기반 맞춤형 정책연계와 같은 비대면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책자금 집행을

디지털·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정책자금 상담 채널 다양화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해 전년 대비 상담가능물량을 4.4배 확대하였으며, 특히 AI 기반 챗봇 상담시스템 및 전담 콜센터를 구축하여 상담 대응력을 제고하였다. 이외에도 한정된 예산에 따른 조기소진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투자재원을 충족하기 위하여 민간 은행과 협업을 통해 정책자금-민간자금 매칭 방식 협업대출을 신설하고, 정책자금 신청 기업의 서류준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금융지원 서비스를 혁신하였다.

정책자금 융자 지원실적

(단위 : 개, 억 원)

구 분	'20년 정책자금 융자 예산		'20년 지원업체 수
	당초	최종	
혁신창업사업화	25,500	27,500	11,109
신성장기반	13,300	14,300	2,588
신시장진출지원	2,000	3,000	1,407
긴급경영안정	1,000	13,000	7,745
재도약지원	2,100	3,100	1,363
투융자복합금융	2,000	2,000	195
합계	45,900	62,900	24,407

3. 세부사업 추진실적

혁신창업사업화자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창업 활성화와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자금으로, 1998년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시작으로 2010년 재창업자금 지원, 2012년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설, 2015년 재창업자금을 재도약지원자금으로 변경, 2019년 신시장진출지원자금에서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편입하고, 고용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일자리 특화자금인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도입, 2020년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지원자금과 혁신성장 분야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미래기술육성자금과 고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하였다.

2020년에 중진공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예산 27,500억 원(창업기반지원자금 17,000억 원, 일자리창출촉진자금 4,000억 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2,900억 원, 미래기술육성자금 1,800억 원, 고성장촉진자금 1,800억 원)을 11,109개 업체에 지원하였다.

2020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창업기반지원	1,700,000	9,013	2,429,519	7,312	1,700,000
일반	1,390,000	5,567	1,951,561	4,954	1,390,000
청년전용창업	160,000	2,742	279,527	1,696	160,000
시니어기술창업	50,000	270	67,586	254	50,000
비대면분야창업	100,000	434	130,845	408	100,000
일자리창출촉진	400,000	1,449	534,107	1,374	400,000
개발기술사업화	290,000	1,488	416,283	1,374	290,000
미래기술육성	180,000	663	255,408	620	180,000
고성장촉진	180,000	449	257,620	429	180,000
합계	2,750,000	13,062	3,892,937	11,109	2,750,000

가.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1) 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조달력이 부족한 설립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지원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 사업추진현황

2020년도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은 13,900억 원을 조성하여 연 예산 100%를 집행하였다.

2020년 창업기반지원자금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1,390,000	5,567	1,951,561	4,954	1,390,000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은 업력별로 설립 1년 미만 3,317억 원(23.9%), 설립1년 이상~3년 미만 4,464억 원(32.1%), 설립 3년 이상~7년 미만 6,119억 원(44.0%)이 지원되어 창업기업 지원 목적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다.

업력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구분	신청		대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1년 미만	1,100	449,066	951	331,672
1년 이상~3년 미만	2,054	653,989	1,807	446,421
3년 이상~7년 미만	2,413	848,506	2,196	611,907
합계	5,567	1,951,561	4,954	1,390,000

지원업체의 매출액 규모는 10억 원 미만 기업이 52.9%(7,351억 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해 전체 예산 중 94.2%(13,090억 원)를 집행하였다.

매출액 규모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

구분	신청		대여		비율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10억 원 미만	3,514	1,070,057	3,078	735,103	52.9
10~100억 원 미만	1,911	780,738	1,742	573,946	41.3
100억 원 이상	142	100,766	134	80,951	5.8
합계	5,567	1,951,561	4,954	1,390,000	100.0

3) 제도개선 사항

융·복합, 지식서비스 등 업종다변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운전자금 중 투자성격을 가진 지식재산권 매입, SW구입 등 정보화 촉진, 연구용역 비용 등을 지원하는 투자자금을 별도 운영하고, 관련 중소기업에 우대 지원하였다.

나. 청년전용창업자금

1) 사업개요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만 39세 이하 청년층의 창업촉진을 위하여 청년창업자에게 저금리(2.0% 고정금리)의 창업자금(기업당 1억 원 이내, 용자기간 6년 이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금과 함께 교육, 멘토링, 마케팅 지원 등을 패키지로 연계하여 창업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2) 사업추진현황

2020년도에는 1,696개 업체에 1,600억 원을 지원하여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이후 후속 연계 지원으로 창업 초기기업의 사업화 애로해결을 위해 1:1 멘토링을 2,240건 실시하였다.

2020년 청년전용창업자금지원 실적

(단위 : 개사, 백만 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160,000	2,742	279,527	1,696	160,000

3) 제도개선 사항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 및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16년 2.5%에서 '17년 2.0%로 인하하였고, 정부의 연대보증 면제 확대 정책(창업 7년미만 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라 연대보증 면제를 시행('17년 7월)하였다. 또한, 사업화 준비가 완료된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및 입교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성공패키지 자금을 신설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였고, '18년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상환하도록 하는 '기업자율상환제도'를 도입해 청년층의 만기 일시 상환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층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다. '20년에는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제조기업의 융자한도를 기존 1억 원 → 2억 원으로 상향하였다.

다.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1) 사업개요

기술노하우를 축적한 중년층 전문인력 창업지원 확대를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정부출연연구소 은퇴자 또는 기술사·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2) 사업추진현황

2020년 신설한 자금으로 254개 업체에 500억 원을 지원하여 중년층 전문인력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20년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실적

(단위 : 개사, 백만 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50,000	270	67,586	254	50,000

라. 비대면 분야 창업자금

1) 사업개요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전용자금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중 비대면분야 품목 영위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사업추진현황

2020년 신설한 자금으로 408개 업체에 1,000억 원을 지원하여 비대면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와 비대면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20년 비대면창업자금 실적

(단위 : 개사, 백만 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00,000	434	130,845	408	100,000

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1) 사업개요

일자리창출촉진자금 : 설립 7년 미만의 창업기업 중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기업과, 인재육성 기업의 집중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사업추진현황

2020년도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은 4,000억 원을 조성하여 연 예산 100%를 집행하였다.

2020년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400,000	1,449	534,107	1,374	400,000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자금지원을 받은 달 대비 해당 연도 말의 인원수 차이를 신규 일자리창출로 산정하여,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지원기업의 1억 원당 고용인원 수를 그 외 자금과 비교해본 결과,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은 0.68명/억 원, 그 외 자금은 0.47명/억 원으로 고용효과가 1.4배 높은 것으로 산출되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등 2개 이상의 자금 수혜기업은 고용창출인원수에서 중복산정 제거

구분	고용창출인원 수(명)	지원금액(억 원)	고용효과(명/억 원)
일자리창출촉진자금	2,710	4,000	0.68
그 외 자금	27,427	58,900	0.47
계	30,137	62,900	0.48

3) 제도개선 사항

고용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 주요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대상('일자리 창출', '일자리 유지', '인재육성' 기업 등)으로 추가 우대금리(Δ0.1%p)를 적용하고,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은 융자지원결정 평가등급을 1단계 완화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일자리특화자금 신설하였다. 2020년에는 시도 교육청 평가 등을 통해 추천된 우수 선도기업을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청대상에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한 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2000년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시중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술기반 중소벤처기업을 위하여 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2) 사업추진현황

2020년도에는 1,374개사에 2,90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예정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여 우수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였다.

2020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290,000	1,488	416,283	1,374	290,000

업종별 지원실적을 보면 기계·금속 1,096억 원(37.8%), 전기·전자 555억 원(19.1%), 섬유·화학 495억 원(17.1%) 순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74.0%인 2,146억 원이 지원되었다.

2020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

구분	신청		대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비율
기계금속	538	154,451	492	109,593	37.79
전기전자	289	75,488	276	55,506	19.14
섬유화학	242	67,126	222	49,512	17.07
잡화음식료	163	43,408	153	31,528	10.87
기타	256	75,810	231	43,861	15.12
계	1,488	416,283	1,374	290,000	100.00

기술유형별로는 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록기술 1,434억 원(49.5%),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술 681억 원 (23.4%),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술 317억 원(10.9%) 순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기술유형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

구분	업체 수	금액	비율	
			업체 수	금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675	143,407	49.1	49.5
특허청 인증	1	180	0.1	0.1
특허청 IP-R&D전략지원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	1	100	0.1	0.0
중기부 R&D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 성공	275	56,857	20.0	19.6
정부 및 정부공인기관 인증 기술	4	1,428	0.3	0.5
중기부 외 R&D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 성공	51	11,150	3.7	3.8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152	31,695	11.1	10.9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95	20,348	6.9	7.0
Inno-biz	45	10,580	3.3	3.6
Main-Biz	21	4,658	1.5	1.6
벤처기업	44	8,097	3.2	2.8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9	1,200	0.7	0.4
임치계약	1	300	0.1	0.1
계	1,374	290,000	100.0	100.0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기술개발로 인해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시중 금융권의 자금 대출이 어려운 기술개발기업에 신용대출(2,539억 원, 87.6%) 위주로 중점 지원하여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지원이 이루어졌다.

2020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신용	지식재산권	부동산	기타	계
담보별	253,876	26,531	9,518	75	290,000

3) 제도개선사항

중소벤처기업 개발기술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위해 시설자금 지원비율을 확대하여 생산설비 도입과 자가사업장 구축을 지원하고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 공급을 통해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에 기여하였다.



사. 미래기술육성자금

1) 사업개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소기업 중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 제고 등 혁신역량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사업추진현황

2020년도 신설한 자금으로 1,800억 원을 조성하여 연 예산 100%를 집행하였다.

2020년 미래기술육성자금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180,000	663	255,408	620	180,000

아. 고성장촉진자금

1) 사업개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중소기업 중 기술·경영성과가 우수한 창업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안정적인 성장기 진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2) 사업추진현황

2020년도 신설한 자금으로 1,800억 원을 조성하여 연 예산 100%를 집행하였다.

2020년 고성장촉진자금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180,000	449	257,620	429	180,000

신성장기반자금

신성장기반자금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등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당초 구조개선자금 내 구조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과 협동화사업을 통합하여 경영혁신자금이란 명칭으로 2007년부터 신규 추진되었다. 200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효율화 방안에 따라 명칭을 경영혁신자금에서 신성장기반자금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2010년에는 농공단지입주기업 지원사업을 신성장기반자금을 통합하였고, 2014년에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2015년 고성장(가젤형)기업 전용자금 및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을 신설하였다. 2018년에는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을 신설하여 2019년부터 혁신성장지원과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사업개요

- **혁신성장지원**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과 초기 가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의 시설자금과 초기 가동비를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사업추진현황

2020년 신성장기반자금은 예산 14,300억 원의 100%를 집행하였다.

2020년 신성장기반자금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혁신성장지원	930,000	2,396	1,308,195	2,161	930,000
제조현장스마트화	500,000	436	616,497	427	500,000
계	1,430,000	2,832	1,924,692	2,588	1,430,000

3) 제도개선 사항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시설투자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용자한도를 확대 운영하였다. 생산시설 국내 이전 등을 추진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경우 국내 영업실적이 부족하여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국내 복귀 기업의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신청 시 업종별 제한 부채비율 예외 적용을 통해 재무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시설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애로, 대형사고 및 재해피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거 구조개선자금 내 특별경영안정사업의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재해복구지원사업과 수출금융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 사업전환지원사업의 회생특례지원자금을 통합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개편하였으며, 2016년에는 수출금융을 신시장진출지원 자금으로 이관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1) 사업개요

- **재해복구지원** 자연재난 또는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벤처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을 지원하여 재해중소벤처기업의 사업정상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 **일시적경영애로**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사업추진현황

2020년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예산 13,000억 원(재해복구지원 및 일시적경영애로지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피해기업과 태풍 '마이삭' 및 역대 최장기간 장마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영위기 대응을 통한 지역경제 및 산업 위기 극복에 기여하였다.

2020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일시적경영애로지원	160,000	189	46,740	173	30,420
재해중소벤처기업		271	64,577	263	49,811
코로나19 피해기업	1,140,000	7,665	1,826,549	7,309	1,219,769
계	1,300,000	8,125	1,937,866	7,745	1,300,000

3) 제도개선 사항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을 일시적경영애로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요건 예외를 적용하는 등 자금지원 요건을 완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연재해, 대외 경영환경 변화(대이란 제재 피해)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극복 지원을 위해 용자조건을 개선하여 경영부담을 최소화하였다.

투융자복합금융자금

미래성장가치와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성장공유형 대출과 스케일업금융이 있다. 2011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후, 2012년부터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95개사에 2,000억 원을 지원하였다.

2020년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성장공유형 대출	100,000	313	407,400	102	102,600
스케일업금융	100,000			93	97,400
계	200,000	313	407,400	195	200,000

가. 성장공유형 대출

1)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 등을 인수하는 대출방식으로 2008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2) 사업 추진 현황

2020년도에는 102개사에 1,026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68.3%, 정보 및 기타업종이 31.7%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으며, 제조업 중에서 기계금속, 전기전자, 잡화음식료, 섬유화학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2020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

구분	신청		대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비율
기계금속	96	125,500	33	34,501	33.6
전기전자	39	64,100	12	12,499	12.2
잡화음식료	27	43,400	11	12,400	12.1
섬유화학	48	61,100	11	10,700	10.4
정보	37	45,700	23	22,000	21.5
기타	66	67,600	12	10,500	10.2
계	313	407,400	102	102,600	100

3) 제도개선사항

기존 전환사채 방식의 투자에서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투자방식을 다양화하였으며, 5억 원 이하 소액투자를 전담하는 약식 심사위원회(투융자복합금융사업 심의소위원회)를 도입하여 혁신창업기업 및 소기업 투자를 확대했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문화의 비대면 전환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대면 산업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였고 대외무역분쟁 등 외부상황을 고려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대상 확대와 선투자 기업 대상의 기업가치평가 방식 개편을 통해 혁신성장 및 핀테크 산업 지원을 강화했다.



나. 스케일업금융

1)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이 신규로 발행하는 회사채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9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2) 사업 추진 현황

2020년도에는 93개사에 민간자본 2,532억 원을 포함 3,506억 원을 지원(재정승수효과 3.6배)하여 중소벤처기업의 대규모 스케일업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85.1%, 정보 및 기타 업종이 14.9%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으며, 제조업 중에서 기계금속, 잡화음식료, 섬유화공, 전기전자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2020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개, 백만 원, %)

구분	20년 스케일업금융		
	업체 수	금액	비율
기계금속	48	171,285	48.9
전기전자	9	31,548	9.0
잡화음식료	12	48,185	13.7
섬유화공	10	47,267	13.5
정보	2	8,490	2.4
기타	12	43,825	12.5
계	93	350,600	100



모태조합 출자

1) 사업개요

유망 창업-벤처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성장을 지원(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하기 위해 모태조합 출자를 통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사업추진현황

중기부, 문체부, 과기부, 고용부 등 10개 부처(기관)가 참여하고 있으며, 부처 출자 목적 및 특성에 따라 펀드가 운용될 수 있도록 계정별로 운영('20년말 기준 19개 계정)하고 있다.

모태조합이 5조 8,482억 원을 출자하여, 총 881개, 28조 4,475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운영 중으로 출자금 대비 4.9배의 승수효과를 달성하였다.

계정별 예산현황

(*20년 12월 말 기준, 단위: 억 원)

구분	중진	청년	엔젤	지방	혁신 모험	소재 부품 장비	문화	특허	영화	과기 정통	연구 개발 특구	보건	관광	스포츠	환경	교육	도시 재생	국토교통 혁신	해양	계
'05~'15	11,101	-	2,090	100	-	-	4,661	1,600	520	1,100	-	800	130	200	-	-	-	-	-	22,302
'16	1,000	-	-	-	-	-	360	-	100	370	-	-	100	200	-	-	-	-	-	2,130
'17	5,000	3,300	-	-	-	-	530	-	180	200	-	-	150	70	200	120	-	-	-	9,430
'18	575	-	-	-	4,000	-	540	200	100	150	-	-	170	100	130	150	-	-	-	6,115
'19	2,400	-	-	-	500	-	630	100	80	150	-	-	130	100	280	150	200	-	200	4,920
'20	5,100	600	-	-	3,700	600	1,130	200	240	150	95	-	300	100	200	150	200	300	200	13,265
계	25,176	3,900	2,090	100	8,200	600	7,851	2,100	1,220	2,120	95	800	980	770	810	570	400	300	400	58,482

* 20년 예산 : 3,000억 원
→ 21년 예산 : 5,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과 수출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한 수출중소벤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1) 사업개요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수출 초보기업(수출 10만 불 미만)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직접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역량을 보유한 수출 유망기업(수출 10만 불 이상)을 대상으로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증대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 사업추진현황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출피해기업 지원 자금 1,000억 원을 포함하여, 1,432개사에 3,000억 원을 집행, 수출기업의 유동성 공급 및 수출 회복에 적극 기여하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해 신규로 예산을 확보(1,500억 원)하였으며, 디지털 수출기업과 K-방역 등 한국 수출을 선도한 K-수출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200억 원→500억 원)하는 등 수출정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0년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지원실적

(단위: 개, 백만 원)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50,000	348	76,565	327	50,000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250,000	1,150	370,523	1,150	250,000
계	300,000	1,498	447,088	1,432	300,000

3) 제도개선사항

내수·초보기업 대상 전용자금 신설 및 지원을 통해 경쟁력은 있으나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직접수출 기반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수출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1,000억 원을 추가 편성·집행하여 중소기업의 수출회복과 경제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재도약지원자금

재도약지원자금은 실패경영인, 부실징후 기업 및 위기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자금이다. 업종전환 및 추가 기업, 사업재편 기업, FTA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자금, 실패경영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재창업자금, 부실징후기업 정상화를 목적으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구조개선전용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중진공은 재도약지원자금 예산 3,100억 원(사업전환 1,570억 원, 재창업 1,200억 원, 구조개선 330억 원)을 1,319개 업체에 지원하였다.

2020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사업전환(무역조정)	157,000	396	205,444	371	157,000
재창업	120,000	908	201,397	758	120,000
구조개선	33,000	240	53,035	220	33,000
계	310,000	1,544	459,876	1,363	310,000

가. 사업전환지원자금

1) 사업개요

사업전환지원사업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도록 용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사업 추진 현황

2006년 9월 사업을 개시한 이후, 2019년까지 총 2,456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여 4,024개사에 19,412억 원의 자금을 집행하였다. 2020년에는 226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고, 371개 업체에 1,570억 원을 지원하였다.

2020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억 원, 개)

예산	신청액	직접대출		대리대출		합계	
		업체수	대여액	업체수	대여액	업체수	대여액
1,434	1,879	286	982	36	452	322	1,434

사업전환 승인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업종추가가 사업전환계획 승인업체 226개사 중 9.0%인 217개사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업종전환은 4.0%인 9개사이다.

세부업종별 승인실적을 살펴보면 유통(56개, 24.8%), 기계금속(50개, 22.1%), 기타(53개, 23.5%), 잡화(8개, 3.5%)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26개, 11.5%), 경기(77개, 34.1%), 부산(7개, 5.3%), 경남(16개, 7.1%)의 순서로 승인업체가 분포되었다.

2020년 사업전환계획 승인실적

유형별

유형	업종추가	업종전환	품목추가	합계
업체수	217	9	-	226
비율(%)	96.0	4.0	-	100

* 2012년 산업위 예산 심의시 단순 품목 추가는 제외하라는 지적에 의거 추가유형 삭제

업종별

업종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보	화학	섬유	잡화	유통	식료	기타	합계
업체수	50	20	7	18	8	8	56	6	53	226
비율(%)	22.1	8.8	3.1	8.0	3.5	3.5	24.8	2.7	23.5	100.0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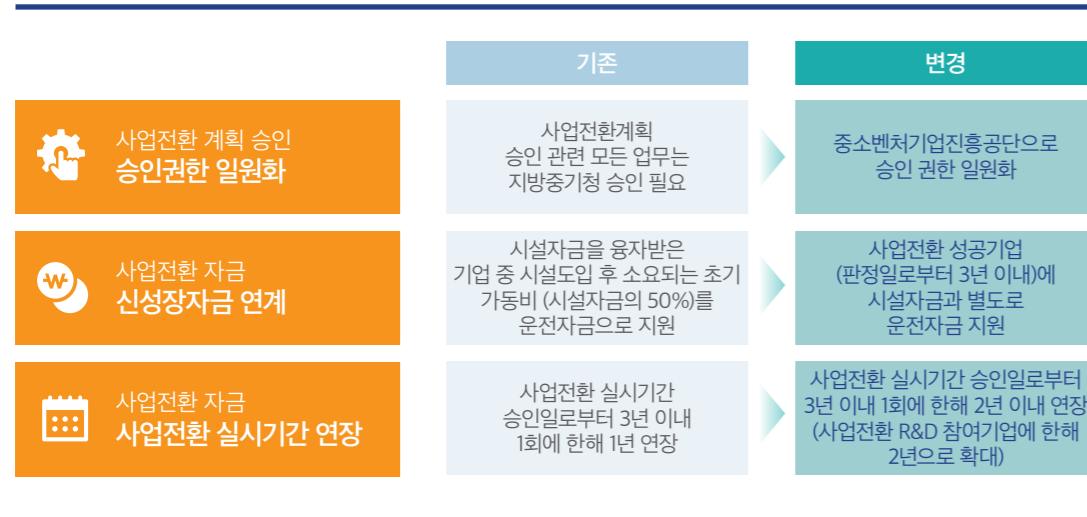
지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세종	합계
업체수	26	12	7	8	7	4	5	77	7	9	7	18	16	11	7	2	3	226
비율(%)	11.5	5.3	3.1	3.5	3.1	1.8	2.2	34.1	3.1	4.0	3.1	8.0	7.1	8.0	3.1	0.9	1.0	100

또한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기업의 신속한 유류자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산거래 중개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전환 성공사례집 제작 및 사업광고, 기획홍보기사 보도 등을 통해 사업전환지원사업의 활성화와 관심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하고 있다.

3) 제도개선 사항

지방중기청에서 수행하던 사업전환계획 승인 관련 모든 권한을 중진공으로 이관·일원화하여 승인기간 단축을 추진하였다. 또한 사업전환 성공기업 대상(성공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으로 신성장자금(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용자 지원하였다. 추가적으로 사업전환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전환 이행실시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실시기간을 확대하였다.

제도 개선



나. 무역조정지원자금

1) 사업개요

무역조정지원사업은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 용자 및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사업추진현황

2007년 4월 무역조정지원법 시행 후 2008년부터 2020년까지 260개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약 860억 원(누계)의 자금을 집행하였다. 2020년에는 62개사에 136억 원을 지원하였다.

2020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억 원, 개)

예산	신청액	직접대출		대리대출		합계	
		업체 수	대여액	업체 수	대여액	업체 수	대여액
136	136	62	132	1	4	63	136

2007년 12월 제조업에 국한되었던 지원범위를 서비스업까지 확대하였고, 2012년 1월에는 지정요건을 완화(매출액 등의 무역피해지표 감소율 25% → 10%)하였으며, 2012년 7월에는 중진공이 신청서류 작성지원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는 등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그 결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및 용자 지원규모가 3년 연속 증가하였다.

연도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및 용자 지원 실적

(단위: 개사, 백만 원)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합계
지정	2	3	2	0	8	24	26	17	24	39	28	38	49	260
용자	200	500	850	200	1,485	8,299	10,320	9,360	9,120	10,130	9,204	12,740	13,620	86,028

또한, 무역조정지원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문·라디오 광고, 인쇄물 발간, 우수사례집 제작 등 종합적인 홍보 및 업종단체와 협업을 통한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향후 FTA 확대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이 무역조정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3) 제도개선 사항

FTA 무역피해기업의 재무안정성 제고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연 2.1% 고정금리에서 연 2.0% 고정금리로 용자 지원조건을 개선하였다.

* ('17년) 연 2.0% 고정금리 → ('18년이후) 연 2.0% 고정금리

다. 구조개선전용자금

1) 사업개요

구조개선전용자금은 부실징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폐업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조기 정상화 및 재도약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2015년 신설되었으며, 운전자금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2) 사업추진현황

2020년 총 220개사에 33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위기기업의 조기 정상화에 기여하였다.

2020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억 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330	240	530	220	330

신청요건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진로제시컨설팅 연계지원 기업 비중이 46%로 가장 높았으며, 회생절차 진행 기업이 18.6%, 은행권의 추천을 통해 지원하는 기업 14.4%,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9.1%, 캠프 추천 물납법인인 5.9%,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기업 5.3%, 워크아웃추진기업 0.6% 순으로 높았다.

2020년 신청요건별 지원실적

(단위 : 억 원)

지원대상	신청		대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율(%)
은행권 추천 기업	28	87	23	48	14.4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기업	12	25	12	18	5.3
워크아웃기업	3	5	1	2	0.6
회생진행기업	54	152	43	62	18.6
진로제시컨설팅	126	184	126	152	46
캠프 추천 물납법인	9	47	7	20	5.9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8	31	8	30	9.1
계	240	530	220	330	100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비중이 83.2%, 정보·유통·기타 업종이 16.8%로 제조업 지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세부 업종별로는 기계가 17.7%로 가장 높고 금속 16.4%, 잡화 10.5% 순으로 집계되었다. 구조개선전용자금 총 330억 원은 100% 신용대출인데, 이는 담보가 부족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수적인 경영애로업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대리대출 방식의 지원은 제한되어 있다.

2020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 사, %)

구분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섬유	화학	잡화	식료	정보	유통	기타	합계
업체 수	39	36	16	19	14	19	23	17	9	17	11	220
비중	17.7	16.4	7.3	8.6	6.4	8.6	10.5	7.7	4.1	7.7	5.0	100

3) 제도개선사항

부실징후기업의 구조개선 등 경영정상화 지원 확대를 위해 타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구조개선전용자금의 신청 자격 및 사업추진 방식 다각화를 추진하였다. 기업은행과 MOU를 체결하여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시범으로 실시하였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라. 재창업지원자금

1) 사업개요

재창업지원자금은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여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기업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금이다. 2020년도에는 758개 업체에 1,200억 원을 집행하였다.

2) 사업추진현황

2020년도 재창업자금은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수요 발굴 및 제도개선 노력으로 집행실적을 100% 달성하여 실패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제공 하였다.

2020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 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120,000	908	201,397	758	120,000

담보별 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1,200억 원 중 직접대출 지원액이 91.1%(1,094억 원)이며, 이 중 신용 대출은 85.9%(94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기술·사업성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재창업기업이 원활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0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합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10,644	94,087	3,151	22,762	120,000	120,000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신용등급 3~4등급, 신용등급 5~6등급자의 자금애로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법원의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자, 신용불량자' 순으로 지원 비중이 높았다. 중진공은 민간 금융권 이용이 제한된 저신용자는 물론 파산면책, 개인회생자의 재기 지원을 지속 추진 중이다.

2020년 신청자격별 지원실적

(단위 : 개사, 백만 원, %)

신청자격	업체 수	대출금액(B)	비율(B/A)
신용등급 3~4등급	258	46,955	39.1%
자금애로(5,6등급)	246	36,414	30.3%
저신용자(7등급이하)	105	11,672	9.7%
파산·회생	81	14,802	12.3%
신용불량	31	3,350	2.8%
기타	37	6,807	5.7%
합계	758	120,000	100.0%

업력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1년 미만(예비창업자 포함) 16.1%, 3년 미만 42.7% 등 재창업 초기기업 위주로 지원함으로써, 창업초기 자금조달 애로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0년 업력별 지원실적

(단위 : %)

구분	1년 미만	3년 미만	3년 이상	합계
업체 수	122	324	312	758
비중	16.1	42.7	41.2	100.0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69.3%, 정보·유통·기타 업종이 30.7%로 제조업 지원 비중이 더 높은 편이며, 세부업종별로는 기계가 18.2% 가장 높고, 유통이 13.2%, 금속 12.1%, 정보 8.8% 순으로 높았다.

2020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사, %)

구분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섬유	화학	잡화	식료	정보	유통	기타	합계
업체 수	138	92	54	41	36	62	51	51	67	100	66	758
비중	18.2	12.1	7.1	5.4	4.7	8.2	6.7	6.7	8.8	13.2	8.7	100.0

3) 제도개선사항

재창업자금은 민간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 신용자 또는 공공정보 등록자를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재창업 자금 지원자의 공공정보 블라인드 및 연체기록 삭제를 통해 개인 신용등급 개선 및 민간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기술혁신형 재창업자금을 신설하여 기술혁신형 및 소재·부품과 같은 신산업을 영위하는 재창업 기업을 중점 지원하여 재도전 성공 기업을 육성하는 등 정책성과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재도전종합지원센터

1) 사업개요

경제침체 지속, 저성장 경제환경 하에서 위기 및 실패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바, 경영애로 극복과 원활한 재도전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 창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14년 서울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20년 12월 말 현재 전국 18개소가 운영 중이다. 중진공은 동 센터를 통해 사전 전문상담, 자금지원, 교육, 사후멘토링, 연계지원 등 재도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역동적 창업 분위기 조성을 주도하고 있다.

2) 사업추진현황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자금 및 컨설팅 상담, 실패경영인의 채무조정방안을 모색하여 재기지원의 발판을 마련하여 주는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 상담, 위기기업의 회생절차를 안내해주는 법인회생상담, 신속한 폐업 및 재도전을 위한 사업정리 상담 등 전문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총 4,138건 상담이 실시되었으며, 이 중 자금관련 상담은 45.4%, 경영애로, 회생·파산 등 자금 외 상담은 54.6%가 진행되었다.

2020년 재기지원 상담실적

일반상담		전문상담		상담방식			
항목	건수	항목	건수	방문	전화	출장	합계
경영애로전반	1,111	신용회복	134	1,089	1,628	141	2,858
재창업자금	1,766	법률상담	39				
재창업교육	37	개인회생,파산	70				
구조개선전용자금	515	M&A	3				
재기컨설팅	294	-	-				
세무상담	48	-	-				
기타(타사업연계등)	121	-	-				
소계	3,892	소계	246				

이와 더불어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 후 정례적(분기별) 사후멘토링을 통해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 마케팅, 연수, R&D 등을 연계지원하여 지원기업의 생존율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2020년 사후멘토링은 총 888건 실시되었으며, 경영전략, 대출금 점검, 경영애로 파악, 연계지원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3) 제도개선사항

재도전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의 확대 및 고객접근성 향상을 위해 광역 거점 지역에 총 18개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확대 설치·운영하고 있다. 각 센터에서는 재창업자금 상담, 집행 및 사후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용도 개선, 판로확보를 위한 연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창업기업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20년도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MOU를 체결하여 수출 재창업 기업의 무역보험 가입 지원을 추진, 재창업 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화 및 수출마케팅 지원

1. 사업개요

글로벌화 및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제74조에 추진근거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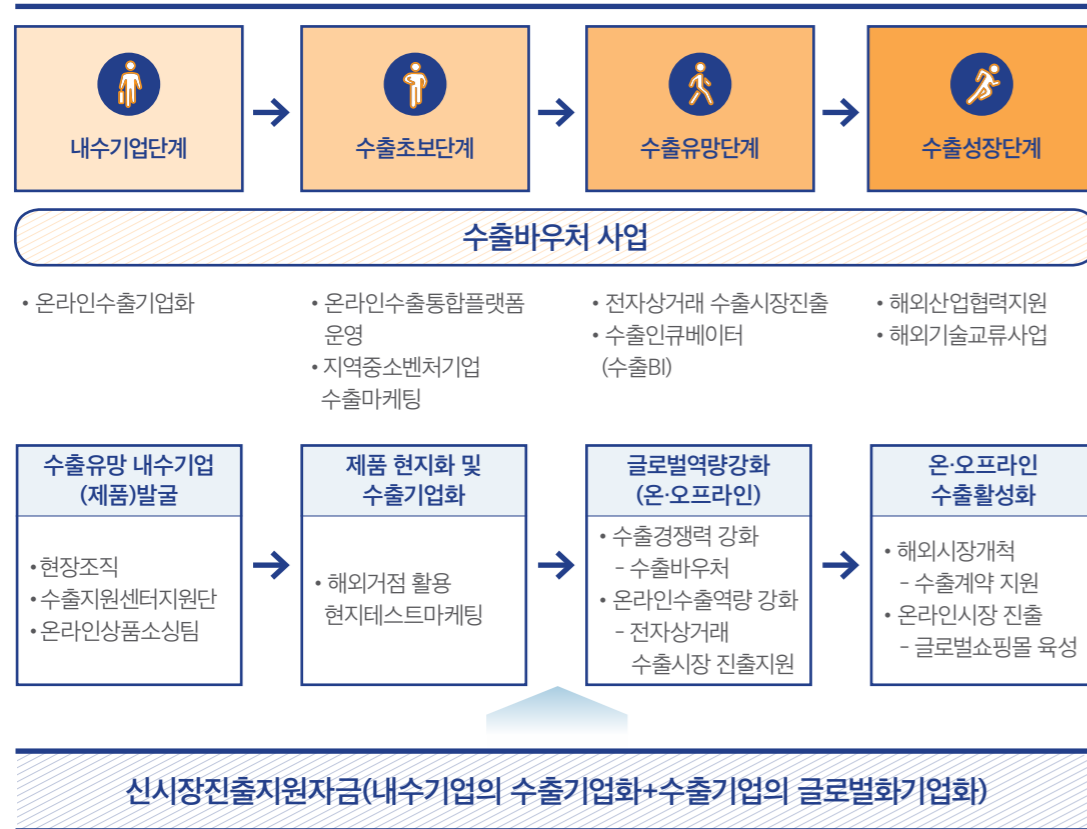
1979년 해외기술도입 및 중소벤처기업 해외투자지원 등 해외산업협력지원을 시작으로 1996년 공공부문 최초 온라인 B2B사이트인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운영, 1998년 수출인큐베이터(BI)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8년 해외마케팅 지원 창구 단일화 조치 및 2013년 중소·중견기업 총력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현재의 수출마케팅 및 글로벌화 지원사업이 완성되었다.

글로벌화 및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은 32개 지역본·지부의 국내 지원 인프라와 정책자금 등 다양한 연계지원 수단을 통해 '유망내수기업 및 제품발굴 → 육성 →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타 기관과 차별화된 특징이다. 또한 지자체, 수출유관기관과 협업 및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원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수출마케팅사업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수출성공 및 향상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금리환급, 수출전용자금 지원규모 확대 추진을 통한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출성장단계별(내수기업 → 수출초보 → 수출유망 → 수출성장)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현지활동 제한으로 애로가 발생하였으나 범부처,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한 공동물류 핫라인 구축 및 전세기, 선박 등 긴급물류지원과 더불어 중진공 해외현지거점을 비대면 사업 추진체계 개편 및 온오프라인(O2O)연계 등 기존사업의 비대면화 개편 추진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주요사업 및 추진체계



2.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중진공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제품) 발굴 및 테스트마케팅 강화, 수출성장단계별 맞춤형 수출지원,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코로나19로 수출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의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2020년 총 39.5억 불의 수출성과 (사업 지원 후 수출액)를 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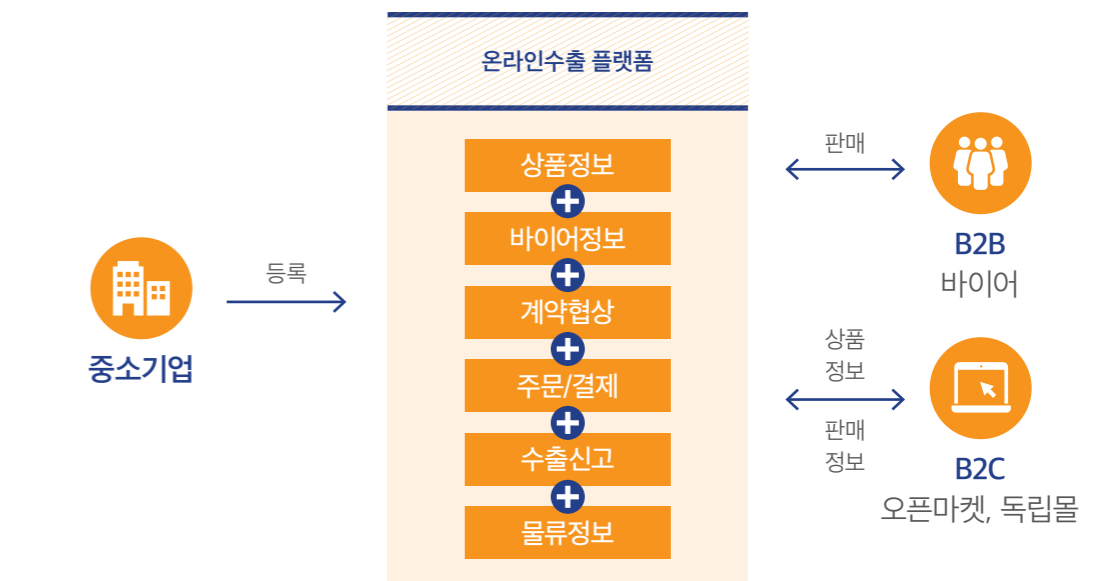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해상운송 물류대란 해소를 위하여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지원사업을 통해 구축된 전문 물류사 네트워크 및 지원 노하우를 기반으로 긴급물류상황에 적시대응하여 상반기에 특별전세기 운항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화물 30톤을 일본, 독일에 2회 물류지원을 실시하였다. 하반기에는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해상운송 관련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관계부처 및 국적선사인 HMM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화주전용으로 북미항 선복을 통해 수출중소벤처기업 436개사 3,230TEU의 물류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방역대응 과정에서 한국 진단검사의 우수성으로 진단키트 수요 및 수출이 급증했을 때 갑작스러운 수요증가로 발생한 수출애로를 해결하고자 중진공 현장조직을 활용한 전담반(12개 지역본부 20명 전담인력)을 구성하였다. 전담반은 진단키트 제조기업 54개사를 1:1면담하여 맞춤형 지원사업 92건을 연계지원하였다. 그 결과 진단키트 제조기업 수출액이 19년도 7.6백만 불에서 20년 29.4백만 불로 급증(전년 대비 3,768% 증가)하였고, 이는 국가전체 진단키트 수출중소벤처기업의 20년도 수출증가율 2,989% 대비해서도 779%p 높은 성과를 창출하였다.

수출바우처사업의 경우 수출규모별로 맞춤형 지원하는 성장바우처와 더불어 혁신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혁신바우처를 신설하여 혁신기업 153개사를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온라인 매칭상담회를 개최하여 매칭상담 833건을 지원하고, 53개사의 해외 현지판매를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전시회 취소 매출비용에 대한 정산근거를 마련하여 20개사를 지원하였다. 그 결과, 수출바우처 지원기업의 수출은 전년 대비 13.9% 증가하였으며 국가전체 중소벤처기업 수출증가율(-0.2%) 대비 14.1%p 높은 성과를 창출하였다.

온라인수출지원사업은 글로벌시장 트렌드에 맞추어 수출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온라인수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쿠팡, 쇼피 등 글로벌 플랫폼 내 한국관을 개설하여 한류마케팅을 통한 35,028개의 수출유망상품을 발굴해 464백만 불의 온라인수출성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국내외 플랫폼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이 한 번의 계정 등록만으로 글로벌 온라인쇼핑몰에 즉시 등록·판매 가능한 온라인 P2P 지원사업(추경)을 실시하여 아마존, 이베이 등 글로벌 플랫폼에 2,665개의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 상품을 등록, 43억 원의 온라인수출성과를 달성하였다.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운영체계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이동 제약을 극복하고 해외진출 지원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대면 사업을 O2O 연계수출지원 등의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코리아스타트업센터를 통한 해외진출 스타트업의 민간투자 유치 지원 등을 통해 799백만불의 수출성과를 창출하였다.

3. 세부사업 추진실적

수출바우처사업(내수, 초보, 유망, 성장)

수출바우처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수출과 혁신성장역량에 따라 제반 마케팅활동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저변 확대와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아시아 하이웨이, 글로벌강소기업, 단체전시회 바우처 등 5개 사업을 수출바우처 1개 사업으로 통합하여 수출성장단계(내수, 초보, 유망, 성장)에 따라 지원하는 성장바우처를 구축하였고, 2020년에 스타트업, 브랜드K기업,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글로벌강소기업으로 구성된 혁신바우처를 신설하여 혁신주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현지 시장조사, 수출교육, 홍보/마케팅, 전시회, 해외규격인증 등 수출 소과정에 필요한 마케팅 경비를 최대 100백만원까지 바우처로 차등지급하고, 참여기업은 수출바우처 서비스 메뉴판 내 지원 프로그램을 바우처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수출바우처 지원유형별 서비스 메뉴판

분류	주요 지원내용
조사/일반 컨설팅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조사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통번역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역량강화 교육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권/시험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지재권 분쟁지원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분류	주요 지원내용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개발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홍보 동영상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2020년에는 비대면 서비스로 국가 간 이동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코로나19 전용서비스를 신설하였으며, 협약기간 연장을 통해 참여기업의 코로나19로 인한 바우처 활용 애로를 해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지원기업 특별모집과 의료/바이오기업 지원 우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수출환경 변화 대응에 주력하였다. 또한, 온·오프라인 수출바우처 매칭페어를 기획하여 참여기업이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대면 판매전 개최를 통해 지원기업 상품 판촉에 앞장서는 등 정책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2020년 수출잠재력 및 성장성이 높은 3,268개사에 1,167억 원(21.3월 기준)을 지원하여 2,286백만 불의 수출과 68,306명의 고용실적을 달성하였으며, 내수기업 940개사 중 477개사(50.7%)가 첫 수출에 성공하는 등 높은 성과를 창출하였다.

2020년 참여기업 지원성과

지원기업 수 (개사)	지원금액 (억 원)	수출성과(백만 불, %)		고용성과(명, %)		수출기업화(개사, %)	
		실적	증가율	실적	증가율	실적	증가율
3,268	1,167	2,286	37.6	68,306	8.6	477	50.7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지역중소기업 수출마케팅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등을 추진하여 해외판로개척과 지역중소벤처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중진공은 해외마케팅창구 단일화 조치에 따라 지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등 해외마케팅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전시회 등 현지마케팅이 전면 중단되자, 온라인 기반으로 해외전시회 2회, 무역사절단 16회, 수출상담회 26회, 지역특화해외마케팅 13회 등 비대면 사업을 57회 추진하여 652개사, 35백만 불 수출계약체결을 지원했다.

2020년 지역중소벤처기업수출마케팅 상담 및 수출계약 성과

유형	실적		성과		
	회수(회)	참가기업(개사)	상담금액(백만 불)	상담 회수	계약체결액(백만 불)
해외전시회	2	14	12	271	3
무역사절단	16	94	7	213	1
수출상담회	26	324	69	4,487	18
지역특화해외마케팅	13	220	22	1,134	13
합계	57	652	110	6,105	35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은 지원기업 460개사 중 82%인 378개사가 비수도권 소재기업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또한 전체 지원기업 중 내수기업은 24%이며, 이 중 56%가 첫 수출에 성공하여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지원기업 중 수출기업의 수출증가율은 국가전체 중소기업 평균(-0.2%)을 상회한 27%의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2020년 지역중소벤처기업수출마케팅 수출성과

참여업체	구분**	기업 수	비율
460*개사	내수기업		111 / 24%
		지원연도 수출실적 발생기업	62 / 56%
	수출기업		349 / 76%
		중소벤처기업 평균 수출증가율 초과기업	220 / 62%

* 비수도권 소재기업 (378개사)의 수출액 : ('19)317백만 불 → ('20)430백만 불 (수출증가율: 36%)

*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참여업체 652개사 중 중복을 제외한 숫자임
 ** 전년도('19) 수출실적 0불인 기업을 내수기업으로, 1불이상인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분류함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은 청년글로벌마케터 양성 및 수출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를 목표로 하는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주요 지원내용은 ①온·오프라인 무역실무 교육, ②사내 멘토링활동비 및 해외마케팅활동비 지원, ③바이어 매칭 및 화상상담회 지원이다.

주요 지원 내용

구분	세부 내용
무역실무교육	• 온라인 무역 기본교육 • 온라인 해외마케팅 심화과정 • 집합교육
사내 멘토링	• 사내 멘토 지정 • 멘토.멘티 활동비 20만원 x6개월 지원
해외마케팅 활동	• 항공료, 체재비 실비 70% 지원 • 최대 340만원 한도
화상상담회	• 신규 바이어 발굴 및 매칭 • 화상상담회 개최

2020년 총 109개사 121명을 지원하였으며, 참여기업 평균 수출증가율을 129.1%, 첫 수출성공률은 64%를 달성하였다.

2019년 참여기업 수출 성과

'20년 지원		평균 수출증가율	첫수출 성공률
기업 수	인원 수		
109	121	129.1%	64%

온라인수출지원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은 해외홍보 및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 디지털 무역환경에 부응하는 다양한 온라인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6년 공공기관 최초로 개시하였다.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을 기반으로 온라인수출인프라 구축, 기업 및 상품특성을 고려한 온라인마케팅 지원, 무역전문가를 활용한 거래알선 및 사후관리 등 수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에 꼭 필요한 사항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1)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 및 온라인마케팅 지원

고비즈코리아(www.gobizkorea.com) 내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리뷰동영상 등을 활용해 상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기업전용 상품관을 제작하여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구글, 야후 등 바이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해외 유명포털사이트에 검색엔진최적화(SEO) 및 키워드 광고를 지원하여, 유효 구매오피 발굴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 및 상품 특성을 고려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타깃시장·타깃품목 도출 및 세분화를 통해 26,217개의 수출유망상품을 신규로 발굴하였고, 총 114백만 불의 사업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2) 온라인 거래알선 및 사후관리 지원

고비즈코리아 등을 통해 유입하는 해외바이어의 구매오피 대응 애로 해결을 위해 「인콰이어리 검증 ⇨ 對 바이어 협상 ⇨ 수출계약 체결 ⇨ 사후관리」까지 수출 쏘단계를 지원하는 구매오피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총 32,271건의 사후관리 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무역전문가를 활용하여 해외바이어의 유효한 구매오피를 적극 발굴, 4,671건의 수출유망 국내기업과 매칭하고, 온라인 수출 거래성사를 지원하였다.

3) 다양한 홍보채널 연계를 통한 바이어 유입 확대

고비즈코리아 내 축적된 데이터(고객정보, 상품정보, 바이어정보)를 활용하여, 바이어 대상 효과적인 타깃마케팅 실시를 위해 수출유관기관 최초로 바이어 개개인의 행동분석을 통해 최적의 국내기업을 추천하는 AI매칭시스템을 고비즈코리아 시스템 내에 도입하였다. 또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 고비즈코리아 SNS 채널을 활성화하여, 수출유망기업 홍보, 자체이벤트, 정책 홍보를 통해 팔로워 수 22만 명, 페이지뷰 43천만 회를 기록하였으며, 고비즈코리아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위해 SNS 활용도가 높은 대학생 29명을 선발하여 고비즈 서포터즈를 운영하였다.

이외에도 고비즈Week 프로모션을 실시하여 10개 카테고리 129개 제품에 대해 프로모션 기간 중 인콰이어리 발송 시 최대 90% 할인된 가격 혜택을 제공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고비즈코리아 App을 개발하는 등 바이어 유입 확대 노력을 통해 수출 증대에 기여하였다.

4) 한국형 글로벌플랫폼 구축

한국형 글로벌플랫폼 구축을 위해 수출유관기관 3대 플랫폼(코트라-바이코리아, 무역협회-트레이드코리아)과 협력을 강화하였다. 고비즈코리아를 비롯한 3대 플랫폼이 2025년 수출 100억 불을 목표로 하여 해외바이어가 하나의 플랫폼만 방문하더라도 3대 플랫폼의 모든 상품을 비교·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연계하고, 매칭이 안 된 구매오피정보도 상호 공유하여 거래알선 기능을 강화하였다.

최근 3개년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실적

(단위 : 건, 개사, 백만 불)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입점상품수(누적)	227,398	268,052	294,269
입점기업수(누적)	55,519	61,218	68,021
구매오피	17,099	20,374	32,271
수출성과	46	53	114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성공사례

성공사례 (업체명)	주요 지원내용	수출성과	세부내용
캐럿	온라인구매오피사후관리	100만 달러 홍콩 수출 계약 성사	•휴대용 의료관리기기 제조업체로 고비즈코리아 무역전문가를 통해 바이어 매칭 및 통·번역 지원 등 사후관리 지원한 결과, 100만 달러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초도 물량 납품 완료
지톤그룹	고비즈수출지원, 온라인 구매오피사후관리	213,100달러 인도네시아 수출 완료	•고소작업차량 제조 및 유통사로 고비즈수출지원 사업참여를 통해 고비즈코리아 입점 후 인도네시아 바이어에게 구매오피 수신 및 무역전문가 지원을 통해 213,100달러 수출 완료
엔티에스 인터내셔널	해외바이어 거래알선(BMS)	100만 달러 베트남 수출 완료	•음료 및 스낵류 제조업체로, 해외바이어 거래알선 지원을 통해 베트남 바이어를 소개받고, 100만 달러 이상 수출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현지 유통사업의 확장으로 21년 수출 증대 예상
(주)지티씨	해외바이어 거래알선(BMS)	100만 달러 일본 수출 완료	•아연 분말 및 아연으로 만들어진 고체/가루 화학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아연 분말 99.98%의 고순도 수입업체를 찾는 일본 바이어에게 공급거래를 알선해 수출계약을 맺고 100만 달러 선적 완료

전자상거래활용 수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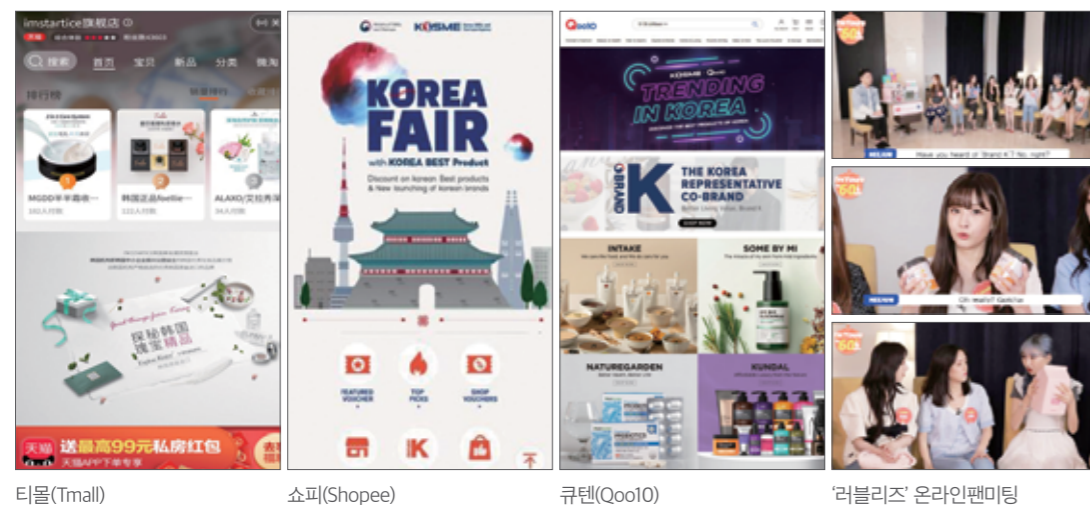
전자상거래활용 수출사업은 한류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수출지원 및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한 신시장 진출 등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온라인수출 기반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전자상거래시장 진출을 촉진하였고, 2020년에는 5,368개사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1,639백만 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가. 단계별 온라인수출기업 지원 [(1단계) 판매대행 → (2단계) 직접판매 → (3단계) 자사몰 육성]

1)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사업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 사업은 아마존, 쿠팡 등 글로벌 쇼핑몰 판매경험이 풍부한 기업을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제품 온라인수출(판매)에 필요한 전 과정을 대행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력과 시간 부족으로 글로벌 쇼핑몰 진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이 쇼핑몰 입점부터 판매, 배송까지 대행한다.

2020년에는 글로벌 한류 확산에 따라 진출시장을 넓히기 위해 2019년에 시작한 중국 알리바바 그룹 티몰(Tmall)의 한국관에 더해 신남방의 대표 온라인쇼핑몰인 쇼피(Shopee), 쿠팡(Qoo10)에도 한국관을 구축하여 동남아 7개국에 국내 중소기업 상품 수출을 지원하였다. 또한, 브랜드K 등의 우수 중기상품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K-POP 걸그룹 '러블리즈' 온라인팬미팅(60분)을 기획하였고, 쇼피(Shopee) 및 CJ e&m(tvN asia)과 협업을 통해 아시아 9개국에 방영하였다.



티몰(Tmall) 쇼피(Shopee) 쿠팡(Qoo10) '러블리즈' 온라인팬미팅



2) 온라인수출기업화사업

온라인수출기업화사업은 유망한 내수·수출초보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단계별 교육, 입점 및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내 온라인수출기업으로 양성하는 사업이다. 전문셀러를 활용한 온라인 판매대행 사업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중소기업의 온라인 직접수출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총 1,529개사를 지원하였으며, 이 중 259개의 내수기업이 첫수출에 성공하였다.

3) 자사몰 육성 사업

자사몰 육성사업은 중소기업의 자사 쇼핑몰(업종·테마별 전문몰)이 해외 경쟁력이 있는 쇼핑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온라인을 통한 자사 쇼핑몰 홍보·마케팅 비용뿐만 아니라 번역, 상품페이지 제작 등 쇼핑몰 운영 전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2020년에는 참여기업의 온라인수출 역량에 따라 초보, 유망, 성장, 강소 4단계로 나누어 기업규모별 맞춤 지원하고, 5대 핵심소비를 제조·유통하는 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한 결과, 지원기업 85개사가 211백만 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성공사례 에스엔패션그룹(주)

에스엔패션그룹 브랜드 '소녀나라'와 '아뜨랑스' 자사몰

여성의류를 수출하는 에스엔패션그룹(주)는 사업 참여 전 낮은 브랜드인지를 극복하고자 자사 제품의 강점을 살려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였으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한계에 봉착하였다. 하지만 자사몰 육성사업 참여 후, 자사몰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및 쇼핑몰 리뉴얼 등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었고, 전년 수출액 대비 166% 증가한 850만 불의 수출실적을 이뤘다.

나. 온라인수출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온라인전시회사업

온라인전시회사업은 IT기술을 접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오프라인의 '물리적·시간적·비용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전시회를 연중 상시개최하고, 원격·오프라인 수출상담과 연계한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수출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2020년에는 제품의 특성 및 마케팅에 따라 다양한 형태(3D, 스토리텔링 등)의 홍보 동영상 콘텐츠(246개)를 제작 지원하였으며, 165백만 불의 수출 성과를 거두었다.

2)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공동물류사업은 다품종·소량 물량을 취급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특성상 물류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위해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물량을 집적하여 물류비 절감 및 해외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에는 글로벌 플랫폼(4개사) 및 전자상거래 특화 민간물류사(7개사)와의 협업을 통한 윈윈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최저 물류단가 제공, 국내 및 해외 물류창고 지원, 국가·시즌별 물량집적 프로모션을 지원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례 없는 물류재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전세기 긴급편성, 급등한 항공운임에 대한 운임보전 지원, 국적선사를 통한 중소기업 선복 공간 확보 등으로 물류 안전망을 확충하였다.

2020년에는 총 2,287개사의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으며, EMS 비용을 기존 할인율 목표(45%)보다 3%p 높은 48%로 할인 제공하고, 물류거점 지원 및 물량집적 프로모션을 통해 613백만 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3) 이커머스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이커머스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전자상거래 이론 교육·실습 및 성과창출이 가능한 「이커머스 특성화대학」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0년 최초로 전국 7개 대학(경남과기대, 고려대, 목포대, 배재대, 숭실대, 전북대, 한국외대)과의 협업으로 시작되었으며, 1년간의 과정을 거쳐 이론과 판매실습 경험을 보유한 이커머스 전문인력(396명)을 배출했다. 각 대학팀별로 매칭된 중소기업의 제품을 글로벌 전자상거래 쇼핑몰(고비스코리아, 아마존, 이베이, 쇼피, 쿠팡, 라자다 등)에서 직접 판매하여 총 424백만 원의 수출성과를 거두었다. 2021년 2월에는 '제1회 U-커머스 Competition'을 개최하여 참여 학생들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성과우수팀 포상을 실시하는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비대면 화상상담회 중기-HMM 간 해상운송 민관협력 체계 구축 U-커머스 Competition (이커머스 특성화대학 지원)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은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운영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지원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별기업이 임차하기 어려운 12~20㎡ 규모의 독립된 사무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현지정책 지원, 바이어 및 시장정보 제공, 컨설팅·상담, 현지네트워크 지원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 제약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라인 수출상담회 및 기술교류상담회 등 비대면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현지 진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Pre-BI 및 현지화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공유오피스 이전 등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말 기준, 수출인큐베이터는 미국(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중국(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시안, 충칭), 일본(도쿄),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러시아(모스크바), UAE(두바이), 멕시코(멕시코시티), 카자흐스탄(알마티), 칠레(산티아고), 태국(방콕), 미얀마(양곤) 등 12개국 20개소 261개실이 운영되고 있다.



수출인큐베이터 12개국 20개소 261개실 설치·운영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지역 및 입주규모

국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프랑크푸르트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시안	충칭	도쿄
규모	18	22	10	19	15	17	14	22	7	8	15
베트남		러시아	UAE	멕시코	카자흐스탄	칠레	태국	미얀마		계	
호치민	하노이	모스크바	두바이	멕시코시티	알마티	산티아고	방콕	양곤			
	15	15	8	11	9	7	9	10	10	261	

2020년 입주업체의 총 수출실적은 약 5억 9,558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입주업체 성과분석 결과, 입주전년 대비 입주년도 평균 수출액이 7.29% 증가했다. 이는 같은 해 전체 중소기업 평균 수출증가율인 -0.2% 대비 7%p 이상 높은 수치로 입주기업의 수출성과가 제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코리아스타트업센터(K-스타트업 센터) 사업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사업은 전세계 혁신 거점에 설치된 창업기업 해외진출 플랫폼으로 자금, 네트워크, 공간 등을 종합지원하여 현지 스케일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국가별 창업생태계, 정책방향 및 해당국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스타트업 센터를 조성한다.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말 기준 K-스타트업 센터는 미국(시애틀), 인도(뉴델리), 싱가포르(싱가포르), 스웨덴(스톡홀름)에 총 4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K-스타트업 센터 설치·운영현황

구분	미국(시애틀)	인도(뉴델리)	싱가포르	스웨덴(스톡홀름)
개소시기	2019년	2019년	2020년	2020년
특화업종	• 자율주행 • 리테일	• 에듀테크 • 에그테크	• 핀테크 • 스마트시티	• AI • 그린산업

2020년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비대면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국가 확대를 위해 K-스타트업센터 신규 거점 2개소(스웨덴, 싱가포르)를 설치하였다. 2020년 말까지 K-스타트업 센터는 지역별 시장특징 및 정책 어젠다를 반영한 특화업종을 중심으로 현지 창업생태계 진입·안착을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스케일업을 위하여 현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지 혁신주체와의 네트워킹 및 자금 등 사업연계를 적극 지원하여 현지 창업생태계의 진입, 안착, 성장을 위한 종합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글로벌협력기반구축사업

가. 글로벌협력기반 구축

1) 사업개요

중진공은 국내·외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에 유용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외 진출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해외 47개국 104개 협력 네트워크(21.3월말 기준)와 중국 칭다오 중소기업지원센터,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2) 사업 추진 현황

2020년 한 해 동안 국제기구 및 해외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MOU체결(4건, 5개 기관), 산업협력관 교류(10개국 24명), 매칭상담회 및 세미나 개최(16회), 국제회의 참가(3회), 정책담당자 연수(2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 해외협력 유망기술 보유기업의 영문 디렉토리북을 발간하여 해외진출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동향 브리프 등 자료발간을 통한 글로벌 트렌드 및 정보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추진하였다.

2020년 해외협력기반 조성

구분	실적	비고
MOU 체결	4건	국제기구, 러시아, 페루, 몽골 등 4개국 5개 기관
산업협력관 교류	24명	스페인, 태국, 이집트, 케냐, 홍콩 등 10개국 24명
매칭상담회 및 세미나	16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경영전략 세미나 등 16회
국제회의 참가	3회	인도경제포럼, ACCMSME 정책대화 등 3회
해외 정책담당자 연수	2회	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스타트업 정책담당자 연수 등 2회



김학도 이사장 인도경제포럼 참가



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스타트업 정책담당자 연수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애로 해소를 위해 세미나(6회)와 매칭상담회(9회)를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고, 218개사가 456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방역·비대면·AI 분야 유망기술 보유기업 80개사를 소개하는 영문 디렉토리북을 발간해 중진공 해외거점 및 해외 협력기관에 2천부 배포하는 등 유망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다.

APEC 중소기업실무그룹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지원정책 사례발표를 통해 한국의 중소기업 팬데믹 극복지원 정책을 공유하여 역내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였다.

또한, 국제기구와 협업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였다. UN 해비타트와 협력하여 혁신창업 컨퍼런스 및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케냐 진출을 지원하였고, 국제무역센터(ITC)와 APEC 혁신컨설팅을 공동 추진하여 페루 중소기업 7개사 대상 브랜드 글로벌화, 마케팅 등 화상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신규 MOU를 체결하여 중소기업의 중앙아시아, 동유럽 지역 진출을 위한 신규 협력기반을 구축하였다.

중국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에서는 지역별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였다.



한-케냐 혁신창업 컨퍼런스 및 비즈니스 상담회



포스트 코로나 해외협력 유망기술 보유기업 영문 디렉토리북 발간

구분	주요 추진사업
중국 중소기업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태 동아 국제 박람회 참가를 통해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제품홍보 (236개사 4,862개 제품, 판매액 17,843불) 디지털산업 온라인 화상상담회 개최(상담 200천 불, 수출예상액 700천 불)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를 통해 투자관련 정책방향, 근로기준법, 세법 등 정보제공(인니 진출기업 관계자 55명 참석) 한-인니 기술교류 상담회 개최(상담 57건 8,590천 불, 기술협력 MOU 9건 체결)
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음료 산업동향 및 할랄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50개사 참가) 말레이시아 온라인셀러 상담회 개최 (20개사 참여, 상담 66건 3,706천 불, 계약 1,573천 불)

나.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

1) 사업개요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는 제12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2005) 공동선언을 통해 설립제안이 채택되었으며, 2006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내 최초 설립되었다가 2009년 중진공으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는 APEC 역내 회원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제고시키고, 21개 회원국과 구축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및 산업협력기회 창출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

2) 사업 추진 현황

2020년은 APEC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을 목표로 역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국내 중소기업의 APEC 시장 진출 지원에 힘썼다.

특히, APEC 프로젝트 기금을 6년 연속 획득하였으며, '19년에 확보한 기금(100천 불)을 활용하여 APEC 전략과제 중 하나인 '역내중소벤처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APEC 중소기업 정보보안 포럼」과 「APEC 스마트팩토리 포럼」을 개최하였다. 「APEC 중소기업 정보보안 포럼」에는 사전녹화 방식으로 11개국 14명의 APEC 중소기업인, 유관기관 관계자가 사례발표를 하였고 200명 이상의 참가자가 현장 참석 및 온라인 시청 등을 통해 APEC 역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 및 안정적 기술개발 여건 조성방안 등을 공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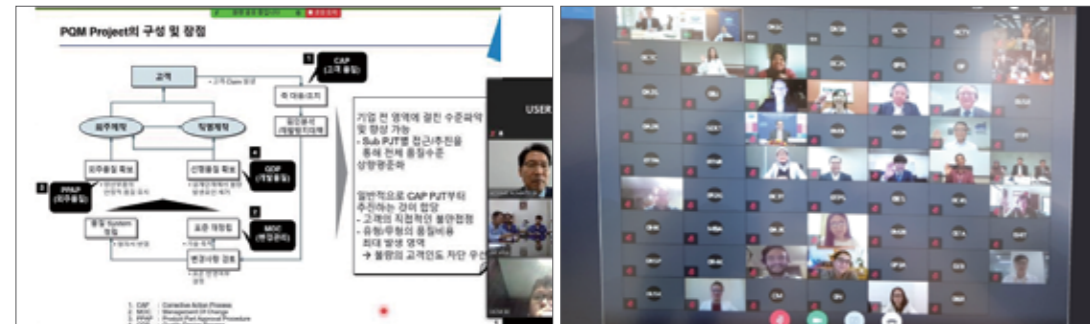
APEC 중소기업 정보보안 포럼

또한, 2020년에 확보한 APEC 기금(100천 불)을 활용하여, APEC 중소기업인 워크숍을 통해 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공유·확산하여 상시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APEC 중소기업업을 대상으로 경영·기술진단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및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하여 역내 회원국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정보 공유 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2020년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 운영 실적

분야	세부사업명	실적
동반성장	APEC 중소기업 정보보안 포럼	• APEC 회원국 및 국내 연사 17명 참가 • 국내기업인 및 유관기관 202명 참가
	APEC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포럼	• APEC 회원국 및 국내 연사 10명 참가 • 국내기업인 및 유관기관 313명 참가
	APEC 혁신센터 웹사이트 운영	• APEC 혁신활동 및 정책정보 제공
혁신역량 강화	APEC 혁신 컨설팅	• 2개국 10개사 • 컨설팅 결과 활용률 100%
정책전파	APEC 중소기업 실무그룹회의 참석	• 실무그룹회의(말레이시아, 온라인)



APEC 혁신 컨설팅(베트남)

제50차 APEC 중소기업 실무그룹회의(말레이시아)

해외지사화사업

해외지사화사업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소관부처 : 중기부)이 2017년도부터 해외지사화사업(소관부처 : 산업부)과 통합하면서, 중진공, kotra, OKTA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컨설팅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민간 컨설팅 기업을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해외지사화 사업의 수행사로 활용하고 있다. 2020년에는 총 37개국 127개사의 해외민간네트워크를 지정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협력파트너 발굴, 법률자문, 기술수출, 현지법인 설립, 국제조달시장 진출 등 다양한 해외진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도 해외민간네트워크 현황

(단위 : 개 사)

중국	동남아 대양주	북미	유럽	서남 아시아	러시아 CIS	중남미	일본	중동	아프리카	계
29	29	21	13	8	10	3	8	2	4	127

동 사업은 기업의 해외진출 단계를 '진입', '발전', '확장'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필요한 서비스를 특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진입' 단계는 기초 시장조사, 수출가능성 점검, 로컬마케팅 등 기초적인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발전' 단계는 전시·상담회 참가지원, 출장지원, 물류통관 자문 등 수출 및 성장지원을, '확장' 단계는 기술수출, 해외 투자유치, 조달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등 기업의 타깃국가 현지화를 지원하고 있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발전단계 및 확장단계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중진공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한 실적은 총 370건이며, 수출실적 379백만 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20년 사업은 2021년 9월에 종료되며, 총 370건의 수출유망기업을 지원하여 전년 대비 약 5% 증가한 400백만 불 수출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실적('15~'19년)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원기업 수(건)	282	235	475	370	370	370
수출실적(백만 불)	279	272	902	353	379	진행중
투자유치(백만 불)	14.01	13.1	3.6	-	-	
현지법인(지사)설립(건)	17	12	11	7	2	
기술협력 계약체결(건)	10	6	4	5	-	

* 사업기간
('18년도) '18. 1월~'19. 8월 /
('19년도) '19. 1월~'20. 8월 /
('20년도) '20. 1월~'21. 8월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실적('01~'19년)



해외기술교류사업

해외기술교류사업은 한국과 신흥국 정부간(G2G) 협력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을 해외 현지기업에 수출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기술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국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수요-공급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매칭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기술교류단의 현지파견 및 사후지원을 통해 기술수출을 촉진하고 있다.

주요 기술수출 유형



2020년 기준 이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카자흐스탄 6개국에 현지 정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기술교류센터를 운영 중이며, 현지여건, 기술수요, 정부기관의 협조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아울러 협력 국가의 수요기술(바이어) 발굴 강화를 위해 인도 현지의 기술전문인력 양성 교육 지원(1차-블록체인(60명), 2차-빅데이터(83명))을 병행하고 있다.

기술교류센터 개소 현황



인도 현지 기술전문인력 양성교육(실시간 화상연수)

또한, 수출을 위한 신규 국내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업종별 전문 코디네이터를 배정하여 기술진단을 지원하여 해외기업에 제공 가능한 263건(누계 888건)의 신규 기술 DB를 구축하였다. 해외기술교류 온라인 플랫폼(G-TEP) 개편을 통해 상담회 신청창구를 일원화하고, 해외 수요기업 발굴 및 매칭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기능(화상상담, 메신저 등)을 추가하였다.

기술교류 플랫폼(G-TEP) 고도화

기 존 (19년)	개 선 (20년)	고 도 화(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기관별 E-mail 접수 단발성교류(거래단절요인) 공급-수요기술 검색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G-TEP을 통한 접수창구 일원화 실시간 온라인 1:1 채팅, 이메일 알림 산업분류별 검색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재무-신용 정보 연동 온라인 선정평가 실시 바이어 매칭 일정관리 전산화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기술수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기술교류상담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확대 개최하였다.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32회의 온라인 기술교류상담회를 기획·운영하고, 현지 기업과 MOU 체결하여 국내 기술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국내 공급기업 389개사와 1,548개의 현지 수요기업을 매칭하여 135건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존 제품수출 중심에서 기술수출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였다.



한-미얀마 온라인 기술교류상담회(서울 및 미얀마 양곤)

인력양성

2020년 온라인 기술교류상담회 운영 실적

(단위 : 개 사, 건)

국가	회차	국내공급기업	해외수요기업	상담	MOU	현지 협력기관
카자흐스탄	1	10	36	36	0	중소기업개발공사(DAMU)
	2	8	32	32	7	
키르기스스탄	1	8	7	7	2	
인도	1	14	79	79	0	중소기업공사(NSIC)
미얀마	1	11	66	66	0	기획재정산업부(MOPFI)
	2	10	61	61	0	
말레이시아	1	10	42	42	0	투자개발청(MIDA)
	2	12	57	57	0	
	3	5	14	14	0	AnsarComp
태국	1	12	49	49	0	중소기업진흥청(OSMEP)
	2	12	76	76	5	
중국	1	10	50	50	4	섬서성 상무청
	2	8	26	26	0	국가기술이전동부센터
	3	9	29	29	0	KTR 심천사무소
	4	10	30	30	0	KTR 상해사무소
인도네시아	1	12	56	56	9	투자조정청(BKPM)
	2	15	71	71	16	중기부(KKUKM)
	3	15	65	65	9	
베트남	1	19	63	63	4	과학기술부(MoST)
	2	21	99	99	12	
	3	33	87	87	6	KTR 현지사무소
터키	1	14	59	59	9	중기청(Kosgeb)
	2	14	50	50	5	
캄보디아	1	9	55	55	2	산업수공업부(MoIH)
우즈베키스탄	1	9	63	63	10	혁신개발부(MoID)
	2	10	33	33	3	
독일	1	5	11	11	0	KTR 현지사무소
러시아	1	5	23	23	0	오픈이노베이션 포럼 연계
	2	26	48	48	10	Vinkings Group
	3	9	43	43	13	경제개발부
	4	11	53	53	9	경제개발부
우크라이나	1	13	15	15	0	프란체비치·파톤연구소
총 상담회 32회		389	1,548	1,548	135	

1. 사업개요

인력양성사업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내적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자긍심과 주인공 의식을 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주역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진공은 “인력유입”부터 “장기재직”에 이르는 「중소벤처기업 인력양성 선순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맞춤형 HRD를 구현하고 있다.

인력양성 선순환 지원체계



인력양성사업은 1982년 중소기업연수원(경기도 안산) 개원과 함께 연수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14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산학연계 인력양성 사업을 이관 받고, 성과보상공제기금이 출범하면서 확대되었다. 2018년에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주-근로자 성과공유 확산사업 및 청년일자리 대책에 따른 취업활성화를 위한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이 추가되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사업

구분	인력유입	일자리 발굴·매칭	인적역량 강화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 사업	산학협력 인력양성	중소벤처기업 인식개선 및 성과공유	기업인력 애로센터	연수	성과보상공제
주요 내용	맞춤형 인력 양성·공급	우수 중소기업 지정·홍보 및 성과공유 문화 확산	취업컨설팅, 취업매칭	단기 집합연수 이러닝연수	성과보상금 형태의 공제금 운영

특히 6개 연수원을 거점으로 한 광역별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국 32개 지역본·지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중소기업 현장 접점에서 맞춤형 인력 지원과 인력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사업)간 연계지원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수원 현황

구분	중소벤처기업 연수원	호남 연수원	대구경북 연수원	부산경남 연수원	글로벌리더십 연수원	총청 연수원
개원	1982	2001	2003	2004	2014	2021
위치	경기 안산시	광주광역시	경북 경산시	경남 창원시	강원 태백시	충남 천안시

2.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인력양성분야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기술사관육성 및 대학연계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215개 특성화고, 12개 기술사관 사업단, 13개 전문대학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69개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인식개선분야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280개사를 발굴하여 우수사례집 제작 및 전용채용관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의 존경받는 기업인 11인을 선정하여 TV방영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인식개선 노력을 이어나갔다.

기업인력애로센터는 32개 지역본·지부 등을 통해 8,626개사의 구인기업(구인수요 42,814명) 및 48,248명의 구직자를 발굴하여 1,868개사에 3,626명의 취업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채용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AI 면접서비스, 테마별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등을 운영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연수분야는 2020년 중소벤처기업연수원(안산) 34,163명, 그 외 지역연수원(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글로벌리더십) 10,825명 등 총 44,988명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2022년까지 6만 명의 스마트제조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정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스마트제조 분야 교육을 중점 진행하여 12,100명이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교육을 수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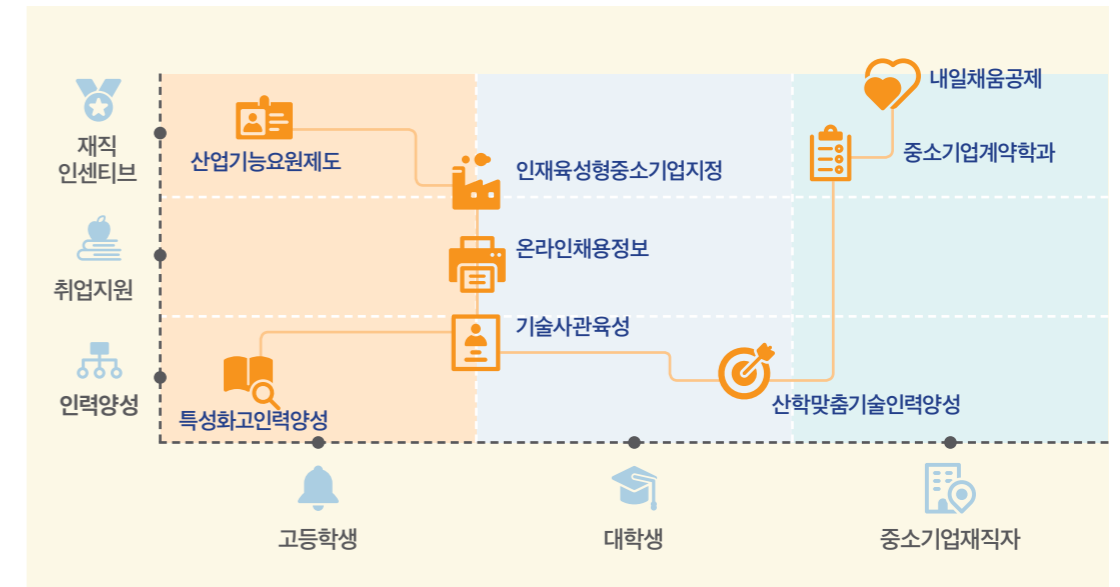
성과보상공제기금은 2020년 누적기준 성과보상공제(4개 사업)에 231,085개사 551,344명의 가입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공(대)기업 및 지자체들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납입금 지원 등 협업모델을 구축하여 대·중소벤처기업 동반 성장 및 지역균형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하였다. 또한,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대상으로 공제계약대출 확대,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 등의 복지서비스 및 e-러닝연수, 금융교육 등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제 가입자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내일채움공제 위탁판매 가입창구 다변화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기간 확대 등을 통해 공제가입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3. 세부사업 추진실적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은 산학연계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특성화고·대학을 통해 우수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중소벤처기업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선취업·후진학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일·학습 병행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적합한 우수인재의 유입 양성 및 장기재직을 견인하였다.

중소벤처기업 인력지원 체계도



인력양성사업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계약학과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2015년 4월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이관되었다.

사업이관 후 중진공의 인력지원 목표인 「중소기업 인력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중진공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였으며, 이에 따라 채용부터 장기재직 유도, 기업 역량강화까지 이어지는 중소벤처기업 인력지원 체계의 틀이 마련되었다.

이관 전·후 주요 개선 실적

구분	이관 전	이관 후
사업 활성화	• 주관부서중심의 업무수행	• 중진공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 적극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한 능동적 사업 추진 - 지역거점 활용한 사업 연계 및 확대
사업 내실화	• 4개 인력양성사업 개별수행 - 사업별 방식, 매뉴얼 등 제각각	• 사업효율성을 위한 통합 관리 - 인력양성사업 발전방안 연구 추진 - 체계적인 사업 DB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특히,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2020년 215개 특성화고를 지원하였으며, 핵심 프로그램인 취업(산학)맞춤반 과정을 통해 8,039명을 지원하여 이 중 5,234명(65.1%)을 취업 연계하였다. 이와 함께, 스마트공장 거점학교 18개교를 지정하여 스마트제조 인력양성 관련 교육운영을 지원하였다.

2020년도 사업별 주요 추진실적

구분	추진 실적
중소벤처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 전국 215개 특성화고에 8,039명이 참여하여 중소기업 맞춤형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프로젝트 수업, 진로지도 및 연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평균 1.4억 내외 지원
기술사관 육성사업	• 12개 사업단(1,553명)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2,670백만 원 지원 및 관리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 13개 대학(872명)에 중소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공급을 위해 2,480백만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 계약학과	• 48개 대학, 69개 계약학과와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에게 학과 운영비 및 등록금 지원(1,951명, 10,582백만 원 지원) 및 관리 • 인공지능(AI) 분야 3개 학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2개 학과 등 총 5개 학과 신설

* 연도별 지정
(14) 100 → (15) 150 →
(16) 229 → (17) 376 →
(18) 250 → (19) 224 →
(20) 280

중소벤처기업 인식개선 및 성과공유

가. 중소기업 인식개선

중소벤처기업 인식개선 사업은 우수 중소기업 지정 및 홍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을 유입하는 사업이다. 2020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280개사 지정, 존경받는 기업인 11인 선정 및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중소기업 인식개선 노력을 이어나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인력지원특별법 제2조 5항'에 의거 '기술능력, 연구개발 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1,609개사가 지정되었다.

중진공은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전용자금(일자리창출 촉진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가점, 연수비용 50%할인 등 지정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지정기업에 대한 우수사례집(25개사 수록)을 발간하여 특성화고, 유관기관 등 1,000여 개소에 3,000부를 배포하였다. 아울러,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전용채용관'을 개설, 159개 기업의 일자리 정보를 구직자들에게 제공하여 구직-구인 간 정보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기업과 근로자가 동반성장하는 기업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모범기업인을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47명 선정하여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KBS 1TV <사장님이美쳤어요(총 7편)> 방영을 통해 존경받는 기업인의 우수사례를 소개하였으며, 그 결과 평균 시청률 3.4%로 동시간대 지상파 방송 중 평균 시청률 1위를 기록하였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도 방송 직후 대부분 1위 또는 상위 톱10에 랭크되며, 대국민 중소기업 긍정인식 확산에 기여했다.

나.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국정과제 41번 목표 달성을 위해, 대·중소벤처기업 임금격차를 축소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우수인력 유입을 확산하고자 <중소벤처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성과공유기업의 정의, 성과공유 유형,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성과공유기업 51,275개사를 지정하였다.

* 연도별 누적 기업 수
(18) 10,794 →
(19) 31,171 → (20)
51,275

국정과제 41. 대·중소벤처기업 임금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과제목표	성과공유 확산 등으로 대·중소벤처기업 임금격차 완화
주요내용	'17년부터 기업 성장 후 주사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 확산 캠페인, 도입기업 우대 등을 통해 '22년 10만개사 달성
기대효과	미래성과공유제 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임금격차 축소

성과공유기업이란 성과공유 유형*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 1항]을 말한다.

중진공은 성과공유기업 확산을 위해 국내 최초로 사업주-근로자간 미래성과공유 협약서 등록시스템 및 성과공유도입증빙자료 제출 창구인 성과공유기업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18.1.)하였다. 또한 성과공유기업 확인기준 등을 규정한 고시를 제정('18.9.)하고,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18.12)하여 성과공유기업 인증제도 기반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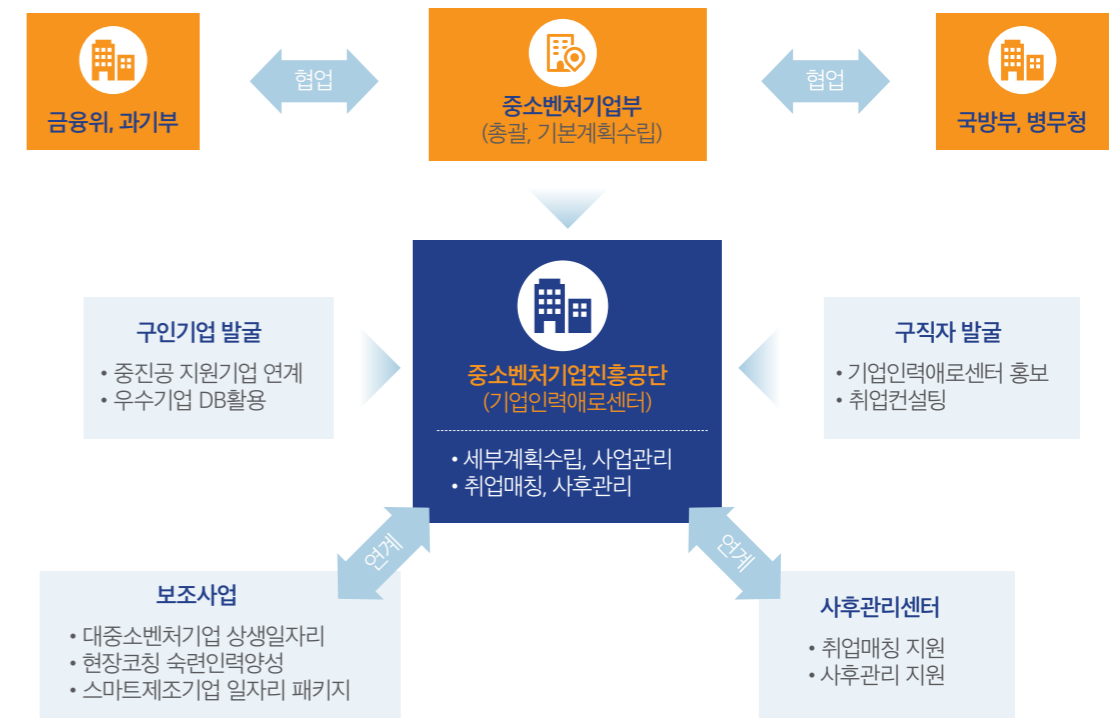
이와 함께 성과공유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일자리평가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가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과공유기업 유인을 강화해왔으며, 검색엔진·신문, 산업단지 옥외광고 등 성과공유 문화 확산 및 인지도 제도를 위한 홍보도 적극 수행하였다. 2020년에는 신규로 20,104개의 성과공유 도입 기업을 지정하였다.

- * ①성과급
- ②성과보상공제
- ③임금수준 상승
- ④우리사주
- ⑤사내근로복지기금
- ⑥스톡옵션
- ⑦정부인증제도

기업인력애로센터

기업인력애로센터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인력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One-Stop지원사업이다. 중진공은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구인애로 기업을 발굴하고, 채용조건을 확인하여 특성화고, 전문대, 직업전문학교 졸업생, 청년장병 등의 구직자와 맞춤형 취업매칭을 진행한다. 동 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 16개 기업인력애로센터가 개소되었으며, 중소기업 구인수요를 상시 발굴·접수하여 실시간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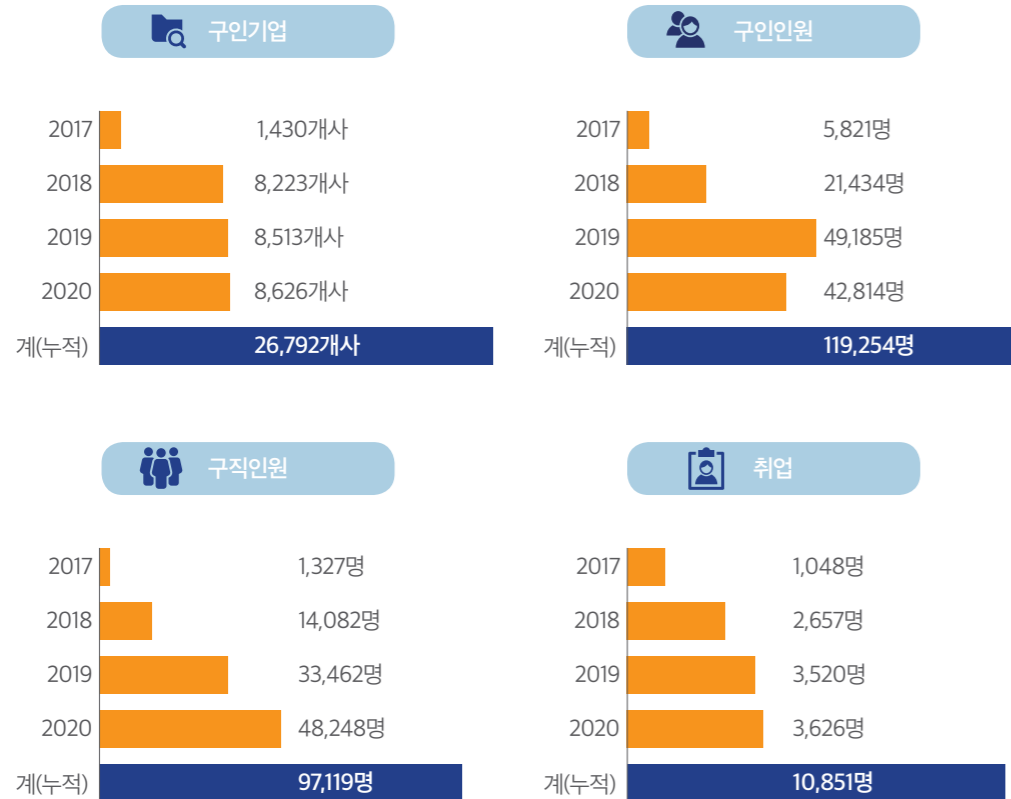
2019년에는 구인애로 중소기업 8,513개사를 발굴하여 3,520명의 구직자를 취업매칭하였다. 2020년에는 청년(장병) 구직자 요건 중 청년장병의 범위를 대체복무자(산업기능요원 희망자)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8,626개사의 구인기업을 발굴하여 1,868개사에 3,626명을 취업 연계하였다.

2021년에는 청년 중심의 일자리 지원을 중년, 신중년으로 확대하여 연령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중진공은 현장조직을 활용한 우수 중소기업 발굴, 취업컨설팅을 통한 검증

된 구직자 발굴, AI 면접 서비스, 온라인 취업박람회 지원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일자리 미스매칭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중소벤처기업 구인수요 발굴 및 취업매칭 실적

구분	구인기업	구인인원	구직인원	취업
2017년	1,430개사	5,821명	1,327명	1,048명
2018년	8,223개사	21,434명	14,082명	2,657명
2019년	8,513개사	49,185명	33,462명	3,520명
2020년	8,626개사	42,814명	48,248명	3,626명
계(누적)	26,792개사	119,254명	97,119명	10,851명



연수사업

1982년 중소기업연수원(본원 안산) 개원을 시작으로 호남연수원(2001년, 광주), 대구경북연수원(2003년, 경산), 부산경남연수원(2004년, 창원), 글로벌리더십연수원(2014년, 태백) 등 5개의 지역 연수원이 개원하였다. 중진공은 연수원을 통해 38년간 중소기업 임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연수사업을 운영해왔다. 2021년에는 총청연수원을 천안에 신규로 개원하여 총 6개의 연수원이 운영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중소기업연수원(안산) 34,163명, 그 외 지역연수원(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글로벌리더십) 10,825명 등 총 44,988명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최초 개원 이래 중기재직자를 포함하여 총 154만여 명의 인력양성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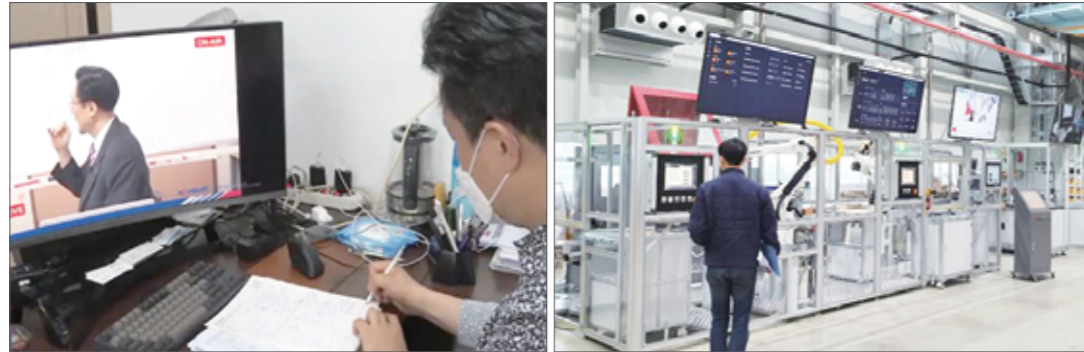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으로 집합연수운영이 어려워졌으나,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신기술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웨비나 연수(일명 KOSME-LIVE)”를 신속하게 도입하였다. 웨비나연수는 LIVE웨비나(가장 일반적인 실시간, 쌍방향 소통형 연수), FLIP웨비나(先이러닝 後웨비나 혼합연수), 라이브 코칭 웨비나(전문가가 기업별 문제 상황 진단을 하고 그 해결책을 비대면 웨비나 방식으로 제시하는 연수) 등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코로나19에도 중소기업의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여 총 215회 교육을 실시, 12,045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6만명의 스마트제조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2020년 12,1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제조 분야 교육을 진행하였다.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선도할 사내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160시간으로 구성된 스마트공장 장기심화과정을 신규 개설하여 422명을 교육하였다. 또한, 실습중심교육 운영 확대 및 지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인프라 시설인 스마트공장배움터 2기(대구경북, 충청)를 신규 구축하였다.

아울러, 연수생 대상으로 직무연수 후 습득한 지식기술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학업성취도 조사’와 연수과정 및 시설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연수생 의견을 반영한 신규 과정을 개설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수사업 주요 실적('18년~'20년)

과 정		'18년	'19년	'20년
직무역량향상연수	스마트공장	7,760	11,046	12,100
	뿌리·생산기술	6,880	4,031	1,171
	경영·품질	8,055	5,968	3,145
	소계	22,695	21,045	16,416
정책연수		13,373	11,643	8,303
온라인연수		13,160	17,656	18,483
맞춤연수		3,375	3,194	1,786
계		52,603	53,538	44,988



웨비나연수(KOSME-LIVE)

스마트공장 배움터 구축

충청연수원 건립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지방 권역별 맞춤형 인력양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광주·전남(2001년, 광주), 대구·경북(2003년, 경산), 부산·경남(2004년, 진해), 강원(2014년, 태백)에 연수원을 건립한데 이어,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충청권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중기재직자 직무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충청연수원 건립이 추진되었다.

충청연수원 건립은 총사업비 324억 원을 편성 받아 2018년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21년 1월 준공 승인되어 4월 개원되었다.

지역산업 특성 및 고객수요를 반영하여 타 연수원과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충청연수원 운영방향 설정 및 연수체계 설계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경기도 교육 연수원 등 약 10개의 국내 공공·민간 연수원을 방문해 연수과정 및 시설을 벤치마킹하였다.

향후 충청연수원은 스마트제조 D.N.A(DATA, NETWORK, AI) 및 바이오 인재양성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스마트공장배움터 등 차별화된 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충청연수원 건립 개요



구분	개요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남산2길 41
사업기간	2017년 ~ 2020년
총사업비	324억 원
건립규모	지하1층~지상4층 (부지면적 24,587㎡, 건축연면적 11,858㎡)

충청연수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및 잦은 이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4년도 8월에 출범하였다. 동 기금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3년형)),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 시 공동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내일채움공제



2016년에는 내일채움공제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를 연계한 신규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여 청년 취업에서 장기재직까지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미취업청년과 사업주, 정부가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900만 원을 적립하여 만기 재직 시 근로자에게 1,600만 원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정부
 취업지원금
 1개월 45만 원
 6개월 70만 원
 12개월 95만 원
 18개월 95만 원
 24개월 95만 원
 ⇒ 900만 원

청년
 근로자적립금
 월 12만 5천 원
 (24개월 적립)
 ⇒ 300만 원

기업
 기업기여금
 1개월 45만 원
 6개월 70만 원
 12개월 95만 원
 18개월 95만 원
 24개월 95만 원
 ⇒ 400만 원

만기시 1,600만 원 +이자

- 가입대상 : 중소기업+핵심인력 (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상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청년) 만 15세~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가입기간 : 2년 공제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가능
- 가입금액 : 2년간 총 1,600만 원 적립 청년 3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900만 원 정액 납부
- 공제금리 : 연 복리이자 (분기단위 변동금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납입금
 월 12만 원 납입, 5년

정부
 정부 적립금
 3년간, 1,080만 원 납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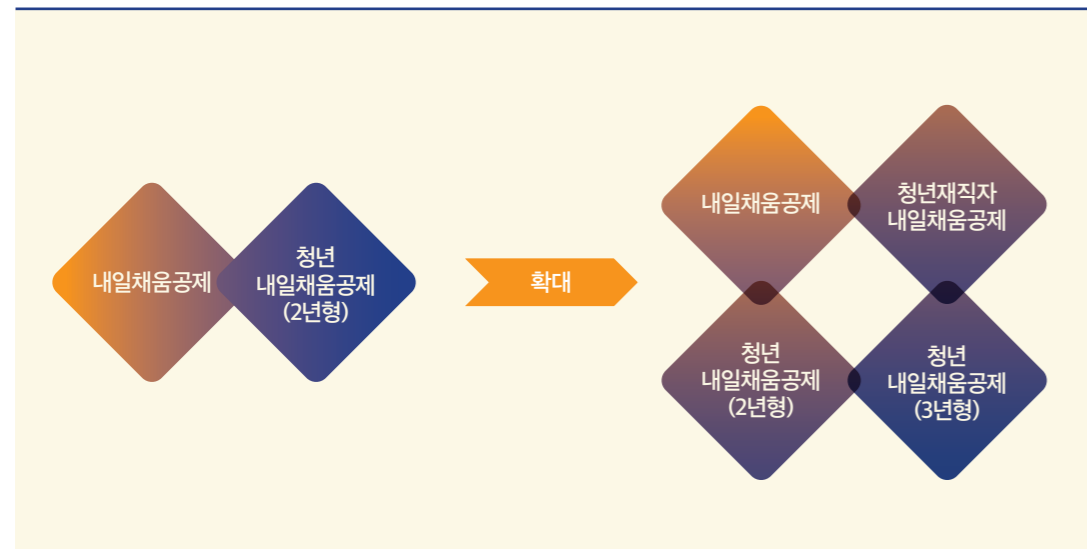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납입금
 월 20만 원 납입, 5년

5년 만기 근속 시
 청년근로자 납입금 + 중소기업 납입금 + 정부적립금

- 가입대상 : 중소기업+청년근로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지원업종 영위업체, 당해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재직근로자
- 가입기간 : 5년 공제 만기 후 3~10년 선택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가능
- 가입금액 : 5년간 최소 3,000만 원 이상 청년근로자 월 12만 원 이상, 기업 월 20만 원 이상, 정부 월 평균 30만 원(3년간 1,080만 원)
- 공제금리 : 연 복리이자 (분기단위 변동금리)

2018년에는 청년일자리대책 및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공제사업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재직청년 대상 신규 사업이 출범하였다.

2018년 공제사업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3년형)

정부
 취업지원금
 1개월 150만 원
 6개월 175만 원
 12개월 225만 원
 18개월 250만 원
 24개월 325만 원
 30개월 325만 원
 36개월 350만 원
 ⇒ 1,800만 원

청년근로자
 근로자적립금
 월 16만 5천 원
 (36개월 적립)
 ⇒ 600만 원

중소(중견)기업
 기업기여금
 1개월 50만 원
 6개월 50만 원
 12개월 75만 원
 18개월 100만 원
 24개월 100만 원
 30개월 100만 원
 36개월 125만 원
 ⇒ 60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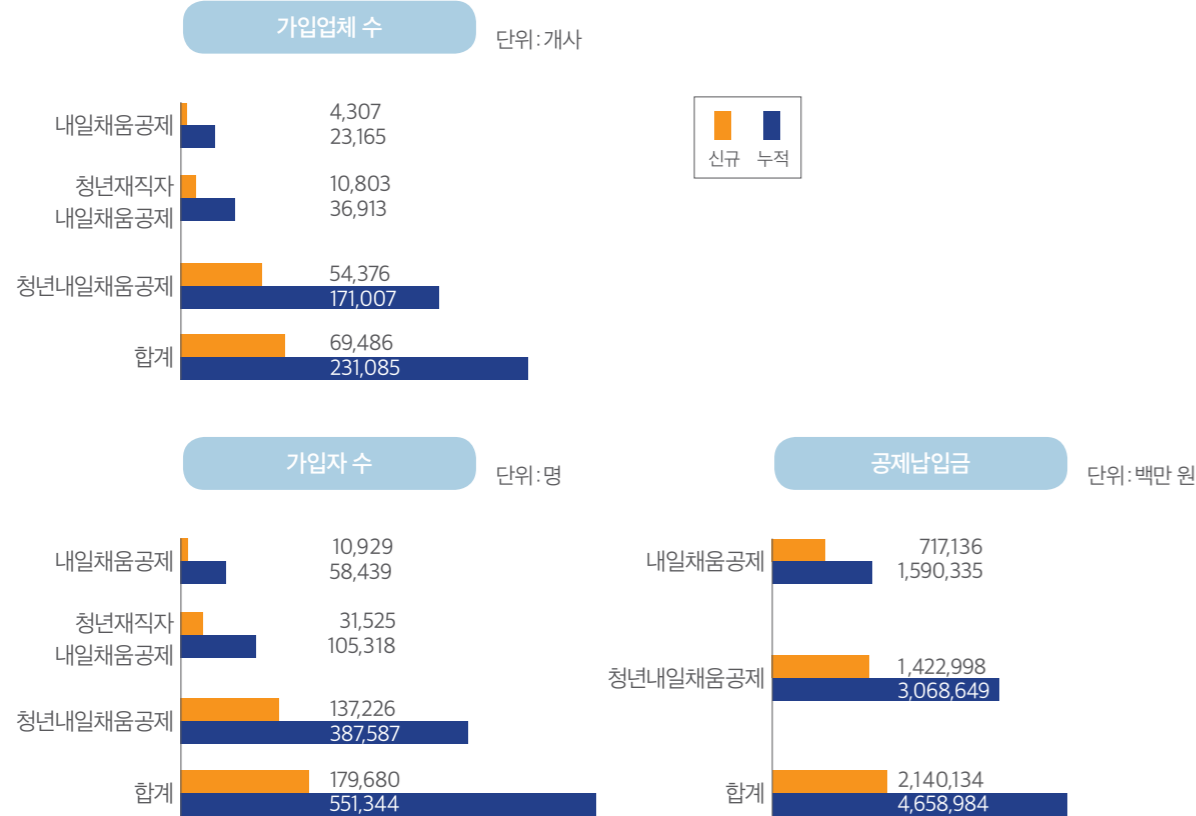
만기시 3,000만 원 +이자

- 가입대상 : 중소기업+청년근로자 (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상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청년) 만 15세~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가입기간 : 3년 공제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가능
- 가입금액 : 3년간 총 3,000만 원 적립 청년 600만 원, 기업 600만 원, 정부 1,800만 원 정액 납부
- 공제금리 : 연 복리이자 (분기단위 변동금리)

출범 후 2020년 말까지 성과보상공제(4개 사업)에 231,085개사 551,344명(누적 기준)이 가입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2020년 공제가입실적

구분		가입업체 수(개사)		가입자 수(명)		공제납입금(백만 원)	
		신규	누적	신규	누적	신규	누적
내일 채움 공제	일반	4,307	23,165	10,929	58,439	717,136	1,590,335
	청년재직자	10,803	36,913	31,525	105,318		
	소계	15,110	60,078	42,454	163,757		
청년내일채움공제		54,376	171,007	137,226	387,587	1,422,998	3,068,649
합계		69,486	231,085	179,680	551,344	2,140,134	4,658,984



한편, 지자체 및 공-대기업과 내일채움공제 상생협력형 협업모델을 구축하여 공-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지역균형 일자리 창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였다. 2020년도에 진주시 284명, 시흥시 101명, 울산항만공사 30명, 한국국토정보공사 10명 등 지자체 6곳과 공-대기업 6곳이 협력사 및 관내 중소기업의 공제 납입금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지자체 1곳과 협약체결을 통해 총 57명(27개사)에게 복지지원금을 지원하였다.

2020년 공기업·지자체와 내일채움공제 간 연계 협업 실적(누적)

구분	협력사 업체수(개사)	지원 인원수(명)	지원액(백만 원)	
공기업 및 대기업	한국남동발전	91	216	1,296
	한국서부발전	66	185	1,230
	한국가스공사	17	48	288
	한국전력공사	18	50	658
	CJ제일제당	40	80	576
	한국동서발전	12	38	228
	한국중부발전	15	36	216
	한국수력원자력	21	72	432
	인천항만공사	11	16	96
	한국수자원공사	30	37	222
	한국남부발전	28	70	420
	한국토지주택공사	37	229	1,374
	한국항공우주산업	20	79	284
	부산항만공사	18	39	234
	한국가스기술공사	7	10	60
	울산항만공사('20)	9	30	180
	한국국토정보공사('20)	10	10	60
	한국승강기안전공단('20)	1	2	12
	인천국제공항공사('20)	3	3	18
	한국교통안전공단('20)	2	4	24
지자체	KT('20)	6	21	101
	강원도	219	881	8,556
	대전시	270	594	5,346
	울산시	148	259	621
	충북도	632	973	5,838
	계룡시	12	29	209
	제주도	728	1,363	12,637
	산청군	6	15	108
	부천시	108	193	809
	김해시	27	55	79
	포항시	78	158	189
	익산시	14	43	123
	양주시('20)	40	101	436
	완주군('20)	13	41	295
	군포시('20)	21	50	300
	시흥시('20)	65	101	581
	진주시('20)	102	284	93
	포천시('20)	23	51	220
	계	2,968	6,466	44,449

창업·기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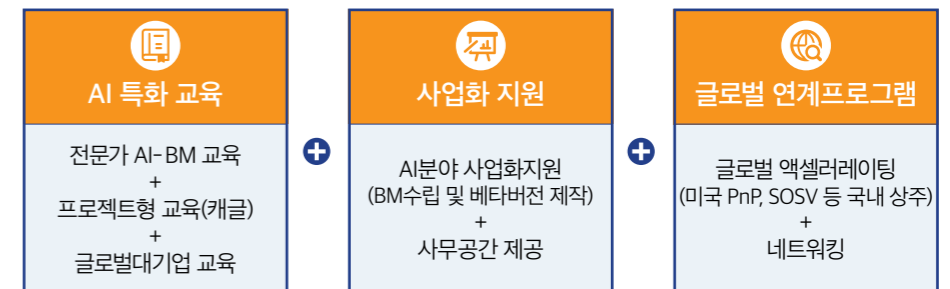
1. 사업개요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유망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성장까지 창업 순단계를 패키징한 방식으로 원스톱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18개 지역의 청년창업사관학교 및 글로벌창업사관학교를 통해 고용·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집약업종 위주로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직방 및 토스(주)비바리퍼블리카가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체계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지원체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진단기반의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동 사업은 기술·경영역량 부족으로 대외환경 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전문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요금액의 50~90%를 매출액별 차등 지원하여 기업당 최대 50백만 원까지 과제규모에 따라 비용을 지원한다. 단, 재기컨설팅 바우처 중 회생컨설팅 및 pre-회생컨설팅은 신청기업 자산기준으로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고, 진로제시컨설팅은 별도지침에 따라 90%를 지원한다.



중진공-인천항만공사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가입자 가족 참여 힐링 캠프

아울러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및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상품 매력도를 향상시켰다. 복지 부분은 공제계약대출을 확대하고, 공제가입 후 1년 이상 가입 유지중인 가입자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확대 지원하였다. 또한 교육 부분에서는 공제가입자 대상 온라인 e-러닝연수교육을 확대하였으며, 금융교육을 신설 지원하여 공제 가입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창구를 기존 중진공 현장 접점조직(지역본부·지부)에서 추가로 중소벤처기업 관련 협회·단체 등 민간 전문기관으로 다변화하였다. 위탁판매 가입창구를 금융기관(기업은행 609개, 신한은행 753개, 우리은행 874개 영업점), 비금융기관(12개사)으로 확대하여 공제가입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뿌리산업 등 취약대상에 대한 우선 지원과 청년의 계속근로 및 공제가입을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기간을 확대하는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수요자 선발을 위해 노력하였다.

중진공은 앞으로도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한 저변 확대와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청년의 중소벤처기업 유입, 핵심인력으로 양성 및 장기재직을 촉진하여 중소벤처기업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중진공-한국국토정보공사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중진공-한국남동발전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 최초 민기행사

2020년 혁신바우처 사업 규모 및 지원 내용

예산규모	• 52,650백만 원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사업대상	•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제조 소기업 *재기컨설팅 바우처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수행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지원금액	• 기업당 50백만 원 이내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 한도를 적용

• (혁신바우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50~90%)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 원 이하	90%	10%
3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80%	20%
10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70%	30%
50억 원 초과 ~ 120억 원 이하	50%	50%

• (재기컨설팅) 재기컨설팅 중 회생컨설팅 및 pre-회생컨설팅은 신청기업 자산기준으로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고, 진로제시컨설팅은 별도지침에 따라 자부담(10%)을 적용

자산 구간	회생컨설팅		Pre-회생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50억 원 이하(간이회생)	90%	10%	-	-
50억 원 초과 80억 원 미만	72~90%	10~28%	90%	10%
8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62~90%	10~38%	85~90%	10~15%
12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52~77%	23~48%	72~90%	10~28%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3~63%	37~57%	59~88%	12~41%
3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37~54%	46~63%	51~76%	24~49%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33~49%	51~67%	46~68%	32~54%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은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및 기능개선(R&D)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20년에는 공모접수를 통해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기업의 기술유형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사업화 유망기업 발굴 집중을 위해 평가방식을 개선(사업화 성공 가능성 배점 향상)하였고, 지원제외조건 완화 등을 통해 폭넓은 신청자격을 마련하였다.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은 경륜·경정법 및 산업발전법에 의거,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 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과 맞춤형 사업화 부문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개발” 부문은 품질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맞춤형사업화” 부문은 기술개발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하여 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을 맞춤 지원한다.

2020년 사업 규모 및 지원 내용

2020년 예산		• 1,964백만 원
기술 개발	지원기간	• 자전거산업 분야 : 2년 이내 • 해양레저장비산업 분야 : 2년 이내
	지원한도	• 자전거산업 분야 : 연 2억 원 이내(과제당 총 3억 원 이내) • 해양레저장비산업 분야 : 연 2억 원 이내(과제당 총 3억 원 이내)
	지원비율	• 총 개발사업비의 75% 이내(일괄협약 후 연차별 지급)
맞춤형 사업화	지원기간	• 당해연도
	지원한도	• 사업화지원 5,000만 원 • 사업화 코칭 300만 원
	지원비율	• 사업화지원 75%, 사업화 코칭 100%

2.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은 2020년 청년창업사관학교 구리캠퍼스를 개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청년 CEO 지원규모를 1,000명에서 1,035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AI(인공지능) 분야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글로벌 수준의 창업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창업사관학교를 신설하여 디지털 뉴딜 정책실현에 기여하였다.

중소기업 혁신벤처 사업은 2020년 2,060개사를 최종 선정하여 2,952건의 서비스(컨설팅 838건, 기술지원 1,233건, 마케팅 881건)를 지원하였으며, 지원 전후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 3.7% 성장하는 등 지원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혁신벤처 사업의 주요 수요자인 영세소기업과 지방소재 소기업을 중점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했다.

중소벤처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은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집중에 위해 평가방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성공률 제고를 위해 신청자격을 변경하였다.

구분	기존(2019)	변경(2020)
평가방식	사업화 성공 가능성 배점 70%	사업화 성공 가능성 배점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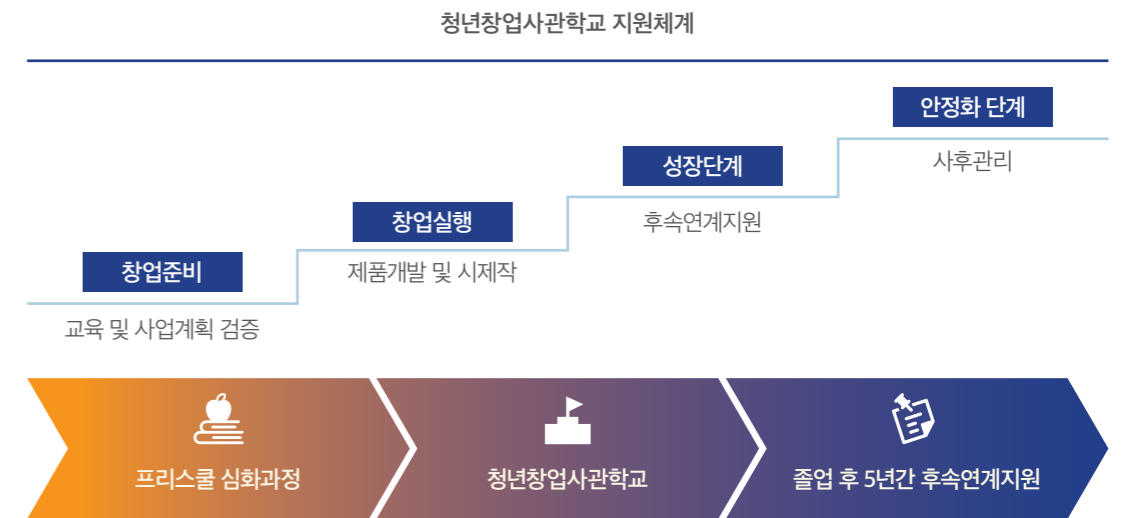
2020년에는 시장검증 32개사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20개사(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업)를 지원하였다. 또한, 시장검증을 지원받은 32개사 중 16개사에서 신규 매출액이 발생해, 전년(44.7%) 대비 5.3%p 향상된 사업화 성공률 50.0%를 달성하였다.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은 2020년 기술개발 부문 지원으로 특허등록 및 출원 6건, 시제품 출시 1건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맞춤형사업화 부문 지원을 통해 지원금액 대비 신규매출액 20.1%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3. 세부사업 추진실적

창업성공패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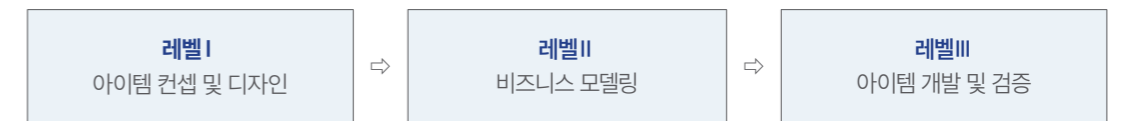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청년의 기술창업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2011년 경기도 안산에 설립되었다. 2017년에는 혁신 창업자 육성 강화를 위해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쏠단계 패키지방식으로 지원범위를 확대·개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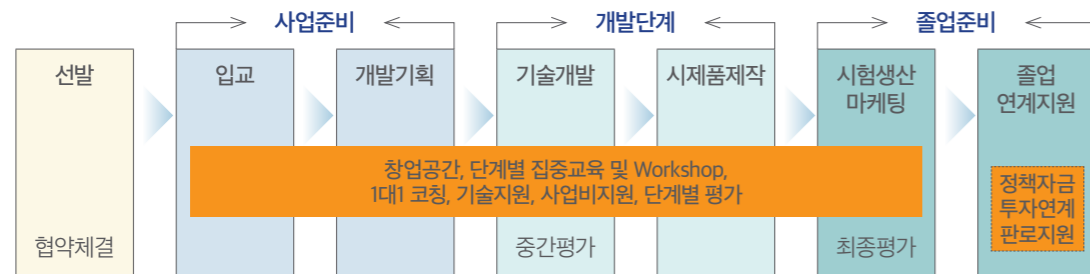
첫 단계인 프리스쿨 심화과정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 등의 교육을 통해 창업 사업화 기간에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는 창업역량 강화 교육 과정이다.

* 프리스쿨 심화과정('20년) : 총 6회(43시간) 실시, 교육 참여자 120명 중 112명 교육 수료 완료

창업성공패키지 프리스쿨 주요 교육내용



다음 단계인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는 유망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사업화 지원금, 교육·코칭, 창업 및 시제품 개발 공간, 판로지원까지 청년창업 one-stop(one-roof) 시스템으로 일괄 지원하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이후에는 창업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졸업 후 5년간 정책 자금, 수출마케팅, 인력양성 등 사업을 후속연계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 제조융복합 분야의 청년창업자 선발을 확대하여 제2벤처 붐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지역주력산업을 우대하여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혁신기술 창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창업사관학교를 신규 설립('20.8월)하여, AI(인공지능)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수준의 기술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였다. AI역량진단을 통한 수준별, 단계별 맞춤형 특화교육(이론+현장+실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국내외 네트워킹(국제기구 연계, 글로벌 컨퍼런스 참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글로벌 인공지능 창업 확산에 기여하였다.

* 4차 산업혁명 분야
선발비중 :
(19년) 50.4%(504명)
→ (20년) 57.0%(590명)

** 제조융복합 분야
선발비중 :
(19년) 71.2%(712명)
→ (20년) 80.5%(833명)

*** 지역주력산업
분야 선발비중 :
(20년) 41.5%
(255명/615명)

글로벌창업사관학교 3-Layers 패키지 방식 창업지원체계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선발결과(신규) :
(20년) 60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 개교 이래 지난 10년간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총 4,798명의 청년CEO를 양성하고, 매출액 48,553억 원, 일자리창출 13,759명, 지식재산권 등록 16,989건의 지원성과를 거두었다.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신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 창업자 60팀을 양성하여 매출액 84억 원, 고용 144명, 투자유치 59억 원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이렇듯 창업 지원체계 구축 및 우수한 성과 창출을 통해 창업성공패키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년창업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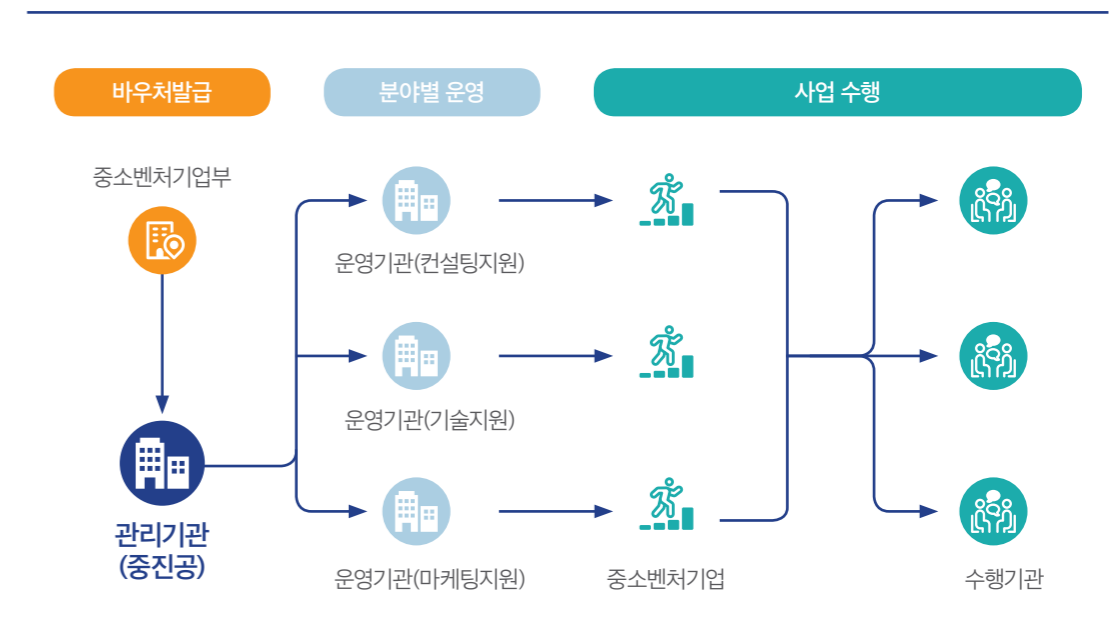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가. 혁신바우처 사업

2020년 코로나19 영향 및 경기둔화로 위기에 직면한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여건 수준 진단과 기업특성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분야별 전문 역량을 갖춘 수행기관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진단과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혁신바우처 메뉴판 내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최대 50백만 원 이내에서 3개 분야 3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총 2회 모집공고에 걸쳐 6,964개 기업이 신청하였고, 이 중 서면 심사 및 진단-평가를 통해 1,637개사를 선정 및 지원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큰 매출액 50억 원 미만의 소기업, 3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 및 3~7년 사이의 데스밸리 기업을 중점 지원하여 경영애로 극복에 기여하였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체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세부지원 서비스

지원 분야	지원 프로그램
컨설팅	경영, 기술, 규제대응, 재기지원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인증, 제품시험, 설계
마케팅	마케팅 및 시장조사, 패키지 디자인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지원

2020년에는 시스템 개편을 통해 혁신역량 진단 및 평가통합 모델을 개발 완료하여 제조 소기업의 성장 유형을 5가지로 분류·제시하고 세부지원 프로그램을 맞춤 연계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류준비 간소화를 시행하고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2020년 한해 기술유망 소기업 1,637개사에 약 43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521건의 서비스(컨설팅 407건, 기술지원 1,233건, 마케팅 881건)를 연계했다. 아울러 매출액 50억 원 미만의 기업을 전체 지원기업의 86% 비중으로 지원하여 영세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지원기업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 3.7% 성장하여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하였고, 1,077명의 고용 실적을 달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나. 중소기업 재기컨설팅 지원사업

재기컨설팅 지원사업은 경영위기 기업들의 자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기 및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에는 총 423개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해 431건의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1)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사업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사업은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기업에 대해 전문가의 심층진단으로 기업에 필요한 진로를 제시하는 사업이다.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정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퇴출을 유도하여 시장 내 명맥만 유지하는 '좀비기업'의 양산을 막고,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조기진입을 유도한다.

2020년에는 6.9억 원의 규모로 총 336개 기업에 진로제시컨설팅을 지원하였다. 지원기업 중 316개사는 "구조개선" 판정으로 수출마케팅, 워크아웃, 자금 등 지원정책을 연계하였고 16개사는 "회생지원" 처방을 통해 회생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4개사는 "사업정리" 처방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폐업을 지원하였다.

2020년 진로제시컨설팅 처방 현황

(단위 : 개사)

구분	회생컨설팅 지원	사업정리	구조개선 등	합계
지원기업(개사)	16	4	316	336

2)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

중소벤처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은 법원 회생절차의 이행이 필요하나 회생절차 비용조달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회생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원 조사위원 경험을 보유한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등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법원 회생개시신청서 작성, 조사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회생절차의 성공적 이행을 돕고 있다.

2013년 57개사, 2014년 65개사, 2015년 51개사, 2016년 55개사, 2017년 90개사, 2018년 92개사 2019년 95개사, 2020년 95개사 등 누적 총 600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법원 회생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회생인가율을 제고하고 있다.

2013~2020년 회생컨설팅 지원실적

(단위 : 개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지원기업 수	57	65	51	55	90	92	95	95	600

2020년 회생컨설팅 완료기업 25개사 중 19개사(2021. 3월 말 기준)가 회생인가결정이 완료되어, 76.0%의 인가율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최근 5년('14년~'19년)간 법원의 회합사건 회생인가율 통계수치(38.3%)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이다. 중진공은 향후에도 역량이 우수한 컨설턴트를 선정·관리하여 신청부터 인가까지 컨설팅 전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회생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은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및 기능개선(R&D) 등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R&D 투자효율 개선 및 중소기업의 신규 매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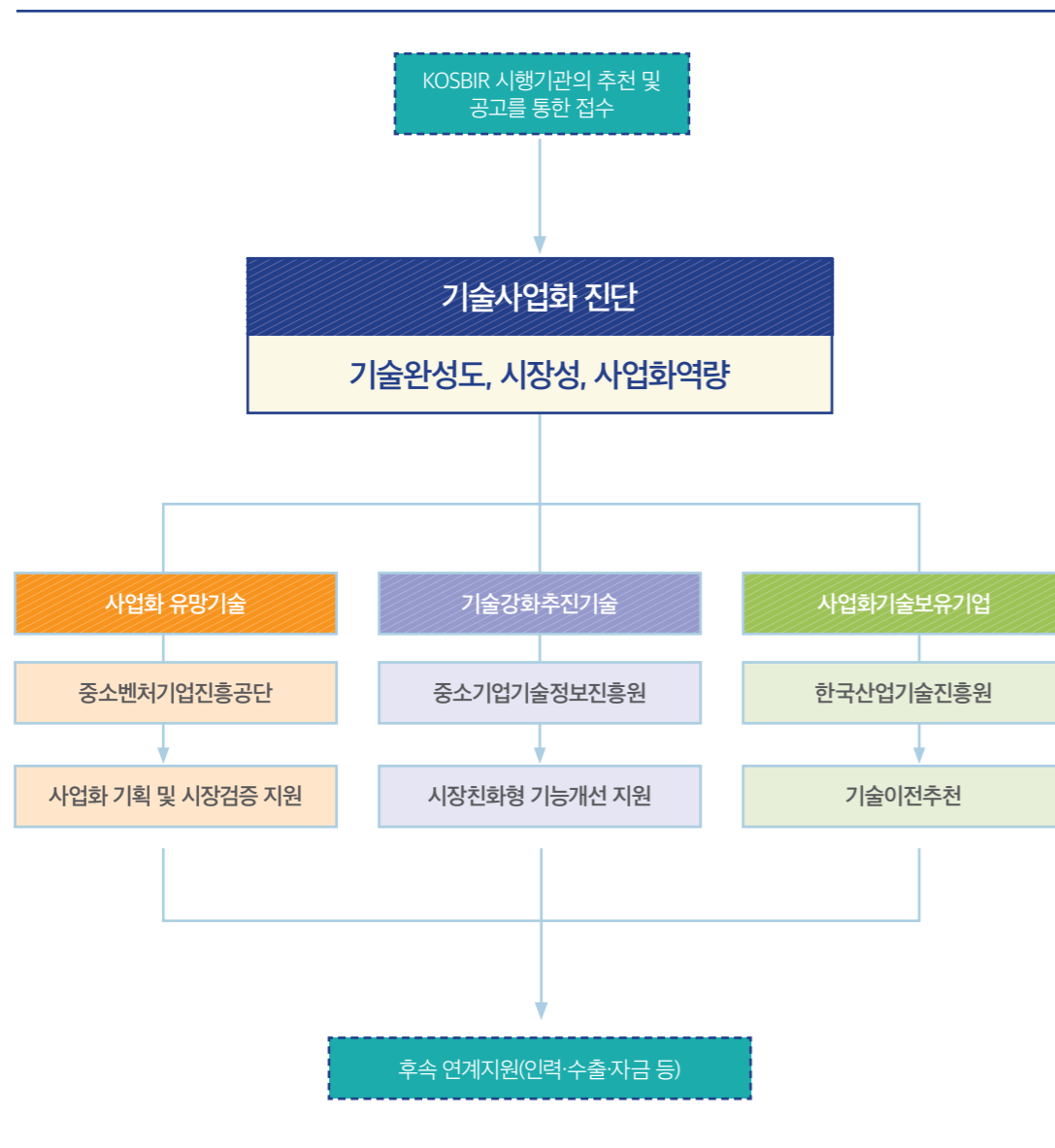
지원대상은 정부 R&D 성공기술 및 특허등록기술 중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이며, 최종 선정기업에게는 시장검증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2020년에는 공모접수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하였으며, 대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화 추진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지원현황

구 분	기술사업화 진단	기술사업화 기획	사업화 지원	
			시장검증	시장친화형기능개선
실적(개수)	202	40	32	20

기술사업화 추진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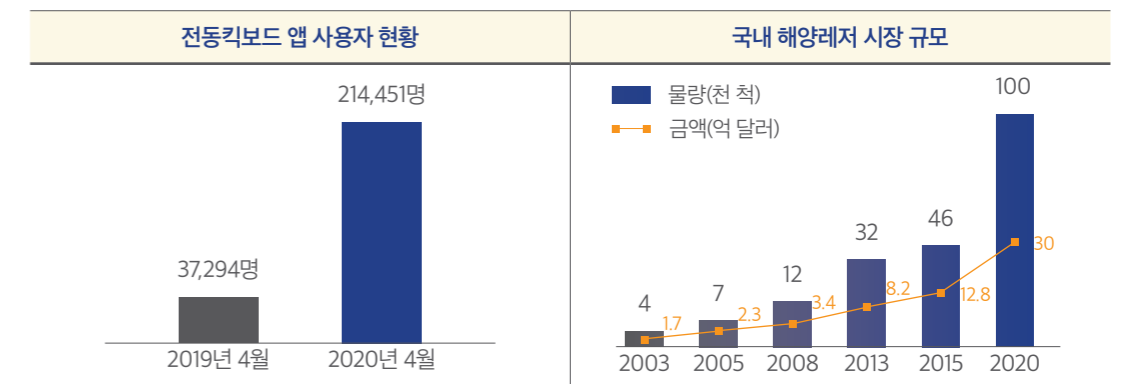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 경륜경정법 제18조 : 자전거 및 모터보트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경륜·경정·경주 수익금의 우선사용을 의무화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은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 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경륜경정법*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필수 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라 개인용 이동수단 수요증가로 지원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사업 지원부문은 기술개발 지원과 맞춤형사업화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 출처 : 20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산업 동향 및 성과분석 (한국기업지식연구원, '20.12월)

자전거·해양레저 산업 동향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운영체계



기술개발 부문은 자전거·해양 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지원기업은 산업 전문가의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선정되게 된다.

특히, 기술개발 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연구원을 신규 채용한 경우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의 기존 연구원이 참여할 경우에는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뿐만 아니라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총 29개 기업이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이 중 4개 기업을 신규 선정함으로써 7.2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기업 대상으로 계속과제 7건을 포함하여 총 1,573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특허등록 및 출원 6건, 시제품 출시 1건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맞춤형사업화 부문은 기술개발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사업화 기획, 사업화 지원을 맞춤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사업화 기획 4건, 사업화 지원 5건으로 총 9건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금액 대비 신규 매출액이 20.1%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책중개

중진공은 2011년부터 지역본·지부 등 현장조직의 강점을 살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정책중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기업성장응답센터, 기업인 간담회 등 현장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발굴한 규제를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정부에 정책개선 과제로 제안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정책중개 업무절차



* 중소기업(Small business), 옴부즈만(Ombudsman), 중진공(KOSME)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규제애로 합동 간담회

2013년에는 금융감독원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이하 금융애로상담센터)』를 신설하였다. 금융애로상담센터는 지역 순회상담 등을 통해 매년 50건 이상의 금융규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총 66건의 금융애로를 발굴 및 건의하여 중소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금융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5년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공동으로 『S.O.S Talk*』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20년에는 지역별로 14회의 S.O.S Talk 간담회를 개최해 총 159건의 현장애로 및 정책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

2020년 12월에는 VIP 주재 국무회의 규제개혁 후속대책 주문(‘20.5)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의 유기적 규제혁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유관기관과 합동 발족하였다.

중진공은 이를 통해 기존 정책중개 시스템을 확대개편하고 온·오프라인 상시 소통채널을 구현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구성) 본부센터(부이사장 직속) + 32개 지역센터(지역본부 부사장이 센터장 겸직, 전담자 지정)
 · (역할) 본부는 정책중개/지역지원/대내외 협업 총괄, 지역은 규제애로 발굴/결과 피드백

또한 2020년 12월 중진공은 법제처와 협업해 기업현장의 법·제도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법·제도 규제 애로 핫라인 구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법령정비 행정기관에 법·제도 규제를 직접 개선 요청하는 규제개선 시스템을 통해 현장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정책 반영률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처럼 중진공은 기업성장응답센터(지역본·지부), 현장 간담회, 금융애로센터, 법제처 핫라인 구축 등 현장접점 규제 발굴 채널 다각화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를 혁신하는데 앞장서 왔다.

그 결과, 2020년 총 511건의 정책개선 과제를 정부에 발굴·건의하였고, 이 중 75건이 정책에 반영되어 14.7%의 높은 정책반영률을 달성하였다. 또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스마트공장,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차 산업혁명 혁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하여 정부의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정책에 호응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 주요 개선사례

연번	규제내용	소관부처
1	인간대상 연구 등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 규정 개선	보건복지부
2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 보완 필요	중기부
3	차질이 있는 삼륜형 이륜자동차 안전모 착용 의무 완화*	경찰청
4	장흥 바이어식품 산업단지 내 비즈니스 커뮤니티센터 건립	장흥군지자체
5	자율주행 로봇 개발을 위한 법적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
6	소규모 핀테크 창업기업의 전자금융업 등록자본금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7	고부가가치 소형제품 제조기업 대상 국가산업단지 분양 최소면적 완화*	양산시 지자체
8	중소기업 지원사업 내 인증서 및 임상실험비 지원 추가	원주시 지자체
9	중소기업 공장건축 애로해소 및 투자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법제처
10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규정강화 및 환경친화적 선박지원 체계 개선	해양수산부

* 3, 6, 7번 사례 건은 소관부처의 장기검토 과제로 등록, 개선 예정

중소기업정보제공(기업나라)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영기술 트렌드, 우수 성공사례, 중소기업 지원시책 등의 정보를 담은 월간 『기업나라』를 1979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매월 1일 발간되는 『기업나라』는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회비 납부방식의 정기구독 회원제로 운영된다. 연간 회원에게는 정가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주요기사를 엄선해 이메일 뉴스레터를 발송하여 정기구독 회원에 대한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시중 서점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판매를 진행했으며, 인터넷 웹진(nara.kosmes.or.kr)을 통해 주요기사를 제공하는 등 정보 접근성을 제고했다.



1979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월간 『기업나라』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정보제공 확산을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포스트'에 『기업나라』 콘텐츠를 서비스함으로써 모바일 환경에서도 주요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대중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한국ABC협회에 부수인증 매체로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발행부수에 대한 검증을 받아 정기간행물로서의 대외신뢰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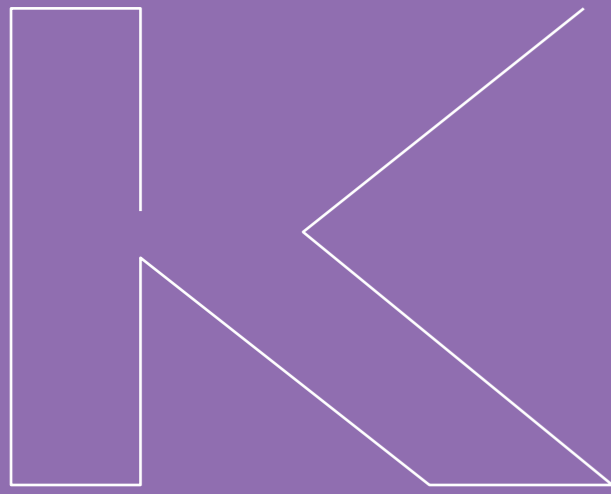
『기업나라』는 최신 산업동향 및 이슈 관련 중소기업 사례를 심층 취재하는 <특집>, <기획>코너와 <People & Company>, <Global>, <Trend & Solution>, <Culture & Sense> 등 4가지 카테고리의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People & Company>에서는 현장 취재를 통해 중소기업 CEO의 경영철학과 우수 제품의 탄생 과정을 생생하게 소개하며, <Global>에서는 현지 리포터를 통해 미국, 독일, 중국 등의 해외 경제이슈 및 기술 동향을 전달한다. <Trend & Solution>은 경영기술 관련 트렌드를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Culture & Sense>는 교양 정보 등 문화 관련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를 실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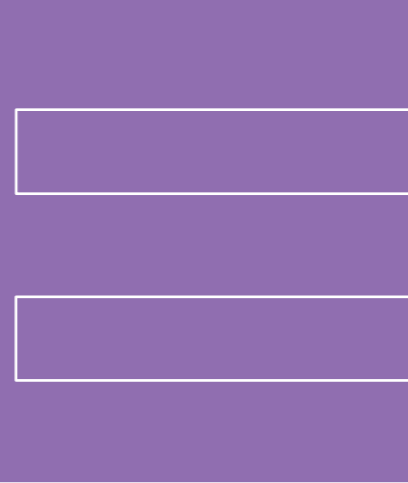
월간 『기업나라』 콘텐츠 <CEO 경영 이야기>와 <웰컴! 스타트업>

이와 더불어, 독자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엄선된 지원시책과 중소기업 관련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하는 코너(중소기업 옴부즈만)도 함께 운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언론 노출 기회가 적은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취재하여 홍보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만족도 제고 및 품질 개선을 위해 매월 <독자의 소리> 코너를 통해 관심있게 본 기사 내용과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반영하였다. 2020년 독자 모니터링단 설문을 통해 『기업나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척도 기준 4.33점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특히 '성공사례'와 '경영트렌드', '특집' 관련 기사에 대한 독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 Annual Report 2020



04

2020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영혁신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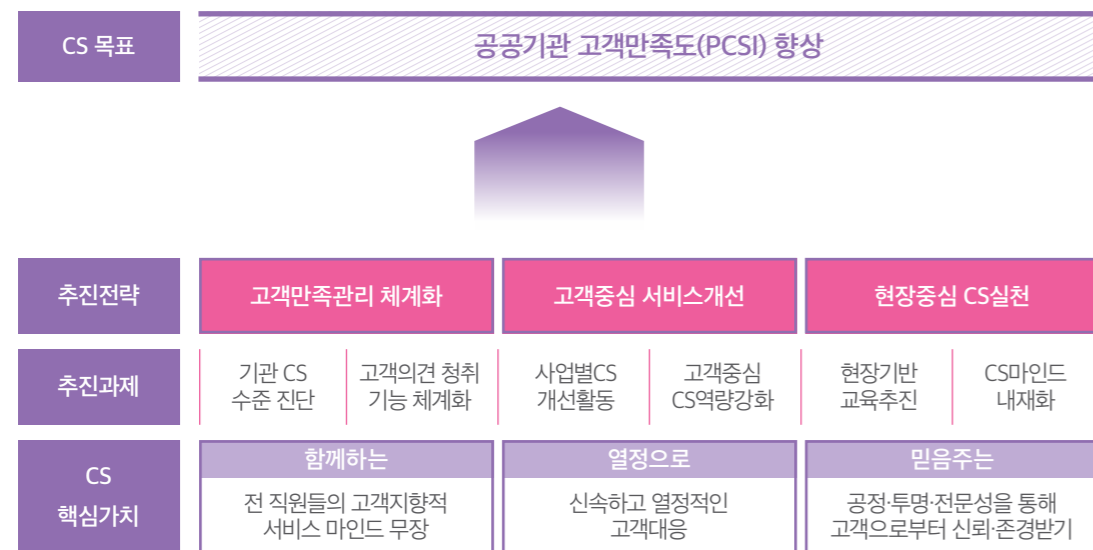
- 고객서비스 향상 및 사회적가치 실현
- 조직 경영 효율성 강화



고객서비스 향상 및 사회적가치 실현

1.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 향상

2020년에는 현장중심의 고객만족 서비스로 중소기업의 성공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하여 '고객만족관리 체계화', '고객중심 서비스 개선', '현장중심 CS실천'이라는 3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전략 추진을 위한 6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전사적인 CS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였다.



"고객만족관리 체계화"를 위해 전 사업 전수조사를 통한 CS수준 진단을 실시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또한, VOC를 통해 고객 문의사항에 상시 대응하는 등 고객의견 청취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만족관리 체계를 확립하였다.

"고객중심 서비스개선"을 위해 사회적가치 실현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업별 고객만족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이를 통해 대내외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신규 서비스 도입, 지원사업 다양화, 신청절차 간소화 등 고객편의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CS윤리마인드 제고를 위한 전사적 교육으로 고객 중심 CS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현장중심 CS실천"을 위해 고객만족도 미흡 부서를 파악하여, 고객의 불편사항을 도출하고 개선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컨설팅 과제의 실질적인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고객서비스 표준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는 등 CS마인드 내재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3대 추진전략과 6개 실천과제를 통해 중진공의 PCSI 점수가 87.2점('19)에서 88.4점('20)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PCSI & CSI 점수

구분	2019년	2020년
PCSI	87.2	88.4
CSI	95.1	96.4

* PCSI(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 CSI(Customer Satisfaction Index) : 고객만족도

2. 국민과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소통과 참여 기반 윤리·인권경영 추진

"지속가능한 윤리·인권경영으로 국민중심의 공정사회 구현 선도"를 2020년 중진공 윤리·인권경영 목표로 정하고, '윤리·인권경영체계 고도화', '윤리·인권경영 실천 생활화', '윤리·인권경영 자정기능 강화'의 3대 추진전략과 9개 실천과제를 선정·추진하였다.



윤리·인권경영 체계 고도화를 위해 내부 운영조직을 개편하고, 갑질·부당지시 행동 기준을 정립하였다. 실무자 중심, 수평적 소통, 취약요소 발굴을 목표로 정책조정(실무)협의회를 각 월 2회 운영하여 윤리경영 추진 기반을 다졌다. 또한, 윤리·인권경영 실행조직을 기존 부서장, 실무자 구성에서 부서장, 중간관리자, 실무자 구성으로 확대 개편하여 부서장 견제 및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갑질행위 무관용 원칙을 반영한 인사규정개정, 윤리적 딜레마 및 부당업무지시 행동 가이드 제작·배포 등을 통해 윤리·인권 행동 기준을 정립하였다.

윤리·인권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였다. 직장 내 갑질 현황, 내·외부 윤리·인권경영 지수 조사를 통해 갑질·인권 문제를 점검하였고, 윤리·인권 문제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갑질·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하도급 FAIR-CALL을 통해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조사를 연 4회로 확대 실시하여 불



부서장 주도 부서별 자체 윤리·인권교육



윤리경영의 날 행사 반부패·청렴 선서

공정 거래 발생을 예방하였고, 현장방문 조사 방식의 암행어사 제도를 신설하여 관리 사각지대의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였다.

조직 내 청렴·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윤리·인권경영 교육을 내실화하고, 임직원 윤리·인권경영 실천 생활화를 추진하였다. 부서장 주도 부서별 자체 윤리·인권교육을 연 4회로 확대 실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의 한계를 극복하였고, 윤리·인권경영 포털 「청신호」를 통해 영상학습, 자가진단, 퀴즈, 토론 등 임직원 참여형 윤리·인권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또한, 윤리경영의 날 행사에서 청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임직원이 함께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는 반부패·청렴 선서를 진행하였다.

고객 및 임직원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내·외부 소통 채널을 확대하였다.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기관장 청렴 letter”를 제작·발송하여 윤리·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전파하였고, 기관장과 함께하는 “윤리 TALK”를 통해 세대간 갈등, 갑질 등에 대한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KOSME 윤리인권경영소식지, 사회적책임 경영성과 보고서 신규 발간 등의 활동을 통해 윤리·인권경영의 가치를 외부로 확산하고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기관장과 함께하는 윤리 토크

윤리·인권경영 소식지

인권취약요소 및 자율 과제 발굴·개선을 통해 윤리·인권경영 자정기능을 강화하였다. 부패취약분야 진단을 통한 전사적 개선과제 66건을 발굴·추진하고, 임원 및 부서장으로 구성된 사회가치실현협의체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운영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인권취약분야 진단·평가를 위해 전문 컨설팅 기관과 관련 부서 참여를 확대하여 인권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였다.

3. 사회적가치 내재화와 성과창출 중심의 국민체감형 사회적가치 실현 활동 수행

중진공은 기관의 사회적책임 역할강화에 따라 기관비전인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성공파트너'를 위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목표 및 15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였다.

기존에 정의가 모호하고 측정에 애로가 있던 전략목표를 기재부 사회적 가치 5대 기준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회적가치 전략과제를 '사회·경제적 이슈 해결' 및 '업연계 사회적가치 실현'으로 이원화하여 발굴하여 15대 전략과제로 구체화 하였다. 또한 소관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적가치실현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함으로써, 사회적가치실현의 활동력을 강화하였다.

사회적가치 5대 전략목표 및 15대 전략과제

사회적 가치 비전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실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First Mover"				
5대 전략목표	좋은일자리 중소·벤처 일자리 창출 선도	지역과 상생 상생협력 활성화 및 동반성장 실현	안전과 환경 안전·환경·정보에 대한 체계적 대응	사회통합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경영 강화	윤리경영 투명·윤리경영 기반의 경영관리 체계 구축
15대 전략과제	①중소·벤처 혁신적 일자리창출 모델 고도화 ②고용안정망 강화 및 생애 맞춤형 일자리 지원 ③일터 혁신을 통한 고용의 질 제고	①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②디지털 기반의 중소·벤처 혁신성장 지원 ③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①재난·안전 대응체계 내재화 및 확산 ②환경경영을 통한 그린뉴딜 지원 ③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①사회통합형 채용 확대 ②체계적 여성인재 육성 및 관리자 확대 ③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강화	①투명·윤리경영 체계 혁신 ②인권경영 및 노동존중 문화 확산 ③국민소통과 참여활성화

첫째, 본사이전지역인 경남지역과 현장거점 수행지역인 전국지역으로 추진과제와 대상을 나누어 지역사회 참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청년창업기업 우수기업을 낙후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혁신사업과 지역균형 뉴딜을 연계하기 위한 넥스트유니콘챌린지를 추진하여 준정부기관 최초 2년 연속 국가균형발전 대상을 수상하였다.

중진공은 지역현안해결에도 적극 동참하였다. 본사이전지역인 경남지역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진공-지역청년-사회적기업-대학이 협력하여 무장애 지점 등을 발굴하고, 무장애 여행코스를 개발하는 디지털리빙랩을 추진하였으며, 활동성과물을 책자 및 앱으로 제작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였다. 그 결과 경남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



넥스트유니콘챌린지로 국가균형발전 대상 수상

디지털리빙랩 성과물 지역사회 환원

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사회 회복을 위하여 정책자금을 신속하게 확대 지원하였으며, 비대면 채용박람회 및 내일채움공제 연계지원으로 지역 내 일자리 현안을 해결하였다.

둘째, 지역사회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연수원 등 3개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였으며, 격리자 리프레쉬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코로나블루를 예방하였다. 또한 전국현장조직을 활용하여 마스크 14만장 배포, 방역물품 나눔, 자가격리자 비상식량세트 지원 등 지역사회의 위기 극복에 힘을 더하였다.

중진공은 재능·성금기부 등 다양한 맞춤형 사회가치 실현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특성화고 장학생 대상 중진공 멘토링을 운영하여 6명의 장학생을 지원하였으며, 임직원 월급 끝전떼기로 모은 기금과 임직원 반납급여를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등 나눔활동에 적극 동참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지역물품 및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코스메장터 등을 개최하여 지역사회와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다.



중진공 장학금 수여식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코스메장터 개최

셋째, 중소기업·소상공인·사회적경제기업 등과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여 '상생'에 일조하였다. 중증장애인생산물, 지역생산물 등 우선구매에 노력하였으며, 이전공공기관 최초 혁신시제품 테스트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술혁신제품 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본부 부서장·팀장이 직접 방문하여 진단과 연계지원을 실시하는 '중진GO' 프로그램을 통해 174개사에 347건 연계지원(정책자금·연수 등)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전사적인 지원에 적극 참여하였다.

모범적인 사회공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 지역 사회공헌 인정기관 자격을 2년 연속 획득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창원원시 '사회공헌 유공자 감사패', 대구광역시장 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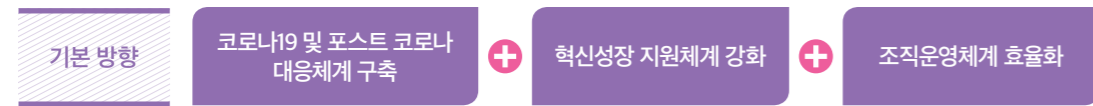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수상




조직 경영 효율성 강화

1. 중소기업 혁신성장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조직역량 집중

공공기관 시니어 인력 활용 중소기업 지원, 일시적 경영위기 중소기업들의 경영정상화 및 재기지원 등 신규 사업의 인력 소요 필요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32명을 증원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성과창출 등을 위해 ① 코로나19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체계 구축, ② 혁신성장 지원체계 강화, ③ 조직운영체계 효율화를 기본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추진방향	조직개편 내용
 코로나19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사적 대응을 위해 정책목적 중심 대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기능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빅데이터 기반 조사·연구기능 강화를 통한 디지털 신사업 개발 및 혁신전략 수립 등을 위해 디지털 총괄부서 편제 및 별도실 신설 * (현행) 혁신전략실 → (개편) 디지털혁신실, (신설) 정책연구실 신설 • (디지털 혁신)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사업 총괄을 위해 진단기술처를 '스마트진단기술처'로 확대 개편 • (지역산업 혁신) 규제자유특구지원 등 지역산업혁신 관련 신규사업 총괄을 위해 '지역산업성장처' 신설 • (사회안전망) 일시적 경영위기 중소기업들의 경영정상화 및 재기지원을 위해 본사 내 '구조개선센터' 신설
 혁신성장 지원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및 지역단위 성과창출을 위해 연계지원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별 역할 재정립)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실행력 강화를 위해 본부별 역할 명확화 * (관리지원) 기획, 경영관리, (사업) 혁신성장, 글로벌성장, 일자리, (사업집행) 기업지원 • (현장조직 역할 재정립) 사업집행력 제고, 사업간 연계지원 강화 등을 위해 현장조직간* 및 지역본부 내 하부조직 역할** 재정립 * 경영지원처의 지역본부 업무와 연계성 높은 업무를 지역본부로 이관하고, 리스크관리 및 지원업무 집중 ** 하부조직 : (일자리창출) 정책자금, 일자리총괄 + (사업지원팀) 대출, 사후관리, 재기지원 총괄 + (지역산업혁신팀) 지역혁신사업, 창업, 기술 총괄 + (수출협력팀) 수출·글로벌 총괄
 조직 운영체계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조직운영체계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중복업무 일원화) 민원·소송 등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 (전문성 강화) 일자리 사업 및 비대면 연수 확대 등에 따른 사업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업인력지원처 분할 개편 * (기업인력지원처) 인력양성 및 일자리 매칭, (기업인력연수처) 온·오프라인 연수 콘텐츠 기획개발 • (정책접근성 제고) 지역별 맞춤형 특화교육 및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지원 강화를 위해 총청연수원 및 KSC(스톡홀름, 싱가포르) 개소 • (인력배분 최적화) 신규사업 수행, 사업집행력 제고를 위해 본부·연수원 등 효율화 인력을 지역본·지부 우선 배치(54명)




2.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관 혁신

정부는 「2018년 공공기관장 워크숍」(18.8월, VIP참석)을 계기로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였다. 2020년에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사회적 가치의 확실한 성과 창출', '혁신성장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 '국민신뢰 제고'를 중점 혁신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중진공은 정부의 3대 혁신방향인 '사회적 가치의 확실한 성과 창출', '혁신성장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 '국민신뢰 제고'를 반영한 21대 혁신과제와 67개 세부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였다. 아울러 대내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경영혁신 전담반 운영, 혁신 워크숍 등을 통한 2020년 국민 참여형 혁신계획 수립으로 기재부로부터 혁신 10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한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직접판매 전문인력 양성(협업)', '온라인 수출기업 공동 물류서비스 도입(협업)', '빅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혁신)', '지역산업혁신 플랫폼(혁신)' 등 4년간 기관의 혁신·협업과제가 우수사례에 선정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경영혁신전담반」을 구성하여 디지털 혁신, 지역산업 혁신, 사회안전망 혁신 등 3대 혁신방향을 제시하고, 13개 중점과제를 추진하였다.

3대 혁신방향(13개 과제)		
 디지털 혁신	1. 정책자금 지원체계 비대면 방식으로 전면 개편 2. 스마트공장 도입·안정화 단계의 일괄지원체계 구축 3. 원클릭으로 하는 비대면 맞춤형 수출지원 4. 신산업·스마트러닝 중심의 디지털 인재 양성	
 지역산업 혁신	5. 규제자유특구 원스톱 지원으로 지역활력 제고 6. 이어달리기식 연계지원을 통한 지역 대표기업 육성 7. 청년기업 지역 이전 및 지역산업 육성으로 균형발전 촉진	
 사회안전망 혁신	8. 중소기업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9.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 확대 및 패스트트랙 지원 10. 일자리 매칭 확대 및 장기재직 지원강화	
혁신기반 조성		
고객 서비스 11. 빅데이터 기반의 고객서비스 혁신	조직 12.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인사 13. 전문역량 중심의 신인사제도 도입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설립 이래 최대규모인 6.29조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금·수출 등 정책서비스를 비대면화하고,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사업 추진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다.

특히 지역혁신사업 추진을 통해 2년 연속 국가균형발전대상(균형위)을 수상하였으며, 강원도 폐광지역으로 성장 유망한 청년창업기업을 이진하는 넥스트 유니콘 챌린지로 적극행정 포상(국무조정실)을 받았으며, 지역대학-사회적경제기업 협업 기반 디지털 리빙랩을 통한 지역사회 혁신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국가균형발전 대상 수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3.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 및 채용시스템 고도화

중진공은 중소기업 혁신성장 선도, 수출 활성화, 일자리 확대, 국민신뢰 향상 등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과 직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경제·사회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포스트코로나 미래를 적극 대비하고자, '경영혁신전담반' 운영(20.5~8월)을 통해 다양한 인사혁신과제를 발굴하였다. 이어서,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권역별 순회간담회 개최, 정책협의기구 논의, 개별 전화·이메일 등 의견수렴(20.9~10월)을 통해 「신인사제도」를 수립(20.11월)하였으며,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 반영(20.12월)을 통해 실행근거를 마련하였다.

「신인사제도」는 공정·투명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인사시스템 구현을 구현하기 위해 승진·전보·전문직위 등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대표적 인사혁신 사례로 시니어 전문인력을 '전문관'으로 선발·지정(3명)하였고 직원 자발적 참여와 부서장 책임경영을 강화한 '공모형 전문직위'를 신규도입(36명 선발·지정)하였다. 또한, 외부전문가 영입을 통해 금융사업역량과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고자 중진공 '중소투자 전문가' - 한국벤처투자 '엔젤투자 전문가' 간 인사교류를 시범 추진하였고 개방형 직위 확대(1→2명)를 통해 민간전문연구인력을 초빙하였다. 이외에도, 직무

수행·적극행정 우수자에 대한 특별승진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전보원칙을 '경력개발경로'와 '희망생활권역'을 최우선 고려하도록 개편하였다.

공공기관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대내·외 고용환경 변화 분석과 구직자와의 전방위 소통을 통해 신속·대규모 채용, 채용시스템 고도화, 사회형평적 채용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였다.

우선, 감염병 확산에 따른 채용일정 무기한 연기 또는 취소 등 채용한파에 대응하여, AI면접 도입(청년인턴, 37명)과 지역사회 협조를 통한 방역체계 구축(정규직, 52명)을 통해 채용절차를 신속 재개하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최초로 상반기 내 채용을 완료하였다. 또한, 청년·장애인 인턴(45명), 정규직(107명), 디지털 청년인력(200명), 지역대학생 현장실습(19명), 육아휴직 대체채용(50명) 등 다양한 공공일 자리를 개발하고 대규모로 채용(421명)하여 역대 최대 규모(정원의 25%)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의 제약을 극복하고 지역간 채용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온라인·모바일 채용홍보를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지방인재 입사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22%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구직자의 취업준비 인프라 향상과 취업역량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 입사지원자 8,549명 대상 AI역량분석 결과를 피드백하고 AI모의면접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약자 배려를 위해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였다. 먼저, 지역선도대학에 참여하여 경상대 등 6개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강좌 개설(7회 332명 수료) 및 본사·지역본부 현장실습(2회 19명 실습) 등 지역인재 육성에 적극 나섰으며, 이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목표(24%)를 달성하였다. 또한, 장애유형별·수준별 적합직무 개발과 장애직원 담당 팀장·실무자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 고용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이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로 장애인을 채용(16명)하였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년층 활용 확대라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재기지원 전문위원' 직무를 신설하고 시니어 인력으로 채용(2명)하였다.

4. 전문인재 중점 육성

중진공은 기관의 전문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성 및 성과 중심의 교육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HRD 목표로 설정하였다. 교육을 통해 현업수행능력 강화와 조직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대내외 환경분석을 실시하고 전 직원의 니즈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간 HRD 중점과제를 도출하여 운영하였다.

먼저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해 온·오프라인 융합형태의 역량별 맞춤 교육방식을 적용하여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교육이 축소되어 교육시간은 전년 대비 15.2%가 감소하였으나 우수콘텐츠를 활용한 스마트러닝과 소규모 학습조직을 운영하여 자율적 학습기회 제공을 확대하였다.

2020년 연간 교육실적

(단위 : 시간)

총 교육실적	직무역량	리더역량	공통역량
2020년 112,397	2020년 41,218	2020년 15,529	2020년 55,650

분야별 역량 중 직무역량의 경우 포스트코로나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현안 해결을 위해 자발적 CoP제도를 개편하여 학습활동 외 운영리더교육, 그룹코칭, 공개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등 31건의 조직현안을 해결하였다. 또한, 디지털-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사내직무 및 계층별 디지털전환 과정을 신설하고, 외부교육 지원 확대와 전사적 최신트렌드 공유를 위한 '중진공 Insight주간'을 운영하였다.



조직현안 해결을 위한 CoP활동



중진공 Insight주간

리더십역량은 직급별 리더십 교육과정을 신설·개편하여 리더십체계를 보완하였다. 여성의 경우 사내 멘토링제도를 신설하여 실질적 경력개발 지도와 성장로드맵 수립을 지원하였고, 여성가족부의 '성별균형 포용성장 위한 컨설팅'을 통한 조직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공무원 역량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한 부서장 후보 역량강화 교육 신설로 핵심인재 양성을 지원하였다. 준비된 리더 양성을 위해 승진대상자에게 플립러닝 방식의 리더십교육을 운영하여 교육 효과성을 강화하였다.

공통역량은 법정 의무교육인 폭력예방, 정보보안, S/W저작권, 부패방지, 스마트폰과중독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통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정부 정책에 따른 안전, 인권, 지속경영교육을 운영하였다. 또한, 스마트러닝 및 마이크로러닝 교육을 확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위와 같이 환경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교육제도를 지원하여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기관 전문역량을 제고 할 수 있었다. 그에 대한 성과로 교육만족도 4.85점(5점만점), 현업적응도 4.47점(5점만점)을 달성하였다.

5. 기관의 경영전략과 정부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기관의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목표를 기반으로 선정된 24개 전략과제를 부서경영평가 및 개인성과 평가 KPI와 연계하여 효과적인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지표 선정 및 평가 전 과정에 직원 참여를 확대하여 타당성 높은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만족도를 개선하였다.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사회적 가치 등 핵심성과 위주로 성과지표체계를 개선하여 기관의 핵심성과 및 주요 정부정책 실행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핵심사업 성과중심으로 지역본지부 평가지표를 정비·간소화(13.1%)하여 핵심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기관의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해 중진공형 K-예비유니콘 기업 육성 관리지표를 신규 운영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을 위해 데이터경제 활성화 건수를 사업직군에 공통지표로 신설하였으며 사회적 가치 창출 지표를 9등급 상대 평가로 전환하여 기관의 사회적가치 창출 이행 동력을 강화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기관의 코로나 대응 제고를 위해 전 직군에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지표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지표별로 코로나 민감도를 분석하고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11.5%의 코로나19 관련 성과지표를 운영하였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시기와 연간 부서경영평가 평가단 운영 시기가 맞물림에 따라, 기존의 대면 평가를 화상회의시스템을 적용한 비대면 평가로 전환하여 집합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한 부서평가를 운영하였으며, 부서평가단 선정 시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평가단을 확대(5명→13명) 운영하여 부서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계량실적에 대한 이익제기 제도 운영을 통해 평가오류를 차단하고 결과 수용도를 전년 대비 향상(4.09점→4.13점)시켰다.

개인성과평가는 정부의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서장-팀장-팀원 성과지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였다. 한국판 뉴딜에 부응한 'K-예비유니콘 발굴·지원'과 상생협력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맞춤형 특화과제'를 부서장 핵심과제에 우선 반영하고, 팀장은 부서장 핵심과제와 연계한 과제를 공통과제로 운영하여 혁신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를 제고하였다. 그리고 성과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개인KPI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지표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인성과평가를 위해 부서장 핵심과제 평가단 선정 시 외부평가단을 신규 도입하였다.(내부평가단 6명→외부평가단 2명, 내부평가단 4명) 그리고 평가결과 AUDIT, 이익제기 제도를 통해 불공정한 평가오류를 차단하고 결과 수용도를 제고(3.67점→3.72점)하였으며, 평가자 제척제도를 운영하여 모든 직원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6. 소통과 공감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구축

2020년 중진공은 신뢰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정립 요구에 맞추어, 전략방향을 “인재상 PRO”에서 “PRO팀 같은 조직”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조직문화지수를 개발하는 등 조직문화 체계를 강화하였다.

목표	먼저 열고 서로 믿고 함께 하는 프로팀				
추진원칙 (5R)	Re-devotion 가치있는 헌신	Respect 상호존중	Result 성과중심	Reward 공정한 보상	Reboot 성장의 일상화
중점 전략	P 전문성 Professional	R 상호존중 Respect	O 일가정 양립 O'clock		
실행 과제	①성과중심 경진대회 운영 -4대 경진대회, 중진공인 ②조직몰입도 향상 -인재상(PRO) 내재화 -중간관리자 육성	③윤리인권 문화 확산 -상호존중의날 지정-운영 ④직원간 소통 강화 -CEO, 임원 소통 강화 -지피지기 워크숍 등	⑤일가정 양립지원 활동 -PC OFF, 유연근무 등 ⑥즐거움 직장 만들기 -힐링프로그램·문화교실 등 -불편문화 캠페인 활동		

첫째, '상호존중의 날'을 도입하여 조직 내 상호존중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훌륭한 리더와 팔로워 설문조사, 상사 갑질 근절 행위 캠페인을 운영하여 임직원의 조직문화 인식을 제고하였다. 특히, 윤리경영의 날(6.2)을 맞아 갑질예방 콘텐츠 시청 및 이사장과 직원참여 토론 등 윤리·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부서 및 직원 간 소통활성화를 위하여 '부서 간 소통데이'와 '부서 내 지피지기 워크숍'을 운영하였으며(총 12회),



소통활성화를 위한 90년대생 간담회

소통활성화를 위한 '부서 간 소통데이'와 '부서 내 지피지기 워크숍'

조직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갑질방지시스템과 리더팔로워 설문조사



이외에도 여성리더, 90년생, 3급, 4급 등 다양한 계층·계급 직원 대상 간담회 및 소통행사를 통해 상호이해의 장을 마련하였다.

둘째, 일가정 양립의 문화 정착을 위하여 연차휴가 및 근로시간 저축휴가 소진율을 부서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독려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직원 피해 및 업무효율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아울러, 전 직원 스트레스 진단(MSS)을 통해 개인 및 조직의 현황을 파악하고, 탈진 위험 및 낮은 만족도 직원에게 1:1 전문상담을 추천하는 등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 조직문화지수 : 추진 원칙(5R), 지향가치 (PRO), 리더십역할에 대한 중진공 조직문화 수준을 측정하는 고유 진단지표(7점 척도)

변화와 소통 중심의 활동을 통해 상호 신뢰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켰고, 동시에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10년 연속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여성가족부), 조직문화지수* 목표치 초과 달성(목표 : 5.27점, 달성 : 5.36점)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셋째,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경진대회 및 포상제도를 개편하여 운영하였다. 기관의 중점추진 사항을 반영한 4대 분야 경진대회를 운영하였고, 외부평가위원 및 국민평가단을 포함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인사과 점, 중기부 장관표창 등 비금전적 포상을 강화함으로써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올해의 중진공인 우수사례 8건 선별)시켰다. 또한, 부서별 학습조직을 운영을 통해 성장의 일상화를 지원하여 직원들의 업무역량 제고를 추진하였다.



중진공인 경진대회 개최

K

S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 Annual Report 2020

S

M

E

05

2021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추진 방향

- 2021년 사업추진 방향



2021년 사업추진 방향

2021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①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촉진, ②현장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 구현, ③공공성 강화로 사회적 가치 실현, ④경영혁신으로 국민 신뢰 제고를 중점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정부정책을 최일선 현장에서 수행하는 윈스톱 종합지원 기관으로서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한국판 뉴딜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1) 정책자금 투·융자

가.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성장동력 확보

(중소 생산·업무 디지털화) 자동화 생산설비, 원격 근무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비대면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자금 8,000억 원을 공급한다. 또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지원 등을 위해 디지털분야 전용자금인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5,000억 원→6,000억 원, 1,000억 원)한다.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그린기술 사업화, 환경·저탄소 생산설비 도입,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시설도입 등의 비용 지원을 위해 '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을 신규로 공급(200억)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산업, 녹색기술 인증기업, 그린뉴딜 관련 품목 등 그린 분야에 정책자금 5,800억 원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주력산업 및 규제자유특구 대상기업 지원) 지역주력산업(48개) 영위 기업 또는 규제자유특구(24개) 기업을 대상으로 5,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지역혁신기관이 협력하여 지역별 대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관련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나. 수요자 중심의 정책자금 운용

(관계형 금융 도입 및 비대면 지원체계 구축)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공공데이터(재무, 고용, 수출 등)를 활용한 비대면 서류 심사로 정책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AI 비대면 평가를 도입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정책자금 접근성을 증대한다. 아울러, 고객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담부터 대출약정까지 디지털·비대면 방식으로 전환(시가반 챗봇으로 상담 → 모바일 브랜치를 이용한 신청 → 비대면 평가 → 전자약정)할 계획이다.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융자·상환기준 완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 기조에 따라 유동성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확대 공급('20년 당초 1,000억 원 → '21년 5,000억 원, 4,000억 원)하며, 자금조달 취약기업의 정책자금 활용기회 확대 및 대출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융자·상환기준을 완화(코로나19 피해 특별 만기연장 1년, 상환유예 9개월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 예산을 확대('20년 600억 원 → '21년 800억 원, 200억 원)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서비스를 적용하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는 대출금 만기연장시 가산금리를 미적용하여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2) 수출지원 및 글로벌화

가. 수출기업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수요자 중심 자금지원) 내수기업 수출사업화 및 수출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예산을 확대('20년 당초 2,000억 원 → '21년 5,000억 원, 3,000억 원)하여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하고,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촉진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 수출기업(1,500억 원), 수출다각화기업(500억 원), 디지털수출기업(300억 원), 브랜드K 인증기업(200억 원) 등을 위한 전용자금도 운영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사업 내실화) 수출의 핵심지원사업인 수출바우처 사업내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사업 내실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4차 산업분야, K-바이오기업 등 혁신성장분야 영위업종을 중점 지원하여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견인함과 동시에 위험관리시스템, 서비스 후기 등록제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제도 보완으로 수행서비스 품질 및 고객만족도를 제고한다.

나. 국내외 온·오프라인 수출지원을 통한 성과 창출

(온·오프라인 수출지원) 기업 니즈에 따른 온·오프라인(O2O) 융합방식(On : 고비즈코리아, 브랜드K 플래그십 스토어 + Off : 수출바우처, 수출BI 등)의 수출지원(1,704억 원)을 통해 수출 성과창출을 극대화한다. 또한, 지역주력산업의 해외 시장개척을 위한 수출현지화 지원(바이오헬스 제품현지화 등) 및 특성화사업(글로벌 유통망 입점지원 등)을 추진(60개 사)할 계획이다.

(온라인수출 활성화) 온라인수출플랫폼(고비즈코리아)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 간 자동 매칭 및 온라인전시회를 통한 상시 제품 홍보 등의 서비스를 2,000개사에게 제공한다. 특히, 북미·중국 등 선진시장에는 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티몰) 등 글로벌 플랫폼 입점을 통해 제품 판촉을 강화하고, 러시아·터키 등 신흥지역에는 현지 유력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온라인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온라인 수출성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3) 인력육성

가. 혁신성장 선도인력 양성 및 중소벤처기업 취업 지원 강화

(신산업 및 소·부·장 분야 교육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소·부·장 분야(2개), 인공지능(AI) 분야(3개) 계약학과를 신설한다. 또한, 신산업분야(스마트공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스마트물류, 인공지능 등) 교육 확대를 위해 기업·학교 수요를 반영한 공통 교재를 개발하여 스마트공장 거점학교 등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디지털 취업매칭) 채용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 기반 AI 면접시스템(15만개의 면접질문 DB)을 활용하여 구직자 및 구인기업의 비용·시간을 절감하고, 면접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부족을 해소한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취업컨설팅을 통해 구직자를 발굴하고 테마별 온택트 채용박람회 운영으로 구직자·구인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매칭의 장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 중심의 일자리 지원을 중년·신중년으로 확대 운영하여 쉰 연령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산업·스마트러닝 중심 디지털 및 지역혁신인재 양성) D.N.A(Data, Network, AI) 중심 스마트인재를 양성(12,000명)하고, 규제자유특구별 교육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연수 운영으로 지역혁신인재 양성(500명)한다. 아울러, 최신 기술·경영 트렌드를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모바일 마이크로러닝(‘20년 180개→’21년 300개) 콘텐츠 및 신산업 중심의 신규 이러닝 콘텐츠(5개 분야, 15개 과정)를 확대할 계획이다.

나. 근로자 복지 향상 및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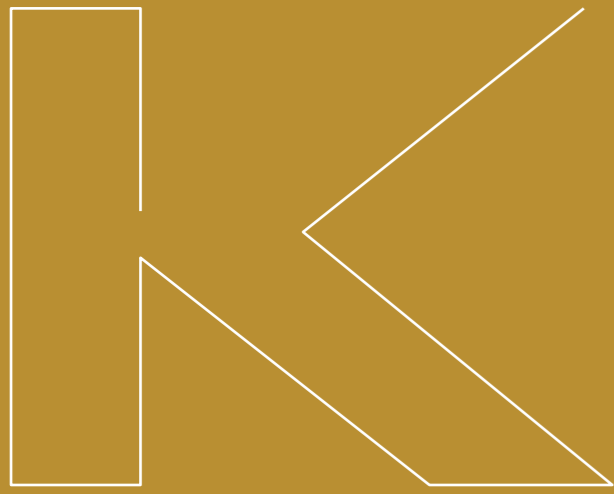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기업납입금 지원을 위한 공기업, 대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 위탁판매기관 및 수행기관 추가를 통한 외부 가입창구 확대 등으로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활성화하여 대·중소벤처기업 간 임금격차 축소와 핵심 인력 고용유지를 견인한다. 또한, 내일채움공제기금 운용 수익의 일부를 근로자 교육·복지서비스(연수원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직무교육, 온라인복지물, 단체상해보험 등)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근로여건 향상을 지원한다.

(성과공유기업 확산)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에 정책자금(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정부지원사업(일자리)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성과공유 인지도 제고와 도입 유도를 위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전파하는 등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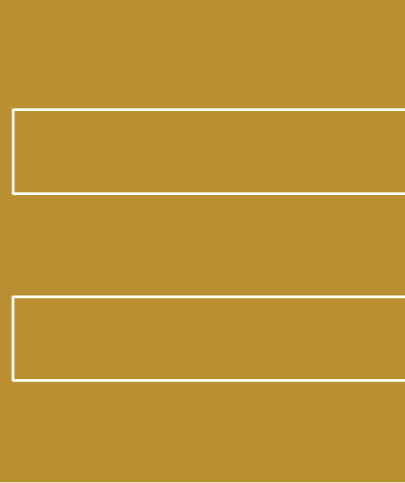
다.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패키지형 창업사업화 지원) 청년창업활성화라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목적과 증진공 강점을 고려하여, 창업취약분야인 “청년”과 “제조융복합 창업”을 중심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을 차별화한다. 또한, 지역균형 뉴딜 선도를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별 지역주력산업 선발비중을 확대(‘20년 41.5% → ’21년 54.4%)하고, 청년창업기업이 지역형 예비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Scale-Up 후속연계지원을 제공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지원 분야를 인공지능(AI)에서 D.N.A(Data, Network, AI)분야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거점 온라인 코칭을 확대하고, 글로벌 플랫폼(UN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 슬러시 등 세계 유명 스타트업 컨퍼런스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 Annual Report 2020



부록

- 결산 재무제표
- 조직도
- 운영위원 및 임원
- 출자회사 현황
-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결산 재무제표

2020년 요약 재정상태표

제 42(당)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41(전)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단위 : 원)

과 목	제 42(당) 기	제 41(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2,655,125,622,479	2,575,497,998,231
현금및현금성자산	40,732,893,860	60,208,389,481
단기금융상품	17,450,714,911	-
미수채권	12,023,148,630	11,379,246,384
미수채권대손충당금	(795,238,991)	(783,869,194)
단기대여금	2,749,905,240,334	2,701,380,603,933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209,871,778,799)	(238,458,756,211)
단기용자보조원가충당금	-	(39,640,866)
기타유동자산	45,680,642,534	41,812,024,704
II. 투자자산	19,972,189,145,942	16,192,563,551,440
장기투자증권	4,444,173,770,114	3,415,038,070,326
장기대여금	16,653,046,928,650	13,872,328,849,092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1,142,761,459,299)	(1,106,840,021,656)
기타투자자산	17,729,906,477	12,036,653,678
III. 일반유형자산	309,324,724,771	270,377,143,632
토지	146,409,080,319	115,771,249,999
건물	164,390,031,193	166,279,217,894
건물감가상각누계액	(39,722,144,450)	(35,864,121,192)
건축물	4,145,349,289	3,419,078,039
건축물감가상각누계액	(606,157,181)	(518,256,630)
기계장치	16,551,807,622	17,907,277,965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15,518,319,574)	(16,025,942,858)
집기·비품·차량운반구	28,263,506,986	25,749,561,213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22,240,213,083)	(19,255,856,148)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27,651,783,650	12,914,935,350

과 목	제 42(당) 기	제 41(전) 기
IV. 무형자산	10,100,672,088	10,162,632,208
소프트웨어	10,100,672,088	10,162,632,208
V. 기타비유동자산	23,075,256,867	24,195,184,562
장기미수채권	5,395,455,967	6,333,656,330
장기미수채권대손충당금	(5,343,449,940)	(5,343,449,940)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23,023,250,840	23,204,978,172
자 산 계	22,969,815,422,147	19,072,796,510,073
부 채		
I. 유동부채	3,714,242,216,976	3,639,453,302,629
유동성장기차입부채	3,651,286,651,550	3,579,820,650,384
기타유동부채	62,955,565,426	59,632,652,245
II. 장기차입부채	15,674,222,641,419	12,616,297,866,331
공채	13,850,520,073,884	10,793,249,915,229
공채할증(할인)발행차금	(6,297,432,465)	(6,952,048,898)
장기차입금	1,830,000,000,000	1,830,000,000,000
III. 장기충당부채	22,843,253,775	20,639,230,983
퇴직급여충당부채	22,387,792,441	20,639,230,983
소송충당부채	455,461,334	-
IV. 기타비유동부채	87,258,304,489	56,368,138,448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87,258,304,489	56,368,138,448
부 채 계	19,498,566,416,659	16,332,758,538,391
순 자 산		
I. 기본순자산	2,057,116,880,141	2,057,116,880,141
II. 적립금 및 잉여금	1,207,778,299,267	513,003,263,904
III. 순자산조정	206,353,826,080	169,917,827,637
순 자 산 계	3,471,249,005,488	2,740,037,971,682
부 채 와 순 자 산 계	22,969,815,422,147	19,072,796,510,073

2020년 요약 재정운영표

제 42(당)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41(전)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단위 : 원)

과 목	제 42(당) 기			제 41(전) 기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I. 프로그램순원가	1,147,533,987,275	(403,410,915,238)	744,123,072,037	1,278,864,668,326	(504,055,833,391)	774,808,834,935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391,609,459,532	(200,477,572,559)	191,131,886,973	403,878,390,622	(221,380,297,801)	182,498,092,82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11,817,409,491	-	11,817,409,491	9,752,086,026	-	9,752,086,026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34,818,936,609	(1,208,027,347)	33,610,909,262	30,575,062,464	(1,325,468,141)	29,249,594,323
창업환경조성	663,442,950,285	(198,316,336,930)	465,126,613,355	786,342,022,513	(273,378,210,003)	512,963,812,51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2,516,257,547	(1,455,178,539)	1,061,079,008	2,495,631,996	(1,476,245,245)	1,019,386,751
중소기업인력지원	40,198,774,752	(1,769,662,064)	38,429,112,688	41,887,171,031	(6,222,274,583)	35,664,896,448
중소기업육성지원	3,130,199,059	(184,137,799)	2,946,061,260	3,934,303,674	(273,337,618)	3,660,966,056
II. 관리운영비			37,599,764,476			35,407,174,329
인건비			26,286,130,110			25,440,043,903
경비			11,313,634,366			9,967,130,426
복리후생비			2,233,484,755			2,115,458,801
소모품비			629,451,888			389,320,660
인쇄비			75,711,345			68,766,627
광고선전비			119,810,821			124,477,981
지급수수료			2,559,357,915			1,921,670,147
세금과공과			684,297,208			653,839,946
수도광열비			83,959,506			81,474,878
지급보험료			74,771,763			62,978,588
교육훈련비			241,898,764			218,042,578
지급임차료			1,447,296,196			1,184,091,659
유류비			17,050,052			17,470,489
수선유지비			141,281,048			49,680,617

과 목	제 42(당) 기			제 41(전) 기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여비교통비			493,780,366			582,289,114
업무추진비			224,634,046			236,456,998
감가상각비			2,286,848,693			2,259,830,508
자산처분손실			-			762,875
기타비용			-			517,960
III. 비배분비용			34,237,992,276			36,467,338,269
대손상각비			11,369,797			1,914,376,803
이자비용			33,504,510,373			33,962,338,476
평가손실			105,596,926			590,591,672
자산감액손실			10,336,549			-
자산처분손실			605,416,439			-
기타비용			762,192			31,318
IV. 비배분수익			(34,145,516,639)			(19,745,913,058)
재화및용역제공수익			(27,363,212,371)			(12,213,570,804)
이자수익			(4,404,361,876)			(4,528,670,171)
평가이익			(105,653,072)			(590,591,672)
자산처분이익			(13,298,643)			(32,855,399)
기타수익			(2,258,990,677)			(2,380,225,012)
V. 재정운영순원가 (I+II+III+IV)			781,815,312,150			826,937,434,475
VI. 비교환수익 등			(515,306,347,513)			(585,536,049,731)
제재금수익			(1,771,904,270)			(2,551,199,035)
기타재원조달및이전			(513,534,443,243)			(582,984,850,696)
VII. 재정운영결과(V+VI)			266,508,964,637			241,401,384,744

2020년 요약 순자산변동표

제 42(당)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41(전)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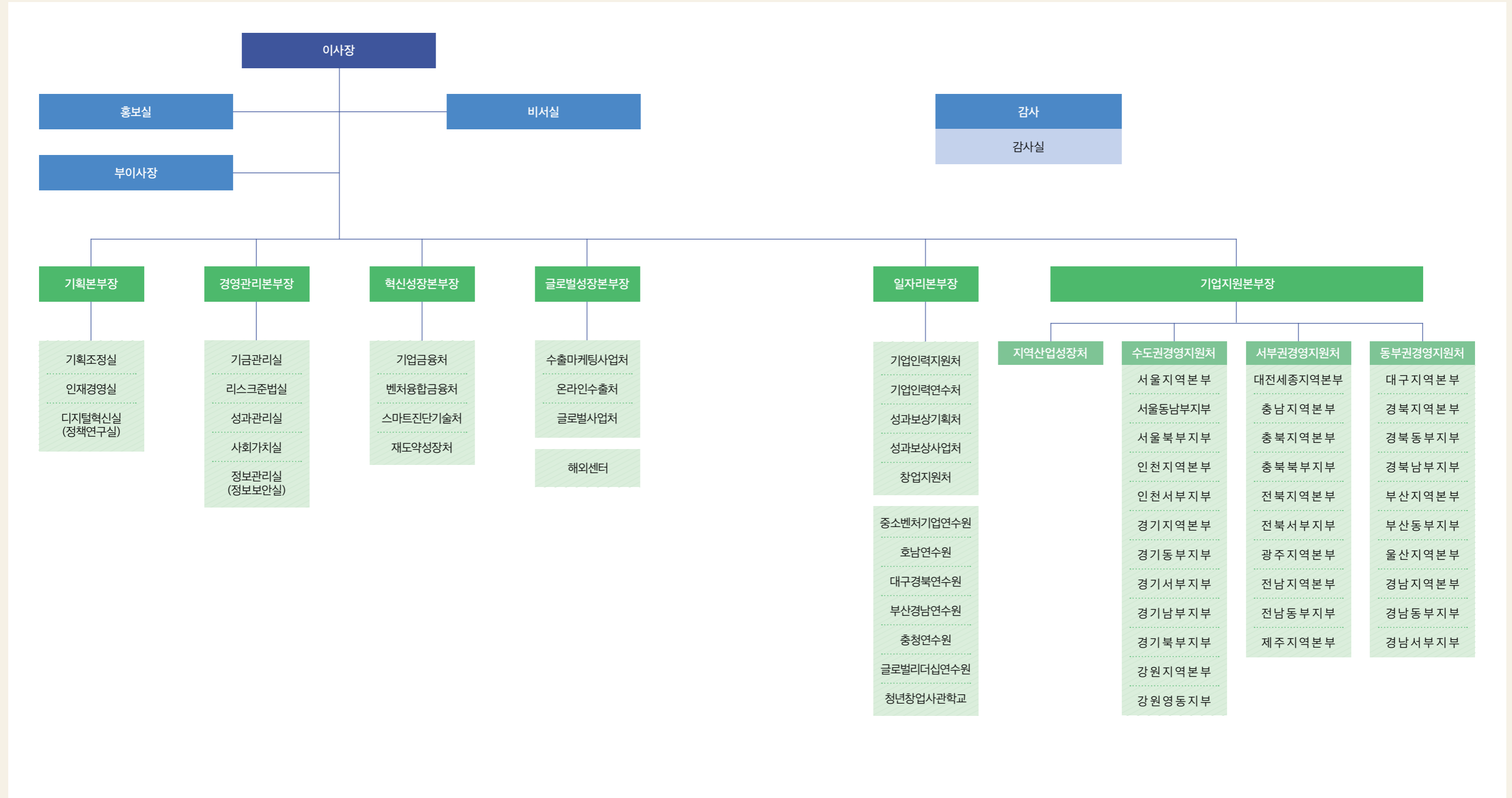
과 목	제42(당)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총 계
I. 기초순자산	2,057,116,880,141	513,003,263,904	169,917,827,637	2,740,037,971,682
보고금액	2,057,116,880,141	513,003,263,904	169,917,827,637	2,740,037,971,682
II. 재정운영결과	-	(266,508,964,637)	-	(266,508,964,637)
III. 조정항목	-	961,284,000,000	36,435,998,443	997,719,998,443
투자증권평가손익	-	-	284,156,300	284,156,300
파생상품평가손익	-	-	6,324,932,590	6,324,932,590
자산재평가이익	-	-	29,826,909,553	29,826,909,553
기타순자산의 증가	-	961,284,000,000	-	961,284,000,000
IV. 기말순자산(I+II+III)	2,057,116,880,141	1,207,778,299,267	206,353,826,080	3,471,249,005,488

과 목	제41(전)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총 계
I. 기초순자산	2,057,116,880,141	454,155,648,648	137,892,079,382	2,649,164,608,171
보고금액	2,057,116,880,141	454,155,648,648	137,892,079,382	2,649,164,608,171
II. 재정운영결과	-	(241,401,384,744)	-	(241,401,384,744)
III. 조정항목	-	300,249,000,000	32,025,748,255	332,274,748,255
투자증권평가손익	-	-	12,831,792,432	12,831,792,432
파생상품평가손익	-	-	7,041,087,316	7,041,087,316
자산재평가이익	-	-	12,152,868,507	12,152,868,507
기타순자산의 증가	-	300,249,000,000	-	300,249,000,000
IV. 기말순자산(I+II+III)	2,057,116,880,141	513,003,263,904	169,917,827,637	2,740,037,971,682

조직도

6본부 11실, 16처, 32지역본·지부, 6연수원, 1학교, 1해외센터

(2021년 1월 기준)



운영위원 및 임원

(2021년 7월 기준)

운영위원 			
구분	성명	소속기관	직위
위원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연직	임기근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서승원	중소벤처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위촉직	김영주	IBK중소벤처기업은행	부행장
	김봉환	서울대학교	교수
	김분희	(사)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김성노	BNK투자증권	센터장
	김영태	KAIST	교수
	류정원	(주)힐세리온	대표이사
	박정배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임원 		
직위	직무	성명
이사장	중진공 업무 총괄	김학도 
감사	중진공의 업무 및 회계 감사	곽성근 
부이사장 겸 기획본부장 겸 글로벌성장본부장	이사장 업무대행 또는 보좌, 예산, 조직, 인사, 경영전략 및 조직혁신 등과 관련된 업무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확대, 마케팅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	이성희 
경영관리본부장	기금관리, 조직문화, 평가, 정보보안 등과 관련된 업무	김병수 
혁신성장본부장	정책자금 융자, 기업진단 등과 관련된 업무	최학수 
일자리본부장	연수, 성과보상기금, 창업·기술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	우영환 
기업지원본부장	지역분·지부 운영, 사업집행 관리·조정 및 평가 업무	정진우 

비상임이사

직무	중진공 경영 의사결정 참여, 경영활동 감시 및 자문 등의 업무
성명	김대곤, 정송이, 최영기, 최정현, 허정, 허정현, 권영학, 이형신

출자회사 현황

(주)중소벤처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유통센터는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중소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의 설립)」에 의거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21일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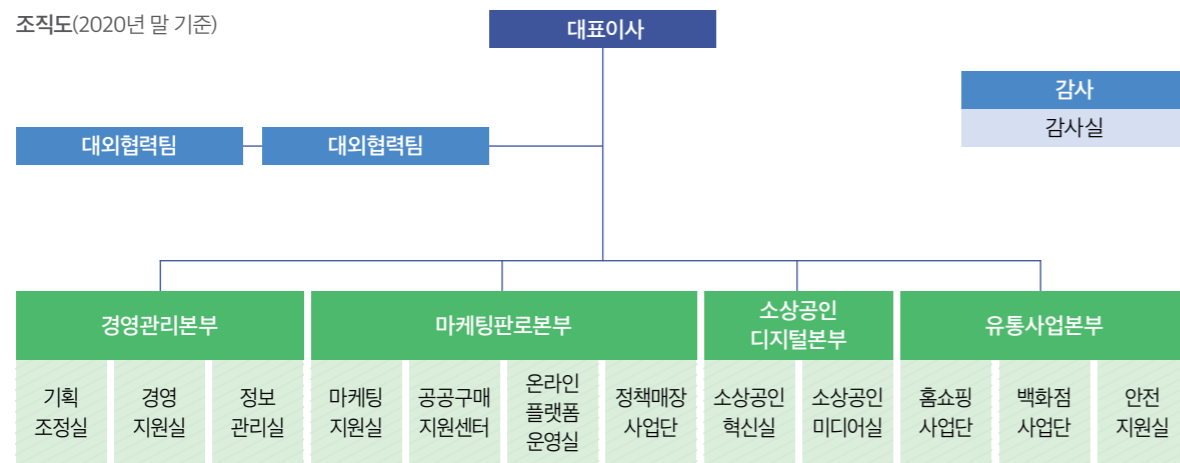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1999년 12월 3일 목동판매장을 개점하여, 2012년 9월에는 '행복한백화점'으로 이름을 변경하였으며, 현재까지 창업벤처제품, 청년창업사관학교 제품 등의 초기 테스트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10월에는 창조혁신제품의 '유통 마중물' 역할의 확대를 위해 4층 중소기업전용판매장을 「아임쇼핑」으로 개편하였다. 중소기업전용판매장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여 소비자가 우수 중소기업제품 사용을 더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판매성과 제고를 위해 면세점 위주의 매장 개편도 실시하는 등 '20년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인 '아임쇼핑 정책매장' 총 11개 운영을 통해 1,612개사 판매·홍보지원으로 약 47억 원의 매출성과를 달성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채널 확대를 위해 2012년에 중소기업전용홍쇼핑인 (주)홍쇼핑 설립하여 주요주주(지분 15%)로도 참여하고 있다. 2015년 3월에는 농산물 판로확대, 창의·혁신상품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 해소, 불공정거래 개선 등을 위해 농협경제지주와 수협중앙회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주)공영홍쇼핑을 설립하고 최대주주(지분 50%)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방송판매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내수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추진하였으며, 온라인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가치샵사다 플랫폼 런칭, 라이브커머스 운영을 신규 추진하였다. 그 밖에도 마케팅역량강화지원, 유통망진출지원, 중소기업공동A/S지원 등 중소기업의 판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공동브랜드개발 및 육성(브랜드K)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온오프라인 판로지원사업을 통해 2020년도에는 27,233개 중소기업에 4,843억 원 규모의 판매를 지원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조직도(2020년 말 기준)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관리·운영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3월 31일 개소하였다.

중소벤처기업투자모태조합은 2020년 12월 말 기준 5조 8,482억 원이 조성(중기부 포함 10개 부처 참여)되었고, 이를 모태조합에 출자하여, 누적 총 881개, 28조 4,475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운영 중으로 출자금 대비 4.9배의 승수효과를 달성하였다.

그 밖에 한국벤처투자는 유니콘 성장 지원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중진공-KVIC-기보-벤처캐피탈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투자자를 연결하도록 영상 IR을 진행했고 비대면으로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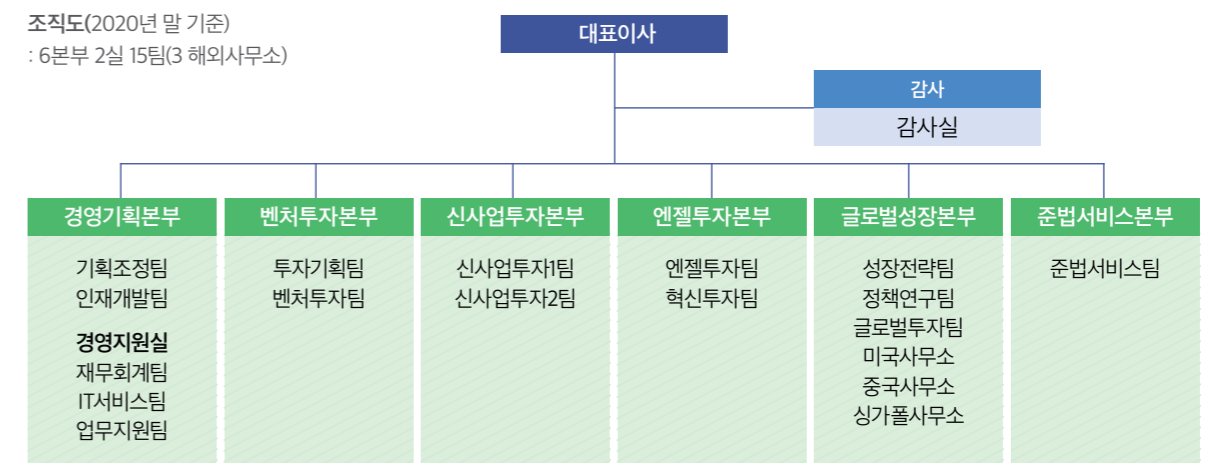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투자유치 경험이 없는 초기 기업을 위해 벤처투자유치를 다루는 영상콘텐츠 및 투자유치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주요업무

- 중소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에 대한 출자
- 중소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 중소벤처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조직도(2020년 말 기준)

: 6본부 2실 15팀(3 해외사무소)



(주)SBC인증원

인증관련 사업추진 위촉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95년 7월 28일 중진공 자회사 ISO9000 인증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품질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SBC인증원은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22001(식품안전 경영시스템), TL9000(정보통신분야 품질경영시스템), ISO45001(안전보건 경영시스템), ISO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등의 인증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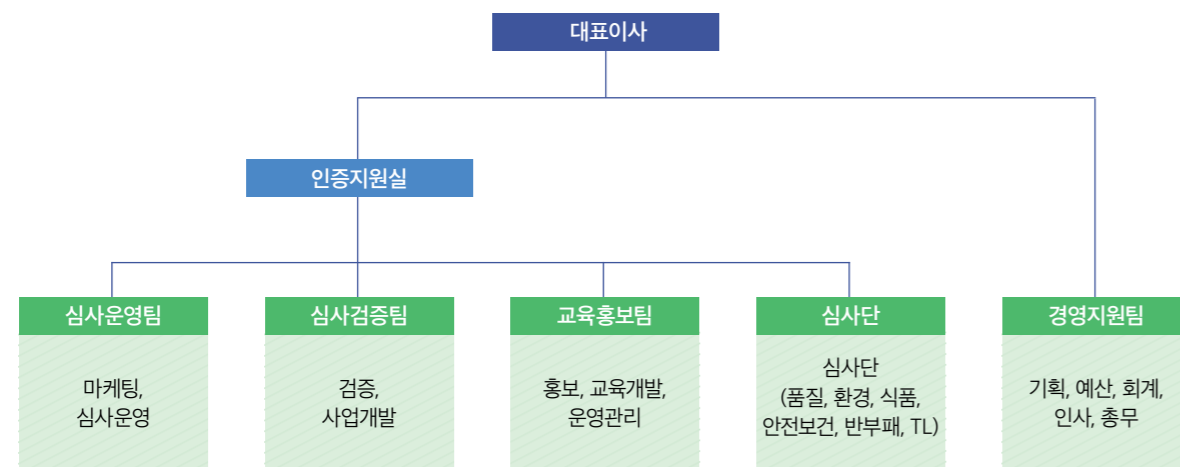
- ISO(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9001/14001/22001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는 품질경영체제(9001), 환경경영체제(14001), 식품안전경영체제(22001) 규격, 안전보건경영체제(45001) 규격, 부패방지경영체제(37001) 규격
- TL9000(Telecommunication Leadership 9000) : 정보통신업계의 품질보증 규격

사업실적

(단위 : 건, 백만 원)

구분	인증건수	매출액	당기순이익
2018년	805	4,704	50
2019년	810	2,319	53
2020년	878	2,348	122

조직도(2020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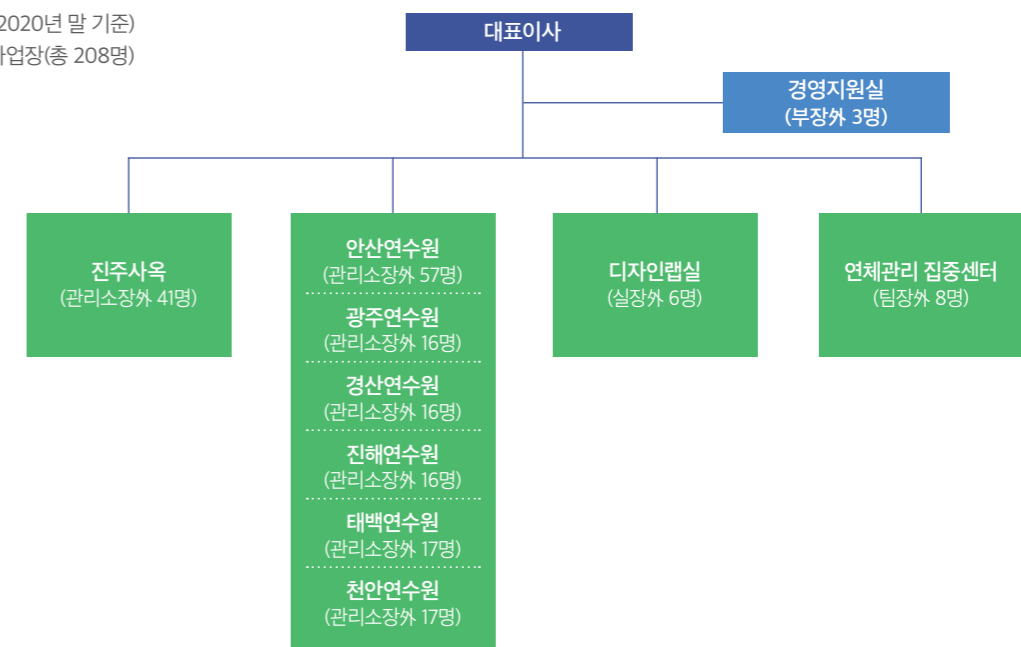
중진공파트너스(주)

중진공파트너스(주)는 2017.7.20.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중진공 내 시설관리 등 일반용역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고, 중진공 자산(설비)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목적으로 2018.6.15. 설립되었다.

주요업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및 연수원(6개) 시설관리, 경비, 미화, 사감, 기타용역 업무
-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디자인랩실 위탁 운영 업무
- 연체관리 집중센터(콜센터) 운영 용역 업무

조직도(2020년 말 기준)
: 1실 9사업장(총 208명)



부문별 담당부서 및 집필자

부문	대목차	소목차	담당부서	집필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개요	설립목적 및역할	-	정책연구실	이지현
	연혁			
	중진공 비전·전략체계	-		
	중진공 주요 사업	-		
	2020 한눈으로 보는 중진공	-		
	2020 중진공이 걸어온 길	-	정책연구실, 기획조정실, 홍보실	이지현, 황보람, 채준기
2020년 경제동향과 중소벤처기업 동향	경제동향	-	정책연구실	이지현
	중소벤처기업동향	-		
2020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사업추진성과	총괄	-	각부서	이지현, 이병용, 우철, 이연우, 유혜영, 강은혜
	기업진단	1.사업개요	스마트진단기술처	권오준, 이승아
		2.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권오준, 이승아
	정책자금 융자	1.사업개요	기업금융처	이병용
		2.주요추진실적 및 성과	기업금융처	이병용
		3.세부사업 추진실적	-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기업금융처, 창업지원처, 스마트진단기술처	이병용, 김보준, 허승희
		신성장기반자금	기업금융처	이병용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업금융처	이병용
		투융자복합금융자금	벤처융합금융처	권복현
		모태조합 출자	벤처융합금융처	천민주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수출마케팅사업처	이승준
		재도약지원자금	재도약성장처	최성희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재도약성장처	최성희	

부문	대목차	소목차	담당부서	집필자		
글로벌화 및 수출마케팅 지원		1.사업개요	수출마케팅사업처	우철		
		2.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수출마케팅사업처	우철		
		3.세부사업 추진실적	-	-		
		수출바우처사업	수출마케팅사업처	정광조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수출마케팅사업처	고아영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	수출마케팅사업처	김민선		
		온라인수출지원	온라인수출처	조홍래		
		전자상거래활용 수출사업	온라인수출처	서상교		
		수출인큐베이터사업	글로벌사업처	문재성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사업	글로벌사업처	허병욱		
		글로벌협력기반구축사업	글로벌사업처	편정현		
		해외지사화사업	글로벌사업처	구태근		
		해외기술교류사업	글로벌사업처	한강희		
		인력양성		1.사업개요	기업인력지원처	이연우, 유혜영
				2.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기업인력지원처	이연우, 유혜영
				3.세부사업 추진실적	-	-
연수사업	기업인력연수처			김경아		
총청연수원 건립	기업인력연수처			김경아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성과공유	기업인력지원처			김태훈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기업인력지원처			명성훈, 김문일		
기업인력애로센터	기업인력지원처			박서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성과보상기획처			김수중		

부 문	대 목 차	소 목 차	담 당 부 서	집 필 자
창업기술 지원		1.사업개요	스마트진단기술처, 지역산업성장처	류정명, 손혜미
		2.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스마트진단기술처, 지역산업성장처	류정명, 손혜미
		3.세부사업 추진실적	-	-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지원처	강은혜
		중소기업혁신바우처사업	지역산업성장처	손혜미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스마트진단기술처	류정명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스마트진단기술처	류정명
		중소기업 재기컨설팅 지원사업	재도약성장처	최희진
		정책중개	정책연구실	김영재
		중소기업정보제공(기업나라)	홍보실	박해석
2020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경영혁신 성과	고객서비스 향상 및 사회적가치 실현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 향상	사회가치실	김지혜
		국민과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소통과 참여 기반 윤리인권경영 추진	사회가치실	이태근
		사회적가치 내재화와 성과창출 중심의 국민체감형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수행	사회가치실	임보라
	조직 경영 효율성 강화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조직역량 집중	기획조정실	김수연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관 혁신	디지털혁신실	조동섭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 및 채용시스템 고도화	인재경영실	박종길
		전문인재 중점 육성	인재경영실	조수아
		기관의 경영전략과 정부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성과관리실	이동명, 서태양
		소통과 공감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구축	사회가치실	김충국

부 문	대 목 차	소 목 차	담 당 부 서	집 필 자	
2021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사업추진방향	2021년 사업추진방향	정책자금 투·융자	기획조정실	황보람	
		수출지원 및 글로벌화			
		인력육성			
부 록	결산 재무제표	-	기금관리실	안상준	
		조직도	-	기획조정실	김수연
		운영위원 및 임원	-	기획조정실	조주연, 황보람
	출자회사 현황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수출마케팅사업처	김도훈	
		한국벤처투자(주)	벤처융합금융처	천민주	
		(주)SBC인증원	스마트진단기술처	이병구	
		중진공파트너스(주)	사회가치실	조성훈	
	보고서 작성 총괄			정책연구실	정병욱, 이지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0 연차보고서
KOSME Annual Report 2020

발 행 일 2021년 7월
발 행 인 김학도 이사장
발 행 처 중소기업진흥공단
기 획·편 집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연구실
디자인·인쇄 디자인서가 02-735-1711

